

한국장애인재단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 박홍근, 허준기 |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성의 다양성 개선방안 연구
| 이영희, 진승현 |

보편적 학습 설계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
: 움직임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을 중심으로
| 정희정, 이용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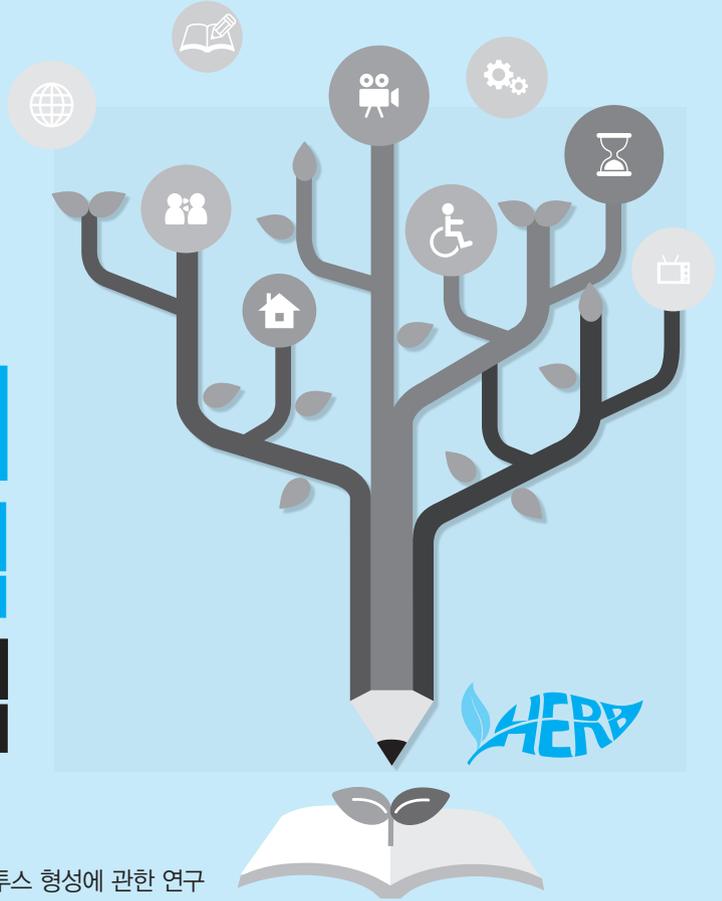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김정은, 조태홍 |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 김효진, 백혜련 |



한국장애인재단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 박홍근, 허준기 |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성의 다양성 개선방안 연구
| 이영희, 진승현 |

보편적 학습 설계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
: 움직임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을 중심으로
| 정희정, 이용호 |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김정은, 조태홍 |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 김효진, 백혜련 |

인사말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장애의 재해석』을 통해 전범위적 학문분야에서 ‘장애’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장애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벌써 6년째를 맞이하는 논문지원사업은 지금껏 기존의 복지·재활에 초점을 맞춘 장애관련 논문을 지양하고 이를 벗어나 장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논문 양성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학’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지원사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논문지원사업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장애의 재해석 공모는 11대 1의 경쟁률을 속에서 ‘장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열정적인 논문연구자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된 논문연구는 논문위원들과의 체계적인 1:1 멘토링을 통해 더욱 멋지게 다듬어지게 되었고, 가을의 끝자락에 한 단계 더 발전한 논문 총 5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5편의 논문은 2015년 논문발표회에서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우수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방송편성 분석과 더불어 생산자와 수용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성의 다양성 개선방안 연구」, 개념과 이론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한 「보편적 학습 설계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 움직임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을 중심으로」, 돌봄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들여다 본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시대와 사회문화를 통해 살펴 본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총 5편 논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내면화된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 거리감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장애의 재해석’이 작은 촉매제가 되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소통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에 애쓰신 모든 연구자와 자문위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논문지원사업이 끝이 아닌 시작의 발판이 되어 장애인식개선에 있어 각자의 분야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20.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 성 규

Contents

- 01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1

 - 박홍근, 허준기

- 02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성의 다양성 개선방안 연구 61

 - 이영희, 진승현

- 03 보편적 학습 설계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
전략개발 : 움직임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을 중심으로 115

 - 정희정, 이용호

- 04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81

 - 김정은, 조태홍

- 05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231

 - 김효진, 백혜련

01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박흥근, 허준기

자문위원 :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사회억압과 이에 대한 그들의 대항실천을 해외여행이라는 문화적 취향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해외여행은 중산층의 집단 정체성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문화취향 중의 하나이므로 장애인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인식된다.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양식은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회억압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장애인 수급자들 개개인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취향이 계급성의 표현이라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구별짓기’ 이론을 주요 자원으로 삼아 장애인 수급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삶의 경험의 축적과 그로 인한 특정한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그 실천을 발생시키는 능력인 ‘아비투스(habitus)’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여행은 장애인 수급자에게 사회억압의 이중구속으로 작용한다. 첫째, ‘장애인다움’으로서 장애인은 집밖에 나오면 비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는 구속이다. 둘째, ‘수급자다움’으로서 국가지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만큼 늘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구속이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에게 있어 해외여행은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란 이중구속에 대한 대항실천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억압이 축적되어 형성된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를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던 이들은 ‘장애인 수급자다움’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았던 이들이었다. 두 ‘다움’의 정도가 얼마나 내적 억압으로서 공고히 되어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일상생활의 실천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해외여행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장애인 수급자의 해외여행이 가지는 대항실천으로써의 전략은 사회의 억압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근본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경험이자 동시에 사회경험인 아비투스에 새겨진 억압 지점들을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대항지점들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다움, 수급자다움, 해외여행, 아비투스(habitus)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해외여행은 비장애인의 대표적 문화취향이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가 해외 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사회의 억압적 시선에 저항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사회억압과 이에 대한 그들의 대항실천을 해외여행이라는 문화적 취향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 중간계급이 당연하게 여기는 취향인 해외여행을 가기까지, 장애인 수급자들이 어떻게 위축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삶의 조건을 제약해왔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 사회 구조가 특정 권리와 공공자원들을 특정 집단이 가져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Barnes, 1991). 특히 비장애인이 다수인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차별적 환경에 처하게 되며,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측정(근로능력 기준)에서 탈락해 경제적으로도 무능력자 취급을 받는다.¹ 따라서 다수의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많다. 사회는 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애인’답게 행동할 것과, ‘수급자’답게 행동할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두 다움’을 장애인 수급자에게 내면화시키는 체계는 마치 장애인 수급자들의 삶의 특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림으로써 장애인 수급자의 삶의 가치를 제약한다. 사회는 그들이 장애인답게 조용히 그리고 수급자답게 빈곤하게 살기를 요구하고, 장애인 수급자 역시 이러한 두 시선을 지속적으로 내면화하여 두 ‘다움’을 자신의 본분인 것처럼 여긴다. 이는 결국 장애인 수급자의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빈곤(혹은 수급상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해외여행’ 같은 사치를 부리기 때문이라며 빈곤의 모든 책임을 덮어쓰게 만든다.² 즉 장애인 수급자는 비장애인 중산층을 기준으로 ‘타자화’ 된다. 결국 장

1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1년 6월 기준 371.3만원)의 53.4% 수준이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로, 실업률이 높다. 취업장애인(임금근로자 기준)의 임금 수준은 142만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고용노동부, 2011.5)의 54.6%에 불과한 수준이다.

2 2014년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 해외를 다녀온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54만 명이고 연평균 2회에 해당한다면, 이를 국가의 관리소

애인 수급자는 비장애인 중산층과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해야 하며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사회에 각인된다.

여기서 중산층은 ‘중간소득계층’으로 정의하며, OECD 기준 중산층의 기준은 월가처분소득(4인 가족 기준)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 기준에 해외여행 유무는 들어가 있지 않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하지만 해외여행은 중산층의 여가에 대한 상징적인 지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여행이 용이해지면서 중산층은 최대 해외여행 상품 구매자가 되었다. 신혼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해외로 나가는 중산층이 크게 늘면서 해외관광업이 굴뚝산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신광영, 2003: 42). 이러한 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로 주춤하였으나 최근에도 해외여행을 중산층의 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매년 자녀에게 조기유학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계층이동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즉 중산층은 자녀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이미 지위 재생산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윤자영 외, 2014). 따라서 사회 다수인 비장애인 중산층의 입장에서 장애인 수급자의 해외여행 경험은 문제적 취향으로 인식된다.

이론적 자원으로는 개인의 취향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축적해온 계급적 불평등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구별짓기’ 틀을 빌려온다. 부르디외는 그의 책『구별짓기』(2005)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해 어쩔 수 없게 갖게 되는 취향이 문화를 계급화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이러한 취향은 사회세계의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축적되어 육화된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삶의 경험의 축적과 그로 인한 특정한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그 실천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일컬어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라고 정의 내린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개인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자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르디외는 이 자본은 크게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나눈다. 경제자본은 재산이나 소득 등의 물질 자원을, 사회자본은

홀로 규정하였다. 즉 해외여행을 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곧 부정수급자라는 말이었다(김현숙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14.09.22.).

사회적 관계망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자본을, 문화자본은 가족배경이나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교양 등의 품성과 학력 등의 지표, 그리고 경제자본을 이용해 구매한 그림, 책 등 문화적 재화 형태의 자본을 말한다. 특히 문화자본은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사회적 선별과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³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두 ‘다움’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상생활에서 내면화된 상황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아비투스과 그 형성 조건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본론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관계자본은 각기 어느 정도이며 참여자들이 사회적 억압에 의해 ‘수급자다움’과 ‘장애인다움’을 강요받는 구체적 생애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억압에 어떤 식으로 순응, 회피, 저항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장애인 수급자에게 해외여행은 일회적 문화취향이라기보다는 능동적 주체로서 재형성한 아비투스에 의거한 문화취향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에 대한 참여자들 간의 대응방식의 차이는 각 장애인이 형성해 온 아비투스를 드러내 줄 것이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구조화된 불평등과 재생산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연구의 의의로 첫째,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에서 해외여행 등을 수급자가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설정하고 부정수급자의 낙인을 찍으며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로 치부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해외여행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 갖고 있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는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둘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에서 급여를 구성하고 있는 성격과 목적의 전환을 가져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장애

3 부르디외는 때로는 이 외에도 상징자본을 거론하기도 한다. 상징자본은 다양한 자본들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인정될 때 이들 자본에 의해 취해지는 형식이다. 이러한 상징자본은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적게 가진 자들에게 하나의 폭력으로 작동한다. 부르디외는 표준어에 대한 엘리트들의 강박을 예로 들면서, 이를 계급차이를 드러내려는 세련된 발화형식으로 정의하였다. 자연스러운 표준어 구사란 학교와 가정교육이라는 점진적 주입과정이 아비투스 속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엘리트가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이 마치 타고난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엘리트에 대한 계급적 우위를 승인한다(Bourdieu, 1995). 이 연구에서는 상징자본은 문화자본 안에서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는다.

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와 이를 하나의 시민권적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급여성변화의 근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장애와 아비투스

장애를 보는 주요한 두 모델 중, 사회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으로 발생한 범주로 본다. 즉, 육체란 사회에서의 삶에 의해 변하며 개인의 손상은 사회가 그들을 정의하는 규범이나 태도에 의해 장애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 모델은 장애를 장애인이 겪은 손상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이때 장애인의 육체는 일반 규범에서 이탈하여 정상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일견 전자가 후자보다 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회 모델은 손상된 육체를 만질 수 없고 도전받지 않는 것처럼 여김으로서 생물학적인 의미의 육체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장애의 일면만을 보는 측면이 있다(Claire and Rob, 2003). 이러한 의미에서 터너(Turner, 1992)가 육체를 생물학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 주장은 사회 모델과 의료 모델을 넘어서 장애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육체는 생물학적인 것만도(의료모델), 사회적인 것만도(사회모델) 아니며, 그 둘이 병합적으로 공존하는 곳도 아닌,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에 지속적으로 녹아들고 반응하는 과정(Claire and Rob, 2003)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된 모델에 입각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 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육체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체현(embodiment)'의 경험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러한 경험하는 육체에 주목하였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 아비투스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비투스는 각자가 속한 상이한 생활조건에서 얻은 개별적 경험이 특정한 생활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아비투스(habitus)는 타고난 생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생산물이며 사회적 경험 그리고 교육으로부터 획득된 것이다. 따라서 아비투스는 필연적으로 육화되고 ‘실천(practice)’에 의미를 부여하여 지각을 발생시키는 성향으로 전환된다. 이는 어떤 행동이 품위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잣대, 즉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호들의 체계가 된다. 결국 아비투스는 개인의 인지, 개념, 행동의 구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아비투스를 가진 개인들의 계급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르디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단순히 경제적인 재화만이 아니라 문화자본과 사회관계자본으로 세분하였다. 자본이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총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자본의 차이들은 상이한 생활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Bourdieu, 2005). 즉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화자본이 더 많고 경제자본이 덜한 사람과 경제자본이 더 많고 문화자본이 덜한 사람은 다른 계급으로 묶인다는 주장이다.

사회계층이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베블런(Veblen, 2012)과 부르디외는 같은 입장을 가진다. 베블런은 계급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하는 이들이 금전상의 결정이나 의식적 과소비를 통해 자신을 남들과 구별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부르디외는 교육수준이나 수입 등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비투스를 통해 자신을 별개의 계급 분파로 상정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베블런과 차이를 보인다(DiMaggio, 1994). 이러한 아비투스의 신호는 취향이며, 이러한 취향에는 문화자본이 큰 영향을 미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자본은 노력 없이 임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아동기의 사회화와 학교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주요한 연구들은 부르디외가 살펴본 바대로 가정환경이나 학교교육 등의 사회적 학습이 문화자본에 대한 접근과 보상을 통제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예컨대 모와 디마지오(Mohr and DiMaggio, 1995)는 부모의 교육정도와 직업 효과가 청소년 자녀의 문화자본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콘과 스쿨러(Kohn and Schooler, 1969) 역시 다양한 가치와 지향, 교육·직업 지위 사이의 결합 연관성을 살펴 보았는데, 이때 사회 계급은 수입이 아니라 직업과 교육적 성취와 연관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응답차원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자본을 연구에 사용할 때의 난점은 미학적인 지향점이 계급위계를 명확히 보여주는지가 애매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취향이 사회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취향의 신호가 명확히 분리된 신호를 가진 계급들로 구별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문화자본이 지배나 배제를 읽어내는 경계가 되지만 넓은 범위의 취향과 흥미는 계급 간의 차이를 연결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세계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Erickson, 1996). 따라서 문화자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문화적 신호들의 폭넓은 정당성을 보장하는 방법론적 도구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다움’이라는 동일한 아버투스가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회적 억압이 작동한다고 본다.

1) 노동과 (재)생산 무능력자

산업사회를 분업에 의해 집단에서 개인이 구분되는 과정으로 본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은 분업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기능)을 인지하는 것을 통해 좋은 사회가 구성된다고 보았다. 노동을 통해서만 완전한 사회적 성원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노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가 원하는 분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된다(Abberley, 1997).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데이비스와 무어(Davis and Moore)로 대표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기능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사회 불평등은 가장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치들을 보장하는 사회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진화한 장치이기 때문에 사회생존에서 보편적 필수성을 가진다는 것이다(Broom and Cushing, 1977). 이러한 기능주의의 반대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맑시즘에서도 장애인의 타자화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맑시즘의 핵심인 정치경제학은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력과 생산성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비장애인 부르주아와 노동력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프롤레타리아라는 전통적 대립에서 장애인은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들어

갈 자리가 없다. 이후 맑시즘 계열의 학자들이 소유방식을 세분화하거나 어떠한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계급을 부르주아, 관리자나 감독, 프롤레타리아, 소규모 고용주, 반-자치 임금노동자, 빈민 부르주아 등 다양한 위계로 나눠 상호 간의 관계설정을 하였지만 이는 전적으로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즉, 맑시즘에서 장애인은 도래할 해방 사회에서 완전한 성원권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력이 부재한 이들이다 (Abberley, 1997). 결국 장애에 대한 지배적 인식은 ‘손상을 입은(impaired)’ 사람들을 노동 세계로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Finkelstein, 1993). 손상된 몸을 지닌 사람들을 노동의 영역으로 완전히 통합시키고자 하는 입장은 결코 모든 장애인들이 희망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Abberley, 2002).

2)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정체성

무능력자 담론의 연장선으로 장애인의 정체성은 늘 사회의 억압과 배제 속에서 타자화 되곤 했다. 기존의 장애학에서 다룬 억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억압의 의미를 사회적 구조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억압 개념이 불명확하고, 다른 개념과 혼동하여 사용한 한계를 보였다(Abberley, 1987). 올리버(Oliver)를 중심으로 사회적 모델의 흐름을 주도한 입장에서 바라본 억압은 사회구조의 물질적·제도적 조건이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애벌리(Abberley, 1987)는 이를 억압과 착취를 혼동하며 사용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논의는 억압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다루면서 개인의 역할을 감소시켜온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억압에 대한 장애인 개개인의 역할이 축소되면, 장애인은 삶을 영위하는 동안 겪은 배제와 억압 경험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필연적이게 된다(강민희, 2011). 이렇게 되면 생애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배제 경험으로 인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타율적 특징을 확인하는 이상의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신유리, 2012). 즉, 장애인은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게 되어, 다시금 장애인에게 상징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같은 배제와 억압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에 대응하는 각 장애인의 전략은 다르며,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략을 수행하는 장애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아이슬란드에서 지적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며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작은 도시 출신에 비슷한 연령대이지만 그들의 지적 장애인이라는 명목상 정체성은 사회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획일화 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Björnsdóttir, 2010). 따라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과 배제가 동일한 장애인의 아버투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배제에 나름의 저항을 하는 경험과정에서 아버투스는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즉 장애인의 부정적 경험이 장애인이 억압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결론은 장애인 자신을 수동적 대상으로 인지하고 사회의 구성물로서만 여기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장애인이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는 다양한 방식이 그들 각각의 정체성을 저항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해외여행이 주는 의미와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오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급자의 생애과정을 역사적 요인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다움’과 ‘수급자다움’이 구성되는 과정을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외부의 억압적 환경과 개인의 억압적 경험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몸을 가치의 담지체로서 사회구조와 개인의 행위가 함께 녹아들어 체현되는 존재로 볼 때(Claire and Rob, 2003),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 수급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장애인 개인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이 해외여행을 둘러싼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단일한 사례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 기존의 이론적 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억압, 특히 장애인 개개인에게 체화되어온 내재된 억압이 해외여행을 둘러싼 장애인 수급자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부르디

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장애인 수급자의 몸에 투사되어 있는 사회구조가 육체자본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것이 당사자의 개인실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동시에 바라보기 위해서 아비투스 개념을 통한 이론적 전개가 필요한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 수급자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정금액의 현금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보면 의복·음식물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여의 지급원칙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권에서 탈락하게 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03,403원이며 현금 급여 기준은 488,063원이다.

표 1 | 2014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현금 급여기준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출처: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금까지 장애인 수급자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파악하고 제도에 집중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선우(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빈곤율, 빈곤갭과 빈곤갭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현재의 장애수당이 낮은 수급률과, 적은 수급액으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상용

(2013)은 국제 비교를 통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연구로 한국의 최저소득 보장제도가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류정순(2004)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분석하면서 불평등구조의 심화에 따른 상대 빈곤 악화의 문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한계를 말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실현이 힘들 정도로 낮은 보장수준과 엄격한 선정기준, 그리고 복지의존성과 자립의지의 결핍이라는 낙인을 부여하는 모습이 더 큰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정주(2002), 오수경(2005), 광지영·신은경(2006)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장애인 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정주(200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시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수급자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인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유인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자활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정주, 2002: 1). 이는 장애인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경제적 유인전략 연구(오수경, 2005)와 여성장애인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연구(광지영 외, 2006)에서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제도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집중하면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가시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수급자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급여수준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각각의 수급자가 처해 있는 상황적 맥락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문화·여가의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리는 문화생활이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사치로 다가오는 문화적 취향의 계급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생계비로만 다루고 있던 보장성에 문화적 생활도 포함하여 살펴봐야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속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로 이중섭(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능력,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

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여가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에게 높게 나타난 반면, 중증 장애인에게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이중섭, 2009: 100).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 중에 외출빈도와 교통이용의 편리함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 볼 때,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욕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제약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중섭(2009)의 연구가 부차적으로 여겨지던 여가생활을 권리로 다루고 그 전반적 요구를 수치화시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라도, 실제 장애인이 어떤 과정에서 문화적 취향을 택하고 제약 받아왔는지에 대한 삶 속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이라는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문화생활의 아비투스가 형성된 맥락을 보여주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과 연구 참여자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상생활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구별짓기를 통해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비장애인과 다르게 문화적 구분해왔는지 확인하려 한다. 장애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흔한 실수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대상화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장애 연구에서 전문가는 바로 장애인 자신이다. 즉 장애인은 그들 자신의 삶, 욕구, 감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연구에서 장애인은 참여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Davis, 2000).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여행’이란 하나의 사건을 경험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해외여행’을 둘러싸고 겪은 내면적·외면적 갈등뿐 아니라 과거 그러한 결정적 경험

들이 생애사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비투스 형성 배경을 탐색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실제적 이해를 돕는 생애사 방법론을 사용한다. “인터뷰는 한쪽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서 ‘공동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진’ 행위가 될 것이다”(Miles and Huberman, 2009: 22-23). 그렇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들을 타자화시키는 오류를 줄이고 장애인의 시선에서 천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아온 장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전과 후의 상황에서 사회적 시선이 어떠한었으며, 당사자가 지니고 있는 내적 서술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장애인다움’과 ‘기초생활수급자다움’의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구별짓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기 위함이다. 또한, 구별짓기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내면화가 자신의 생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과정은 기록하기 힘든 사건으로서 문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윤택림, 2005: 95). 말은 의식을 구조화하며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언어는 그들의 인생이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귀옥, 2014). 그동안 기록하기 쉽지 않았던 장애인을 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 수급자의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생애사 연구는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애사 연구에서 구술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은 기억의 정확성 문제, 자기검열에 따른 신뢰도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김귀옥, 2014), 비슷한 질문을 여러 각도로 하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였고 여러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구조적 상황을 파악하여 타당성 또한 검토하였다. 또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감 형성에 방점을 두고 참여자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연구자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해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심어주었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 인터뷰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거나 과거 수급자 생활을 했던 장애인 5명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해외여행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현재는 탈(脫) 수급을 했지만 여행 당시에는 수급자였던 장애인 포함) 3명과 수급자이면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장애인 2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한 이유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사적 경험과 경제·사회·문화자본의 형성 정도가 내적 억압을 다르게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자본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그렇지 못했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경험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를 인터뷰할 필요가 있었다. 참여자 섭외는 장애인 관련 매체의 기사를 통하여 3명, 연구자의 자문을 통해 1명을 소개받았다. 나머지 1명은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의 지인인데,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장애인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뷰 요청을 부탁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참여자	나이	학력	직업	해외여행 경험	장애	수급유무
A	30대 중반	대졸	사무직	2회	휠체어 이용	탈수급
B	40대 후반	무학	없음	1회	휠체어 이용	수급
C	40대 후반	대졸	프리랜서 전문직	없음	장시간보행 어려움	수급
D	40대 후반	대졸	프리랜서 전문직	5회 이상	휠체어 이용	수급
E	40대 후반	초졸	시민단체	없음	휠체어 이용	수급

주: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신원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가명으로, 나이는 연령대로, 직업은 직업군으로 기술하고, 장애유형은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5명의 장애인은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고 공통점도 존재했다. A와 B, D, E는 모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었다. 더불어 B는 언어장애가 있었다. C는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느리

게 걷고, 오래 걸으면 힘들 정도로 보행이 불편했으며, 언어장애가 있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 D만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나 어릴 때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IV. 연구결과

1. 아비투스 형성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

셰익스피어(Shakespeare, 1994)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온 물질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보다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여 억압을 설명했다. 셰익스피어는 장애인들이 물질적 차별과 더불어 편견을 통해 장애를 경험하는데, 이 편견은 문화적 표현·언어·사회화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했다(Shakespeare, 1994: 296). 부르디외는 이러한 편견을 가져오는 문화적 취향에 주목했고 계급화된 문화적 취향을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Bourdieu, 2005). 문화적 취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성해온 삶의 요소들, 즉 경제·사회·문화자본이 상호작용을 하며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이것이 문화생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이 제약받는 과정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단순화하기 보단 경제·사회·문화자본의 차이가 만드는 아비투스의 형성과정을 통해 구체적 맥락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우선 인터뷰를 진행한 5명의 장애인 수급자에게 구성되어 있는 아비투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외재되어 있는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부르디외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비투스는 외적 요인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내적 수급으로 1차적 형성을 이루기 때문에(Bourdieu, 2005) 아비투스의 형성과정을 보기 위해서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이와 그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다움’과 ‘수급자다움’이 어떻게 밖으로부터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 연구 참여자가 지닌 경제·사회·문화자본

참여자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A	부모 부양 1인 수급비 적용 우회적 경로로 부수입 마련	재활원 자원봉사자 대학 진학 동기, 선·후배	대학 졸업 문화적 취향이 미약함
B	- 2인 수급비 적용 재활원 생활에서 중 마련한 후원비	사회자본의 형성 기회 없음 야학 동기	야학 졸업 문화적 취향이 미약함
C	- 1인 수급비 적용 우회적 경로로 부수입 마련	대학 진학 동기, 선·후배	대학 졸업 문화적 취향이 미약함
D	장애로 인해 직장 퇴사 병원비 위해 1인 수급 신청 우회적 경로로 부수입 마련	이전 직장동료	대학 졸업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여행을 즐겨함
E	- 3인 수급비 적용 자녀 교육비 부담	장애인 직업학교 동기	초등학교 졸업 문화적 취향이 미약함

1) 경제자본

참여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아왔고, 이는 부모가 가진 경제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수급권을 부여받고 나서부터 이들의 삶은 수급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수급액을 보충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A는 높은 학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으로 추가 생계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아래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급자가 부모 부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A는 대부분의 생계비를 수급비용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소득에 잡히지 않는 무슨 원고를 기고한다든가 이런 부수적 수입이 솔직히 있었죠. … 논술 과외를 한, 두 달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다 합치더라도 소득이 낮았죠.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 하면 저의 부모님을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과외 수입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해서 사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은 수급권이 전부였기 때문에 ….”

(A, 인터뷰 2014/11/29)

B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가계를 책임졌고,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어머니는 B를 한 재활원으로 보내게 되었다. B는 재활원에서 십여 년 가까이 지내다가 탈시설을 하였고, 당시 모아두었던 수급비와 후원비로 생계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결혼 이후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고, 2인 기준 수급비를 받으며 장애수당을 포함한 140여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B는 전체 수급비용에서 일부를 적금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급권 박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모아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B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가 지출이 되는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이를테면 식당을 가더라도 활동보조인 식비를 제공하는 등의 비용이 들어가 생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E는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면서 빈곤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더구나 당시 E의 어머니는 수급자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숨길 정도로 수급권을 권리로써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동사무소 등에서 지원을 해줄 때도 거부했다.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E는 센터에서 지급하는 월급을 수급권 박탈의 가능성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식 두 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E의 생계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만 원 이 만 원의 용돈을 줬지만 수능보고 나서는 용돈을 준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얘기할 때 내가 내 입장에서는 모든 수급권비가 생활비로 온전히 쓰이고, 사실은 모자라요. 왜냐면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고 수급비에서 학원을 가면 생활비가 없어요.”

(E, 인터뷰 2015/7/20)

D는 건축설계를 하는 직장을 다니다가 장애를 가지게 되고 직장생활이 어려워 위자 그만두고 수급신청을 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제가 수급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현금 이런 게 아니라 병원 때문에. ... 병원에 한 번 가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병원 한 번 가면은 수급 신청 안 하면 직장에서 번 돈 다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병원 때문에 수급신청을 했죠.”

(D, 인터뷰 2015/7/6)

D는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신청을 하였으며, A와 마찬가지로 수급비 이외에 부수적 수입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활동 모습은 C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C는 웹디자인 일을 하면서 생기는 부수적 수입을 생계비에 보태서 사용하였다. 1인 기준 생계비를 받아서 월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내고나면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5명의 장애인 수급자는 대부분 수급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으며, 우회적인 경로로 부수적 수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장의 생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돈이 모이기 힘든 구조였다. 경제자본의 형성은 쉽지 않았으며, 이는 ‘수급자다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2) 사회자본

반면, 사회자본은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나타난 학력을 통한 인적네트워크의 부분과 사회적 활동 속에서 구축한 관계망으로 보았다(Mohr and DiMaggio, 1995). 이를 통해 이러한 사회자본이 문화적 취향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증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의 경제자본의 형성을 ‘수급자다움’에 영향을 준 측면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면, 사회자본의 측면은 ‘장애인다움’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나타난 한정된 관계맺음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더욱 소극적이고 고립되도록 만든 요인이 있

기 때문이다. 우선 고큰력의 A와 C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서 많이 갖추어져 있었다. A는 중·고등학생 시절 재할원 생활을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후원회’를 통해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되었다.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재할원에서 생애 처음 공식적인 교육을 받으며 배움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사회자본의 형성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문 직종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과 함께한 교류 속에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자본을 획득하고 있는 점이 A의 해외여행에 대한 시도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다.

“제가 장애인이고 XX대 학생이기에 왔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서 가는 그런 게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 제가 일본 쪽에 한 다리 건너 지인도 있고 그래서 많이 물어봤죠. 물어보고 어디가 좀 저렴한지 …”

(A, 인터뷰 2014/11/29)

여행을 가고 싶음에도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는 장애인 수급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여행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부딪힐 수 있는 난관을 수월하게 제거하도록 만들어주었다. 고큰력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은 C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A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지점이 나타났다.

“정보력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장점이겠죠? 그리고 주변에 선배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기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어, 그럴 때 사실은 ‘아하,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걸 느끼죠. … [이런 정보력이 있어도 해외여행은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거죠.]”

(C, 인터뷰 2015/5/28)

C는 국내여행의 경우,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대학후배라는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며 다니는 편이었지만 해외여행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두 달 내에 귀국하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래서 해외여행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을 말했다. 막연히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 뿐 실제로 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B, E, D는 사회자본이 앞의 두 사람에 비해 많지 않았다. B의 경우 가족과 28년간을 살면서 교육과정을 접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정도로 외출을 하지도 않았다. 이후, 시설 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재활원 → 인권 유린이 만연했던 기도원 → 음성 꽃동네’로 옮겨 다니다보니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의 경우도 사회자본이 늦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정규과정을 다니긴 했지만 극심한 차별과 배제 속에서 다니다보니 인적 관계망이 두텁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른 장애인들을 알게 된 모임에 나간 것은 결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장애인 직업학교에 다니면서부터였다.

“시설도 안 가고 재활원도 안 가보고. 처음 가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장애인들 모여서 배우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 1년쯤 재밌게 보내다가 그때부터 장애인 쪽에서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해서 계속 연결하다가 2006년도에 장애여성모임도 가서 하게 되고 ...”

(E, 인터뷰 2015/7/20)

이처럼 E는 다른 장애인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사회자본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이 장애인이면서도 수급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였기 때문에 앞서 A, C의 사회자본에 비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는 차이를 보였다. E가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괴리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엄청 취약하죠. 주변에 제 인맥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도 이 사회에서 빈곤하고 장애를 갖고 이중적인 처지에 놓이다보니까 저는 지금도 어릴 때도 뭔가 좀 더 저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라든가 좀 더 저보다 괜찮은 무리에 가면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언어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낯나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쪽에 끼려면 뭔가 더 이쪽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무리보다 더 뛰어ना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편한 쪽의 삶을 살다보니 이쪽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었고 ….”

(E, 인터뷰 2015/7/20)

D는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당시의 인적 교류와 장애인이 된 이후 알게 된 다른 장애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여행을 자주 다니며 관계를 맺은 여행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사회자본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본 장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니기 전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것이 문화적 취향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알게 된 여행 업계 종사자들은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비장애인이었던 이전의 사회적 교류를 살펴보았지만, 문화적 취향을 결정짓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D가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정보에 대한 활용능력을 들 수 있었다. 대학교육을 받았던 점과 건축설계와 관련한 직업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었던 것이 정보 습득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고, 이는 D의 문화적 취향을 형성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한 가지 짚어볼 특징으로는 뒤이어 논의할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 특징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자본이 문화자본의 주요 영역인 교육수준의 차이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공통되었지만, 이후 삶의 과정에서 우연적 요소로 인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A와 B는 부모로부터 교육적 지원을 받거나 자원을 물려받지 못한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재활원 등의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기회의 차이가 이후의 교육수준의 차이로까지 이어져

학력을 통한 인적네트워크의 부분을 달라지게 했다.

3) 문화자본

문화자본이란 지배계급의 문화와 관련 있는 언어규칙, 행동유형이나 가치 등을 말하며 교육수준의 정도가 문화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적 취향을 택하는 과정에서 취향을 가질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형성 정도가 다른 영역의 자본과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자본 수준의 차이가 취향의 선택에 차이를 가져왔음을 확인했다.

5명의 참여자들 대부분의 문화적 취향은 독서, 영화감상 등 비용이 적게 들고 혼자 하는 종류의 것 이외에는 없었다. 이는 대학교육 이수 등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며 문화자본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참여자들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 특징이다. 이들이 받은 교육 수준의 차이는 사회자본을 형성할 때 영향을 미쳤지만, 문화적 취향을 선택할 때는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기보다 비슷한 유형을 택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 원인은 ‘장애인다움’에 의한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차이로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 문화적 취향이 ‘장애인다움’으로 인해 고립되고 단조로운 형태의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이다. A는 어린 시절의 삶이 시골집을 두 팔로 기어 다니는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특별한 문화적 취향을 가질 수 없었으며, 외출 또한 병원을 이용할 때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경험을 접하기 어려웠다.

“저는 지금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나쁜의 콤플렉스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장애가 있고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뭐랄까요, 아까 클래식 얘기도 하셨지만 뭔가 제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향, 기예 이런 것들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대학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지식담론들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없는 재미를 느끼고 뭔가 내가 장애가 있지만 할 수 있고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어떤 걸 찾은 것뿐이지 저는 어떤 고급한 음악취향도 없고

미술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런 면은 없거든요. ... 아무런 기회도 없고 자원도 없고 결국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

(A, 인터뷰 2014/11/29)

A는 자신을 ‘취향이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며 지금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워볼지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탈수급을 하여 취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다. 문화적 취향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취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B나 E, C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D는 비장애인이었을 때 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했다. 건축설계 일을 하게 된 것도 여행을 통해 건축물을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2. 아비투스 형성과정에서의 내적 억압

집단 정체성에 대한 투쟁들은 합의 형성을 통한 사회세계에 대한 상을 부여하는 권력에 의해 관철된다. 이러한 권력에 기반이 된 구조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이 취약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사회세계에 저항하거나 적대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연시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Bourdieu, 1995). 즉,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억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피나 저항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내적 억압 속에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앞서 각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의 형성 정도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아비투스로 나타나는 정체성으로서의 ‘다움’이 어떻게 내면화되어 갔는지도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다. 왜냐하면 아비투스로 나타나는 형태는 단지 외적 요인들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궁해가는 모습도 함께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하면서도 수급자라는 두 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들이 ‘장애인다움’으로 인하여 장애를 열등함으로 보고 ‘극복’하는 장애인이 되기를, ‘수급자다움’으로 제약된 생활양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수궁하며 ‘다움’을 내면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1) ‘장애인다움’의 내면화

5명의 참여자 모두는 비장애인들로부터 비슷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다. 장애인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동정, 은폐 등의 시선이 나타났고(김도현, 2007) 당사자들도 이러한 시선 속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A는 자신이 그저 ‘전시’된 몸이었으며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도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 욕망이 제거된 존재로 취급되었다고 했다. B에게는 은폐된 시선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가족들이 B의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다루었다. 일곱, 여덟 살이 되어도 취학 시키지 않았으며, 집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E의 경우에는 B와는 다르게 취학을 했으나, 장애로 인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당하며 분리된 삶을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장애여성으로서 차별을 당하면서 자신의 장애를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몸소 느껴왔다.

“체육시간에 당연히 교실을 지켰고 소풍이나 놀러 가는 건 학교에서 아예 선생님이 오지 말라 하고 그게 당연시 되는 거고...”

(E, 인터뷰 2015/7/20)

“99년도에 둘째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그러는 거죠. ‘세상에 그 몸으로 또 낳아서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 정말 굴욕이더라고요.”

(E, 인터뷰 2015/7/20)

D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가 찾아왔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D를 ‘장애인’으로서 대하기보다는 알고 지내던 한 사람으로서 대했다. 이 때문에 타인을 접할 때 장애인이 되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이 된 이후에 시작하게 된 활동에서 사람들이 드러내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애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 이런 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D, 인터뷰 2015/7/6)

이는 진보적 활동을 했던 C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80년대 대학생으로서 학생운동에 가담했을 당시에 C는 학교 선배로부터 동정의 시선과 불편함을 느껴 화를 냈던 적이 있다.

“1학년 때인데 어떤 선배가 교문에서 [경찰과 대치중일 때] 내가 맥 놓고 교문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한마디를 툭하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생난리를 쳤잖아. 뭐라고 했냐면 ‘다리도 저는 게 왜 여기있어? 올라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이 나한테 다리 전다고 그랬다고 제가 지랄 지랄 했거든요.”

(C, 인터뷰 2015/5/28)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 속에서 대부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식의 장애를 비정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은폐하려 하거나 동정의 시선으로 대했다. 교육현장과 1980년대 말의 진보적 움직임이 활발했던 대학현장에서도 다를 바 없었으며, 이것이 때로는 사회적 활동의 배제로 이어졌다. 장애를 비난한 시선이나 장애를 동정한 시선 모두가 장애를 비장애보다 못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했고, 장애인을 욕망이 제거된 착한 장애인으로 타자화시킨 것이다.

타자화된 장애인으로서의 모습은 5명의 당사자들에게 투영되었고, 그들은 ‘장애인다움’을 내면화해갔다. A의 인터뷰에서는 스스로가 어떻게 비장애인의 시각에 맞춰서 ‘장애인다움’을 습득하고, 비장애인 되기를 시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시각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A는 자신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었다고 했다. 더구나 교복

을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또래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A는 자신의 장애를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주변화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A는 장애 자체를 ‘비정상성’으로 바라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슈퍼 장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처음으로 받은 재활원에서의 교육에 즐거워했고, 학업에 열중함으로써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다.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갔던 재활원에서 다른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장애를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던 A는 재활원의 장애인들과 다른 존재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수학여행 장기자랑에 참가하는 등의 ‘슈퍼 장애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 했고, 신체에 대한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 공부를 하였다. 이후 대학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장벽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장애인 인권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런 중간에도 비장애인이 되어야만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을 갈망하기도 했다. 자신의 한쪽은 뛰어난 엘리트 집단으로, 다른 쪽은 쉽게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인 집단으로 관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에 서있게 되었고, 이것은 장애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만 하는 ‘비장애인 되기’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B도 A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를 비정상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TV에서 꽃동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TV를 끄거나, 자신의 조카가 자폐 진단을 받자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늘 비장애인보다 무엇이 더 뛰어난가로 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뇌성마비라는 장애 때문에 몸이 부자연스럽고 말을 못하더라도 두뇌가 더 좋다는 식이었다. D와 C도 이와 비슷하게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이를 스스로에게 내면화하여 장애인 되기를 거부하려고 했다. D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30대에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모습이 도드라졌다. D는 직장을 그만둔 이후, 자신과 같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D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모임이 있어요. 거기 딱 갔을 때는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형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까 그러니까 내 미래가 거기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어가고 막 뛰쳐나오고 ... 그렇게 딱 나와 가지고 택시타고 한강다리로 갔었거든요. 아 이게 뭐 살아서 뭐하나 내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

(D, 인터뷰 2015/7/6)

C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자신을 장애인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이동할 때 장애로 인하여 남보다 조금 느리게 걷고 말을 빠르게 하지 못했는데, 노력을 기울이면 상대방이 쉽게 장애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늘 그는 자신이 비장애인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으며, 누군가 자신을 장애인으로 분류할 때 즉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고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을 장애인으로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에도 사회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살아왔지만 45세까지 장애는 불편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었다. 이는 대학진학을 통해 학생운동을 접하며 배운 진보적 지식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진보적 지인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회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 감수성과 몸으로 느끼는 장애에 대한 거부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그는 장애를 비정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장애운동에 대한 관점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주화·노동·통일 운동에만 집중했다.

“학생운동하면서도 장애운동을 하는 어떤 분들을 소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장애운동 같이 하자 했다고 ‘나 장애인 아닌데’ 썩난리를 뿜던.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정말 그때부터 장애인 운동을 했으면 ... 그 당시에는 딱 딱 막혀있었죠.”

(C, 인터뷰 2015/5/28)

E의 사례는 앞서 살펴본 사례들이 보여준 ‘장애인다움’의 내면화와 이에 따른 ‘장애인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는 분명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같은 집단으로 묶이기를 거부해왔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으로 비장애인 되기에 대한 시도를 했던 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저는 삶이 비장애인이 되고 싶은 게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E, 인터뷰 2015/7/20)

E는 비장애인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였다. 또한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모습에 스스로를 맞추어 행동하며 비장애인 사회에 속하려는 노력도 했다.

“내가 뭘 말을 하면 나는 그 사람들[비장애인들이] 볼 때 천해보이고 지식 없어 보이고 교양 없어 보이고 나는 정말로 비틀어진 사람같이 보여서 조심스러운데 ... 뭔가 보이지 않는 낙인이 선명했던 거죠.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이 속에서[비장애인 집단 속에서] 내가 이 무리 속에서[비장애인 집단 속에서] 융화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힘들었던 거지.”

(E, 인터뷰 2015/7/20)

위의 다섯 명의 장애인들은 이전의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의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실천을 해왔다. 사회적 구조가 만드는 장벽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비장애인이 되기 위한 개별적 움직임을 시도했다.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에 대한 논리구조를 답습하고자 했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점이 뛰어

난지를 드러내며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음을 표현했다.

2) ‘수급자다움’의 내면화

‘장애인다움’과 함께 수급자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들을 부여받아온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급비용에 맞추기 위한 생활양식을 택했고, 스스로가 생활비의 항목을 조절하여 본인의 취미를 만들고자 할 때에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다. A는 대학생으로서 누구나 한번쯤 시도해보려고 하는 교환학생에 대해서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환학생을 너무 가고 싶었고, 그런데 교환학생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게 되면 수급권이 끊겨요. 끊기니까 가 있는 동안 생활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시 책정되리란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 때 못 갔고, 뭐 그래서 뭔가 그런류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뭐 한달 이상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은 아예 생각을 못했고요. 보통 가더라도 일 이주내로 가는 건 갈 때마다 동사무소에 얘기 했어요. 항상 ‘내가 가는데 괜찮냐?’”

(A, 인터뷰 2014/11/29)

A는 교환학생이나 해외여행에 대한 자기검열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일상에서 가끔씩 할 수 있는 외식의 여부도 ‘수급자다움’ 속에서 꺼려하기도 했다.

“저도 비슷한 거도 있어요[자기검열]. ... 농협 체크카드를 제가 썼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걸로 아웃백을 가기도 하고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이 그거를 체크카드로 긁을 때 현금으로 뽑아서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

(A, 인터뷰 2014/11/29)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급비용이 항목별로 정해진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은 ‘수급자들이 지녀야 할 취향’으로서 하나의 이비투스도 강제되는 상황이었다. 자유롭게 생활을 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앞서 경제자본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수급권 박탈에 대한 우려로 적금을 조금 밖에 만들 수 없는 B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E의 경우에는 ‘수급자다움’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문화생활을 시도할 때 타인으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애초에 시도를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겪은 일련의 사례 속에서 ‘수급자다움’이 내면화되는 모습을 통해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추정할 수 있었다.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를 제가 2005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세어도 실어야 하고, 차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니깐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는 분이 보증금을 400정도 줘서 그렇다니까 … 수급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한테 그래요. 천만 원 미만, 차량등록증에 천만 원 미만으로 가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 그래서 997만원 맞춰서 가져왔어요. … 왜?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차 하나 사면서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E, 인터뷰 2015/7/20)

E는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또 다른 문화생활이나 소비생활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E와 자녀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E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수급자로서 생활양식이 제약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며, 결국 이는 다른 삶의 양식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C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수급자다움’이 나타났다. C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만든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정보수집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이를 국내여행과 다른 문화생활에 대한 시도에 활용하면서도 해외여행은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카드로 끊어서 가고 싶을까 안 한건 아닌데. 하고는 있죠. 현재도. 근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 [어디서 돈이 나서 갔다 왔을까라는 질문을 들으면 그래서 겁이 나요 사실은. ... 국내 여행 가는 것도 약간 뭐 꺼려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C, 인터뷰 2015/5/28)

D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수급권을 권리로서 인식하여 접근했고, ‘수급자다움’으로서 강요되는 생활방식에 대한 압박이 덜했다. 이는 D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맥락 때문에 ‘수급자다움’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4명의 연구 참여자들보다 경제자본이 상대적으로 덜 부족하였으며,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의료비를 충당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기초생활급여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삶 전체를 경제적 압박으로 내면화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D는 수급비 이외의 수입을 마련할 때도 드러내고 활동했으며, 이전부터 다녔던 여행도 거리낌 없이 다녀오곤 했다.

“열흘 정도 갔다 왔나? 그때는 갔다 오고 나니가는 뭐라고 하더라고. ‘해외여행 갔다 왔나?’, ‘어떻게 갔다 왔나?’ 단체 추천 받아서 갔다 왔다 그랬더니 증빙서류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냐 물어보니까 수급자가 이런 돈도 없는데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급자는 가면 안 되냐, 내가 해서 가는 것도 안 되냐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거는 다 증빙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내가 그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건 내 권리잖아요. 내 권리를 가지고 ... 제가 한 번 원고료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삭감한다고. 그러라고 그랬죠.”

(D, 인터뷰 2015/7/6)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강제되는 생활양식 속에서 자기검열에 대한 경험을 언급했다. 자기검열의 정도는 참여자의 생애사에 따라 경중을 보였지만 생활 속 행동을 하기까지 주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D는 유년기부터 수급자로 살아오기보다는 성인이 된 이후에 제도적 지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급권을 권리로 받아들였다. 이는 ‘수급자다움’에 의한 내적 억압이 D에게 약하게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3) ‘다움’의 내면화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취향

앞서 살펴본 ‘수급자다움’과 ‘장애인다움’의 두 ‘다움’이 다섯 명의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는 각각의 형태로 문화적 취향을 가지게 했다. 이들 대부분은 비용이 적게 들고 주로 혼자 하는 문화생활을 하였으며, 이마저도 수급자로서 경제적 여력의 부족함과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교류가 적고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조금씩 다르면서도 비슷한 형태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적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애치슨(Aitchison, 2003: 960)의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5세 이하의 장애아동들은 주로 혼자서 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두 ‘다움’을 통해 받은 영향으로 문화자본을 형성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동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들며 혼자 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적 취향을 형성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A의 문화활동은 독서이다. 배움에 대한 욕구와 지적 만족을 위해 독서를 주로 했고, 이는 수급자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되었다.

“제가 수급자로 있었을 때에도 제 기억에 최소한 어, 매 달 십 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 년에 한 50~60만 원 이상 책을 샀던 거 같고 더 많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저죠.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뭐 어학공부를, 어디 가서 학원을 그런 비용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제가 그냥 혼자 이제 결국은 책을 가지고...”

(A, 인터뷰 2014/11/29)

A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문화바우처를 통해 책을 주로 구입했고, 그 외에도 수급비용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책을 구입했다. 그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책을 한 달에 몇 만원씩 사서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수급자가 사치를 부린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다른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책만 사서 본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생활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문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례도 이야기 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어떤 장애인들은 술을 많이 사먹는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느냐라고 일단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이외에 아무런 취미가 없고, 그런 취미를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면, 특히 장애인은 더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술을 먹는 데 한 달에 십 만원을 쓴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A, 인터뷰 2014/11/29)

그는 장애인 수급자가 두 ‘다움’ 속에서 지출내역의 맥락을 항상 타인들에게 증명해야만 하는 행태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으며 문화적 취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수급자들이 겪는 이중적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요거 제가 볼 땐 ‘수급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 다른 모순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내 일상을 향할 때 ‘수급자다움’이 있고, ‘수급자다움’이라고 할 때는 일단 최대한 뭔가 최대한 숨길 수 있다면 숨겨야 하는 것. 내가 아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수급자로서의 어떤 태도는 ‘수급자다움’이라기보다 수급자들의 태도, 수급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태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양쪽을 향해 있는 거 같다.”

(A, 인터뷰 2014/11/29)

즉, ‘수급자다움’은 당사자에게 두 가지 양면적 태도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수급자로서의 모습을 최대한 가리고 싶어 하는, 수급자로서의 부끄러움이나 낙인

의 확대에 대한 거부이다. 비수급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급자로서의 아비투스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급자가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수급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과 비슷한 모습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문화적 취향을 선택할 때도 이러한 요인이 고려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급자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태도이다. 활동을 제약받지 않기 위해서 수급자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한 생활비의 출처가 증명 가능하고 최대한 수급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한 모습들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급자다움’이 강제하는 양면적 태도 속에서 택하는 문화 활동으로 독서, 영화, 음주 정도만이 남게 된다. B가 택한 문화적 취향도 주로 영화보기였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작은 방에서 영화를 주로 봤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현재도 영화를 보는 것이 주된 취미활동이며 영화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집에서 영화를 보았다.

“저희가 CGV가서 봤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영화 보고 지금은 테레비가 있으니깐 ... 불법다운 허허. ... [CGV에서] 내가 본지가 한 작년 가을인가 맞나 본 거 같아요. ... 옛날에는 [CGV에서]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 봤어요.”

(B, 인터뷰 2015/5/4)

TV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잘 보지 않았다. 아무래도 비용적 측면과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더욱 수월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였다. 영화 이외에는 다른 취미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노래방을 가끔 가지만 가격이 비싸 부담이 되다보니 자주 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시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비정기적 문화생활이긴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E는 연극 관람을 매우 좋아하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주 접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벤트 행사 등을 이용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할인을 받는 등의 방법을 이

용하여 최대한 낮은 가격에 연극·콘서트 등을 관람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의 생계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가생활을 즐기기가 힘들었다.

“지금 현재는 많이 못해요. 전에 가끔 이제 저도 그 연극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연극이나 공연 보는 거. 뮤지컬이나 콘서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걸할인 많이 이용했죠. 이벤트 행사에서 이런 걸할인 많이 이용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많이 뒤지고 그래도 저는 정보를 좀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

(E, 인터뷰 2015/7/20)

E는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이동의 어려움과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행을 꺼려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욱 다양한 문화적 생활을 선택하지 못하고 두 ‘다움’속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많아져 주로 혼자 보는 것을 위주로 문화취향을 택했다. 공연을 보러 다니고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는 C도 가지고 있었다. 영화는 주로 장애인 할인을 통해서 이용했으며, A와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문화바우처를 영화를 보는 데 사용했다.

“지금도 어디를 가려면 엄청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생활했던 곳은 편했는데 일단 그렇지 않은 곳은 항상 생활했던 이외의 것은 다 불편하거든요. …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불편함을 줄까.”

(E, 인터뷰 2015/7/20)

“저는 그거로문화 바우처 영화만 봐요. 보는 걸 좋아해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보고 싶는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모아서 모아서 봐요.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30%든 50%든 할인을 받아도 비싼 거예요.”

(C, 인터뷰 2015/5/28)

D는 앞서 4명의 사례와는 조금 달랐다. 이미 비장애인이었을 때부터 여행이라는 문화취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인이 되었을 때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녔다. ‘장애인다움’과 ‘수급자다움’이 다른 영역에서 나타난 것을 오히려 여행을 통해서 해소한 측면이 컸으며, 이는 뒤이어 다루는 두 ‘다움’에 대한 대항적 실천으로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과정을 분석하면서 설명하였다.

3. ‘장애인다움’과 ‘수급자다움’에 대한 대항실천으로서의 해외여행

장애를 개인에게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장애를 사회의 구조 안에서 사고하며 주로 했던 행동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장애인 조직을 만들거나 장애운동에 결합해 힘을 보태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정치·사회적인 변화로만 환원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다수인 사회에서 설정한 노동력과 생산력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Abberley, 1997)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제력의 한계는 단순히 생활을 위해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절대적 한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므로 그에 걸맞은 소비생활을 추구하라는 억압적 시선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앞서 장애가 사회적 문제임을 깨닫고 ‘장애인다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상황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과도한 지출로 보이는 소비생활을 추구할 경우 수급자가 받고 있는 수급액이 줄어들며 최악의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급액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절한 액수인가는 둘째 치고, 수급자 자격의 상실은 유일한 정기수입원의 즉각적 상실을 의미한다. 장애인 수급자는 장애와 수급자에 대한 억압적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수급자들은 장애에 대한 억압적 시선에 저항하며 장애인의 권리 평등에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인 수급 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급자다운 소비생활을 함부로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한다. 즉, 사치로 보이는 소비지출을 철저히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수급자들에게 과도한

지출은 부정수급자로 몰릴 위험을 뜻한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그 의미 자체가 의식의 최소한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외 어떤 문화적 취향에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모두 과소비가 된다.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해외여행은 장애인 수급자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출항목에 해당되며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생기는 지출이다. 이러한 ‘분에 맞지 않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해외여행을 맥락 없이 이야기한다면, 해석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소비는 계급의 정체성 자체를 형성(Bourdieu, 2005)하는 것이라면, 장애인 수급자들이 비장애인 중산층의 보편적 계급성을 드러내는 ‘해외여행’ 취향을 따라하는 것은 곧 비장애인 중간계급으로의 편입을 욕망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해서 갔다 온 이들이 그 해외여행의 시기가 장애와 ‘장애인다움’을 분리해 사고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해석이 달라진다. 그들에게 해외여행은 중산층 취향의 모방이 아니라, 장애인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작동해 왔던 ‘장애인다움’을 일정 부분 극복해 냈다는 결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표 4】 해외여행 관련 사항

참여자	연도	여행지	총비용	준비기간	비고
A	2010년	일본	약 70만원	6개월	
B	2012년	사이판	약 500만원	3년	동반 2인(아내, 활동보조인)
D	2006년	인도	약 100만원	1년	환경단체 일부 지원

〈표 4〉에서 보듯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을 준비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들은 수급자였으므로 준비기간은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었다. 우선 다른 소비를 줄이면서 돈을 모았다. 이들이 돈을 모은 것은 비장애인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과정이었다.

“어 일단은 이런 커피를 좀 들 먹었구요. 책을 확실히 안 샀어요. 책을 제가 사는 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사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하지 않고...당연히 영화

같은 거는 거의 안 봤어요.”

(A, 인터뷰 2014/11/29)

“총각 때 모은 게 있고, 수급비 나온 거 모은 거 있고 우리 와이프도 시집올 때 돈 모아둔 게 있고 적금 부은 것도 있고 ….”

(B, 인터뷰 2015/5/4)

“그 비용은 제가 여행을 간다는 걸 알고부터 이전부터 준비를 했죠. 100만원은 인제 매달 얼마씩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해 준비한 것도 있고, 나머지 혹시 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금 모은 게 있어요. 그거랑 합쳐서 잤은 거죠 ….”

(D, 인터뷰 2015/7/6)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경제·사회·문화자본이 모두 빈곤했던 청소년기에 장애인다움’이라는 사회억압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장애인다움’은 자신에게 주어진 감히 극복할 수 없는 특징이었다. 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인다움’에 부여하는 특징을 순순히 내면화하거나, 비장애인 집단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회피’전략을 구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와 ‘장애인다움’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사회자본을 축적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주로 학교(대학, 직업학교, 야학 등)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⁴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를 통해 장애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또는 혹은 자신 외에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던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4 교육제도에서 공적으로 주어지는 학위는 문화자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를 제하고 할 때는 교육효과 자체보다 교육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자본으로 작용한다.

사회자본을 축적한 연구 참여자들은 곧바로 자신이 내면화했던 ‘장애인다움’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 의해 부여된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이 문제는 곧 장애인들이 사회를 향해 권리 불평등을 주장하는 여러 실천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장애인다움’을 완전히 떨쳐내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장애인다움’은 그들의 성장기에 아비투스로서 형성되어 그들의 무의식적 습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를 재인식하게 됨으로서, ‘장애인다움’에 순응하거나 회피하던 삶의 방식에 ‘저항’의 가능성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다움’에 저항하는 일상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아비투스를 변모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A는 자신을 ‘장애인임에도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였다. 즉 그는 남이 장애에 대한 모욕을 한다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강한 정신력을 가지려고 했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으며 일부러 남 앞에 더 많이 나서려고 노력하였다. 공부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에게 장애인 대학 입학 전까지만 해도 ‘극복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그가 장애를 사회적 모델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것은 대학 동료들과 학내에서 장애인인권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개인적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내서 장애인으로서 보이길 원치 않았던 그는, 바로 그러한 시각 자체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를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즉 몸의 손상은 그 자체로 몸의 일부였으므로 손상된 몸 자체를 극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극복해야하는 것은 손상된 몸에 부여된 사회적 차별이라는 장애이다(Oliver, 1996). 그가 남과 달랐던 자신의 몸에 대한 사회의 구별짓는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과 다른 몸(손상)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사회의 규범처럼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A는 바로 이러한 시선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장애와 마주하게 되었다.

B는 40대까지도 자신의 장애를 철저히 개인적 문제로 보았다. 그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였고 남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장애를 원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가 장애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야학에서 공부를 배우면서부터였다. 그는 영어, 수학, 과학 등을 공부해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기쁨을 느꼈다. 아울러 야학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장애를 보는 방식이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서서히 변화한 것이다. 2006년을 전후하여 그는 자신의 장애를 사회에서 소수자가 겪는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장애는 안경 같아요. 안경 쓰는 게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다 장애였을 거예요. 똑같잖아요. 못 보는 게 다 똑같아요. 안경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있는 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몸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비장애인 몸이에요 ...”

(B, 인터뷰 2015/5/4)

장애와 비장애가 갈라지는 지점은 몸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며 이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B는 손상과 장애를 명확히 구별할 뿐 아니라, 의료적 해석의 영역에서 이야기 되던 손상을 담론의 공간에 위치시켜 이야기하고 있었다.

C는 앞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장애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장애가 있는 몸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받는 편견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한 고민을 떨친 것은 비교적 최근인 45세 때였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장애와 몸이 체현하는 장애 사이의 괴리에 대해 꾸준히 고민한 끝에 정리가 된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다.

E가 장애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학교에 다니면서부터이다. 1년 과정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반을 등록해서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후 그는 여러 장애인 모임에 참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열악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권리임을 깨닫게 되면서 장애인들을 조직하고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로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장애를 온전히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든가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C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장애인권리 모임 등에 나가면서 이해한 사실과 몸이 생활하는 현실세계의 다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그 괴리를 만든 사회를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

“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비장애인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저는 깨우친 거죠. 내가 비장애인으로 바뀐다면 아마 지금도 비장애인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바뀌어요. 이걸 절대로. ... 비장애인이 되어야 좋은 게 많거든요. 직장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걸 알았던 거지. 이 사회를 바꿔야해, 이 차별적인 것을 바꾸면은 내가 비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차별적인 걸 바꾸면 내가 비장애인이 안 되도 되는 거거든요. 그 맛을 느낀 거죠.”

(E, 인터뷰 2015/7/20)

D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나간 이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E가 장애인은 자신만 있는 줄 알았다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장애를 집단의 문제로 사고하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D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성인이 될 때까지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변모한 장애를 가진 몸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다. D는 장애인 모임에 처음 나간 후 자신이 장애인임을 깨닫고, 진행성 장애인 자신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현실에 직면하자 그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D는 그길로 극단적인 생각을 머금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자살 과정이 그가 자신의 장애로서의 몸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딱 나와 가지고 택시타고 한강다리로 갔었거든요. 아, 이게 뭐 살아서 뭐하나, 내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한강 다리에 내려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난간이 있잖아요. 팔에 힘이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때가 2000년 초였죠. …”

(D, 인터뷰. 2015/7/6)

자살 시도를 통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는 장애인이 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D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보다 장애를 개인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극히 짧았으며, 자살미수라는 결정적 사건으로 곧바로 자신의 장애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장애는 유전적 질환으로 발생한 것인데, 자신의 장애가 유전적으로 타고났을지 몰라도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 활동가로 일하였다. 장애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 그는 수급에 대한 생각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해 신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다.

“주변에서 알려줘 가지고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자세히 봤어요. 수급관련 법을 근데 이게 예전에는 기초생활 수급 권리법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시혜를 주는 법이었잖아요. 영세민, 이런 식으로 시혜적이었는데 이제 수급신청 할 때 제가 법을 자세히 보니까 권리더라고요. ‘어, 권리면 신청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죠. … 왜냐면은 국민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요. 전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권리도 있어야죠. 그래서 신청할 때는 어 이거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

(D, 인터뷰. 2015/7/6)

1) ‘장애인다움’에 대한 인식과 체현

그러나 ‘장애인다움’을 재인식하는 것이 곧바로 문화적 취향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장애인식과 장애인으로서의 몸’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몸의 기억, 즉 체현은 생물학적 몸과 사회적인 공간이 겹치는 과정을 말한다(Turner, 2002). 우리는 몸을 통해서만 사회에 존재하며, 몸은 사회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문화·경제적 과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부르디외는 사회 불평등과 억압의 재생산이 특정한 몸의 형태에 부여된 상징가치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Bourdieu, 2005).

앞서 서술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와 ‘장애인다움’을 분리해 생각하면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회 불평등을 ‘장애인의 몸’으로 몸소 체현하고 있다.

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가지 못한 이들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차가 훨씬 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해외여행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갔다 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는 장애의 상대적 경중과 상관이 없었다. 예컨대 장애를 일률적으로 양화(量化)시키는 장애등급 판정만 본다면, B는 연구 참여자들 중 장애의 정도가 가장 중하지만,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몸이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처음엔 있죠, 처음엔 나도 남의 시선을 의식했죠. 지하철 타면 가만히 있고 식당가면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지금은 지하철 타면 떠들고 싶을 때 떠들고 [일부러] 식당 가운데 자리 가서 앉아요. 담배도 안 보이는데서 몰래 피웠었는데 편할 때 대놓고 피우고요. 심지어는 담배 못 피우게 하는 데서도 피우고 그랬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느날부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귀찮아지더라고요.”

(B, 인터뷰 2015/5/4)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A 역시 장애 그 자체는 이미 자신의 몸이며,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 자체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가진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다. D도 A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장애를 바라본다. 여행을 좋아하는 D는 비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행을 다니고 있다. 이동의 제약과 비장애인들의 불편한 시선, 그리고 여행지 업주들의 냉대 속에서도 D는 낯선 환경으로의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반면 해외여행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았던 C와 E는 장애를 가진 몸의 불편함을 앞선 이들보다 의식하고 있었다. C의 경우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휠체어 없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남들과 다르고 말을 부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C는 이런 다름으로 인해 남에게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걸음걸이나 말투에 신경을 많이 쓰곤 하였다. E는 2008년에 한 단체의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⁵ 좋았던 기억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낀 여행이었다.

“일본 연수 당시 그때 그 힘들고, 이동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전동휠체어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 도움 받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불편함을 줄까. 또 특히나 저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못 간다든가 시간상으로 많이 제약을 받는 못 가서 딜레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은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장애인들이 다들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게 되게 부담스러워. 왜? 분명히 누군가는 재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양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진보적 활동한다지만 그런 게 많죠.”

(E, 인터뷰 2015/7/20)

5 이 연구에서는 연수나 교육과 같이 특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갔다온 해외 여행은 연구 참여자의 해외여행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의 몸은 여전히 불평등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정체성으로서의 장애와, 육체로서의 장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즉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 사이의 어디쯤에 있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수급자다움’에 대한 상상된 억압과 실현된 억압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문화적 취향을 통해 장애인들이 중간계급에 편입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것과 동시에 곧바로 장애인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억압받는 사회계급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만약 중간계급의 편입을 욕망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중간계급으로의 편입 지속성을 도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간다는 선택은 단순히 매달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다시 모을지 모르는 목돈을 한 번에 써버린다는 불안감과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수급자 자격 자체가 박탈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해외여행을 가는 결단을 내리고 이를 구체적 실천으로 옮긴 것과, 가고는 싶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단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인 수급자에게 덧씌워지는 사회적 억압에 대항하는 일련의 실천과정 속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결단도 이루어진다. 즉, 해외여행을 나간 이들은 앞서 말한 목돈을 써버린다는 불안감과 수급자 박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해 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회적 억압의 내면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애인 수급자에게 해외여행이 사치라는 의미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탈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설령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모은다고 해도 탈수급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탈수급은 장애인 수급자가 비

장애인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안정된 일자리 없이, 아끼면서 저축해야 탈수급을 한다는 구호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 환상이 장애인 수급자에게 ‘수급자다움’으로 작동하며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해외여행이란 ‘수급자다움’에 문제를 제기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해외여행은 이것저것을 재고 따지는 도덕적이고 무거운 고민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정말 해외를 가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욕구에만 충실한 것이었다.

“일본은 사실은 제가 꼭 일본을 가고 싶은 건 아니고, ... 여행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행으로 갔다 오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애인 다니기 편리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일본을 선택을 했어요.”

(A, 인터뷰 2014/11/29)

“갑자기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한 번 갑자기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도우미까지 ... [3년 모은 비용을 한 번에 쓴 데 대해] 전혀 허탈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먹고 몸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B, 인터뷰 2015/5/4)

“[수급 탈락에 대한] 걱정은 있었죠. 뭐 그렇지만은 일단 갔다 오고 와서 생각하자 ... 그 인도에 갈 때 주변에서 엄청 말렸어요. 왜냐면은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장애인이 가기에는 거기에는 너무 ...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뭐 일단 갔다 오고 나서 결정은 내가 하겠다’ 다 뿌리치고 갔죠.”

(D, 인터뷰 2015/7/6)

해외여행의 경험이 그들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해외여행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장애인다움’과 ‘수급자다움’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 참여자

모두 장애를 사회문제로 보기 시작하고 일상에서 실천을 만들어가는 점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왜 해외여행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것일까.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이들은 처음에는 수급자들의 일반적인 사정인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

“시도를 해볼 생각을 하다가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카드로 끊어서 가고
값을까 안 한건 아닌데. 하고는 있죠. 현재도. 근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C, 인터뷰, 2015/5/28)

“계획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워낙에 활동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따로 모으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우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당연한 거죠”

(E, 인터뷰 2015/7/20)

연구 참여자들은 해외여행 당시 모두 수급자였으므로 경제적 사정의 정도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참여자들은 해외여행을 갔던 이들에 비해, 수급자들이 막연히 느끼는 수급 박탈의 공포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다. E는 자신의 가족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의 간간한 참견에 의해 늘 자신의 소비 형태에 대한 자기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였고⁶, C는 수급이 실제로 한 달 끊기는 경험을 했다.

“... 예전에 제가 수급권이 끊길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50만원을 이동복지교사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데 파견되는 그런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 첫 번째 해에는 4대 보험을 안 잡는 걸로 했다가 두 번째 해에는 등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구청직원으로서부

6 '수급자다움의 내면화 부분'에서, 자동차 구입 당시 무조건 1000만 원 이하로 구입하라고 했던 공무원에 대한 E의 이야기 참조.

터 연락이 와서 많이 받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수급권이 박탈 될 수도 있고 수급비를 토해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그렇게 협박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고선 한 달이 끊겼었어요. ... 그래서 [해외여행이] 겁이 나오 사실은 ...”

(C, 인터뷰. 2015/5/28)

반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해외여행이라는 실천 이전에 앞서 언급한 C와 E처럼 수급자 자격의 박탈 위협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으며, 첫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때도 국가로부터 별다른 사후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한 두 명은, 그만큼 ‘수급자다움’에 대한 경험적 공포가 더 컸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즉, 다섯 명 모두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에 부여되는 사회적 편견에 사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공적으로(정치적 목소리를 통해) 저항했다. 하지만, ‘수급자다움’에 대해서는 박탈이라는 현실적 공포를 직접 마주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수급자다움’의 내면화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해외여행을 못 간 것은 비단 경제·사회적 여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불가능한 실천의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연구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다움’의 측면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해외여행을 문화적 취향의 구체적 선택지로서 상상하지 못했다. 둘째, ‘수급자다움’의 측면에서 미래의 경제적 불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급자 박탈 공포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경험했을 경우도 해외여행을 구체적인 문화적 취향의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았다. 즉 인식적으로는 연구 참여자 모두 장애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문제의 틀 속에서 재사유하고 있지만 사회억압을 경험한 그 체현의 정도에 따라 해외여행을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정도가 달랐다.

V. 결론

이 연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생애사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회억압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내면화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러한 억압에 의해 형성된 장애인 수급자의 아비투스(a)가 동일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장애인 수급자의 아비투스(a)가 동일하다고 보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을 일반적으로 특징짓고 그것을 사회적 차원의 차별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장애인 개인의 경험을 간과하고 늘 억압받는 배제자로만 보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장애인 수급자의 아비투스(a)가 동일하다고 보는 입장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 수급자를 보는 시각이며, 장애인 수급자의 삶을 단순화시킨다.

장애인 수급자 개인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문화취향이 계급성의 표현이라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이론에서 출발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본의 형성정도가 문화적 취향을 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다는 점과, 그러한 문화적 취향의 차이가 계급적 구분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디외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취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자본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 그들 스스로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로 인해 어떤 문화적 취향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억압 또는 사회억압에 대항하는 실천을 읽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장애인 수급자의 문화취향 중에서 해외여행을 주요한 대항실천으로 선정했다. 우선 해외여행은 장애인 수급자에게 이중구속으로 작용한다. 첫째, 비장애인 중심의 여행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여행은 ‘불편한 몸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사회적 억압을 견뎌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여행이 중산층의 질적인 취향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수급자의 해외여행은 사치로 규탄 받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다움’과 ‘수급자다움’에 주목하며 해외여행을 갔다 왔거나 가보고 싶어 하는 장애인 수급자

들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여건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과정 또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해외여행은 일회적인 만족감을 위해서라든지, 중산층 편입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애사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온 ‘장애인 수급자다움’에 대한 나름의 대항실천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은 좀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이들이 서서히 자신의 아비투스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 간 끝에 기존의 사회역압에 반하는 다양한 실천전략 중 하나로써 선택하게 된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그렇지 못했던 차이를 가져온 지점은 해외여행을 현실적 선택지로써 ‘상상’ 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였다. 다섯 명의 장애인 수급자가 모두가 비슷한 경제사정임에도 누구는 돈을 모아서 다녀오고 누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의 여부를 열어두었는가 닫아두었는가의 차이였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차이를 개인의 의지가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해석이다. 해외여행을 가려는 구체적 시도는 개인의 의지보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특정경험이 더 문제였다. 두 ‘다움’의 정도가 얼마나 내적 억압으로서 공고히 되어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일상생활의 실천이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해외여행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사회역압을 일상경험 속에서 체현한다. ‘장애인다움’과 관련해서는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장애에 대한 ‘사회역압’을 경험하였고 사회자본을 통하여 이에 저항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장애’를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체현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차별을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모두 ‘장애인다움’을 사회역압이라고 뚜렷이 인지했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스며든 아비투스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과 바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으로서의 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장애는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장애가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강한 연구 참여자 일수록 해외여행과 같은 문화적 취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하였다.

‘수급자다움’은 수급박탈의 경험이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고 상상된 억압만을 경험한 이로 나누어지며, 전자의 사람들이 좀 더 여가생활에서 소극적이고 해외여행을 실천가능한 취향으로 상상하지 못하였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보다 경제자본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풍부하거나, 문화적 욕구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수급권 박탈에 대한 공포를 느낀 적이 없거나, ‘수급자다움’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수급권을 실제로 박탈당한 경험이 있거나 국가(담당공무원)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속속들이 감시한다고 느꼈을 때는 해외여행은 부담스러운 취향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해외여행은 장애인 수급자라 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준비시간이 더 필요할 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취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이 장애인 수급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장애인 수급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억압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잘 보여준다. 장애인 수급자들은 문화 취향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취향을 즐기므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물론 이는 비장애인 비수급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여 생활전반에 걸쳐 모든 행동을 검열하는 기제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에게 좀 더 자유로운 문화 취향의 선택과 소비란, 단순한 문화적 취향의 다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억압에 대항하는 실천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아비투스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작업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장애인 수급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억압이 축적되어 형성된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를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

하고, ‘장애인 수급자다움’을 장애인 수급자의 본질처럼 여긴다. 이는 비단 비장애인 비수급자의 편견만은 아니다. 상당수 장애인 수급자 역시 유사한 편견으로 자신들을 바라본다.⁷ 이것은 지속적인 사회억압을 몸으로 체화한 결과, 사회 불평등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장애인 수급자의 해외여행이 가지는 대항실천으로서의 한계가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장애인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문제시 하는 사회 자체의 억압적 구조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억압적 사회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여행편의시설이 증대되고, 수급비가 삶의 질을 재고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능한 장애인’과 ‘동정 받는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배제이다. 이러한 분리된 시선은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권리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억압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습관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한다. 참여자들은 억압이 사회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문제라고 명확히 말한다. 하지만 바로 그 억압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육체에 새겨진, 억압에 적응한 생활실천양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인식과 현실 사이를 진동하며 그 사이에 ‘장애인으로서의 몸’이 놓여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몸’을 바라볼 때도 장애인을 그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늘 ‘장애인 일반의 단일한 욕망과 욕구’로 환원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이자 동시에 사회의 경험인 아비투스에 새겨진 억압지점들이 중요해 진다. 그러한 억압의 지점은 각기 다르며, 그것들은 동시에 그들이 각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은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결국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 억압의 해결은 시설 개선이나 제도적 접근뿐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장애인을 인정하는 것이 병행 되어야 한다.

7 한 장애인 수급자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논의가 결국 해외여행의 정당성 토론으로 번지고 말았다(비마이너, 2014. 09. 25).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민희 (2011). 장애차별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 장애차별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393-415.
- 고용노동부 (2011).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 곽지영·신은경 (2006). 국민기초수급대상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16(2), 5-26.
-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한울.
- 김도현 (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 김현숙 의원실 (2014.9.22). 구멍 뚫린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의여행' 100만건. 김현숙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 류정순 (2004).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대안. 기념논문집, 2004(1), 410-430.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비마이너. (2014.9.25). [기자수첩] 수치심을 기르는 복지, 과연 옳은가.
- 신광영 (2003). 중산층의 위기, 표준과 상승의 몰락 - 왜 중산층의 위기가 우리 모두의 위기인가. 당대비평, (24), 42-56.
- 신유리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 지체와 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한국사회 복지학, 64(2), 299-323.
- 오수경 (2005).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연계를 위한 경제적 유인전략. 장애와 고용, 15(2), 29-53.
- 윤상용 (2013).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159-188.
- 윤자영·윤정향·최민식·김수현·임재만·김영순·여유진 (2014).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윤택림 (2005).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이선우 (2010).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17(2), 135-162.
- 이정주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노동시장 유인방안. 조사연구, (8), 1-112.
- 이중섭 (2009).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3). OECD기준 중산층과 제3중산층의 괴리. 현대경제연구원,
13(41).

해외문헌

- Abberley, P. (1987). The concept of opp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a social theory of disability.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2(1), 5-19.
- _____. (1997). The limits of classical social theory in the analysis and transformation of disablement, In L. Barton & M. Oliver (Eds), *Disability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pp. 25-44). Leeds: The Disability Press.
- _____. (2002). Work, disability, disabled People and european social theory, In C. Barnes (Eds), *Disability Studies Today*(pp.79-93). Cambridge: Polity Press.
- Aitchison, C. (2003) From leisure and disability to disability leisure: developing data, definitions and discourses. *Disability & Society*, 18(7), 955-969.
- Barnes, C. 1991. *Disabled people in britain and discrimination: a case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C. Hurst & Co. Publishers.
- Björnsdóttir, K. (2010). Resisting the reflection: identity in inclusive life history research.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0(3/4).
- Bourdieu, P.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정일준 역). 새물결. (원출판년도 1982).
- _____. (2005). 구별짓기 상,하(최종철 역). 새물결. (원출판년도 1978).
- Broom, L. and Cushing, R. G. (1977). A modest test of an immodest theory: the functional theory of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1), 157-169.
- Claire, E. and Rob, I. (2003). Disability and bodies as bearers of value. *Sociology*, (37)2, 239-256.
- Davis, J. M. (2000). Disability studies as ethnographic research and text: research strategies and roles for promoting social change?. *Disability & Society*, 15(2), 191-206.
- DiMaggio, P. (1994). Social stratification, life-style, and social cognition.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42(4), 458-465.

- Erickson, B. H. (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217-251.
- Finkelstein, V. (1993) The commonality of disability. In J. Swain (Eds), *Disabling barriers — Enabling Environments*(pp.9-16). London: Sage/Open University Press.
- Kohn, M. L. and Schooler, C. (1969). Class, occupation, and orien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9-678.
- Miles, M. and Huberman, M. (2009). 질적자료분석론(박태영 역). 학지사. (원출판년도 1994)
- Mohr, J. and DiMaggio, P. (199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capital.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14, 167-200.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Macmillan.
- Shakespeare, T. (1994). Cultural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dustbins for disavowal?. *Disability & Society*, 9(3), 283-299.
- Turner, B. S. (1992). *Regulating bodies: Essays in medical sociology*. Psychology Press.
- _____. (2002). 몸과 사회(임인숙 역). 몸과 마음. (원출판년도 1996).
- Veblen, T. (2012). 유한계급론(김성균 역). 우물이있는집. (원출판년도 1899).

연구자 소개

박홍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홍익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동대학원에서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 닝마주이 국가동원의 계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흔적을 발굴하여 당시 사회가 ‘사회적 배제자’를 결정하는 조건들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논문인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시근대화의 성격: 도시빈민의 추방과 중산층 도시로의 공간재편>을 발표했다. 세부전공은 역사사회학으로 배제의 사회사와 문화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성방식을 읽어내고 있다.

허준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동국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동 대학원에서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도입 요인에 관한 연구: 세계적 모델의 제도적 확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장애인의 시각이 녹아든 언어로 채워진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나만의 언어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세상이 좀 더 알록달록해지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글을 쓰고자 노력 중이다.

연구후기

연구를 끝내며

우선 바쁜 시간을 쪼개 흔쾌히 연구에 동참해준 연구 참여자들 모두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인터뷰에 능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연구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하고 싶다. 1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진척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하자며 다짐하고 다시 글을 써나갔지만, 여전히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참여자와 함께 연구를 만들어오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역시 연구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짐작했던 가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반성하고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구진행 중의 에피소드

우리는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사회억압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면서도 사회억압에 적응하며 몸에 밴 생활양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받아왔던 사회억압을 문제화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러한 억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간극은 우리들에게도 있었다. 우리 역시 장애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재해석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내면화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서술을 방해하였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여 기술하였고 검토를 거듭하며 그러한 서술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정작 그렇게 고치고 나면 고친 글이 너무나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

과의 대화 속에서 사회억압이 어떻게 내면화되었는가를 확인했지만, 우리 역시 연구를 다시 글로 풀어내면서 우리 안의 사회억압의 내면화와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동시에 연구자는 자신의 관점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재해석’에 대해

사회적 배제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늘 사회의 문제가 된다. 사회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회의 공모와 동의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데서 그렇다. 장애가 바로 이러한 사회의 공모 속에 ‘장애화’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장애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진행하는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배제된 사람들을 다룰수록 지원의 폭이 적은 상황임에도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지속적으로 논문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연구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발전되는 사업으로 변창했으면 좋겠다.

논문지원사업 지원자에게 전하는 말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글로써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낌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교수님의 지도에서부터 재단의 배려까지 느낄 수 있으며, 1년의 기간을 함께한 사람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하세요!

조한진 자문교수님께 전하는 감사인사

조한진 교수님만큼 적극적으로 연구자문에 임해준 교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맞춤법이나 비문을 지적해 주셨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세히 봐주셔서 놀랐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반성도 하게 되었

습니다. 진행되어가던 연구가 막힐 때면 함께 고민해주셨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문 이외에도 장애학회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지 알려주시고, 동료 연구자분들도 소개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장애학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02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성의 다양성 개선방안 연구

이영희, 진승현

자문위원 : 박희찬(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이영희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로

진승현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성의 다양성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가 장애인방송 편성에 있어 다양성과 공익성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지상파 3사의 전체방송과 장애인방송 편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장애인 시청자의 현실적 복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관련단체 장애인방송 담당자, 각 방송사 편성담당자의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2014년 지상파방송사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방송의 프로그램유형은 전체방송 프로그램유형의 비율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수화통역방송은 대체로 아침시간대와 낮시간대에 본방송 '뉴스'로 방영되고 있었는데 인터뷰 결과,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방송이 주시청시간대에 제공되지 않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낮시간대에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 뉴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 뉴스가 주시청시간대인 저녁에 보다 큰 수화화면으로 제공되길 원했으며 다큐멘터리도 수화통역으로 시청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편성담당자는 현재로서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확보로 인해 어려우나 폐쇄수화통역기술이 도입되면 청각장애인의 요구사항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화면해설방송은 주로 낮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이 재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방송 편성시간대가 생활주기와 맞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방송시간이 불규칙하고 편성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언제 방송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주로 주시청시간대에 제공되는 본방송에능오라프로그램을 화면해설방송으로 시청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편성담당자는 본방송 당일까지 편집을 하는 제작여건과 3일 이상 제작시간이 걸리는 화면해설방송의 특성으로 본방송에 화면해설방송을 방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낮방송 및 심야방송과 재방송 시스템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의 화면해설방송 이용활성화를 위한 차선책은 첫째,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화면해설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인증절차를 거친 이용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전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며 둘째, 미국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안내전화를 통하여 방송편성을 공지해야 하며 셋째, 생방송이나 본방송에 화면해설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제작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증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진취적으로 관여하여 장애인 시청자와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장애인은 미디어 소비자로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방송사는 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장애인방송,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 공익성, 다양성, 방송편성

I. 문제제기

현재 국내 방송사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화통역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방송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¹)’과 ‘장애인복지법²’은 관련 조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³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방송의 의무편성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⁴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국내 방송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통역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통역은 이미 30여년 이전부터 TV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주로 뉴스에만 제공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김철관, 2001, 8쪽). 그러나 2011년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5%를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등
- 2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3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4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제2항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10.1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화통역방송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규정이 강화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2000년대 초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정의를 내리자면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및 기타 시각매체에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출연자의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시각매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송종길, 2003, 161쪽)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을 통하여 시력의 문제로 인해 접근 할 수 없는 영상정보를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받는다.

신체 및 감각의 제약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대중 매체는 없어서는 안 될 정보습득의 도구로 적극 활용된다. 장애인은 ‘텔레비전 보기’처럼 소극적인 실내 활동의 참여수준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강미경·이동진·유가호, 2010, 143쪽), 이는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서 텔레비전은 중요한 여가수단이자 문화적 향유 매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다(안영민·김위근, 2005, 32쪽).

텔레비전은 텍스트 형식의 메시지보다 오락적인 영상메시지와 이해하기 쉬운 구술메시지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해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접근이 용이한 텔레비전의 영상·구술메시지는 시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청력에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 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 고시)’는 중앙지상파는 2014년까지, 지역지상파는 2015년까지, 보도종합편성은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그러나 위의 고시는 수치상 방송시간의 비율을 규정할 뿐 프로그램 유형이나 유형별 비율, 방송시간대, 재방송율 등 편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4년은 장애인방송의 의무편성을 시작한 첫해에 해당한다.

5 장애인 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내지 제7조.

각 방송사들은 장애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편성규정이 아직 구축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상의 편의와 시청률 등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편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방송의 다양성·균형성·공정성 등을 포함하는 방송의 공익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에서 공익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편성’이며, 공익은 편성을 통해 실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오형일·윤석민, 2014, 108쪽).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지상파방송사가 장애인방송 편성에 있어 다양성, 균형성 등을 담보하는 공익성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지상파 3사의 장애인방송 편성현황을 비교분석하려한다. 지상파방송사(KBS1,2TV/ MBC/ SBS)의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고, 지상파방송사 간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유형, 재방송율, 편성시간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방송 편성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시청자의 현실적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무적 차원의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편성현황 분석과 더불어, 시청각장애인 각 5명과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방송 담당자 그리고 각 방송채널 편성담당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려한다. 현행 장애인방송 제도를 시행하는 방송의 생산자 측면과 그 방송물을 이용하는 수용자로서의 장애인 인터뷰는 편성표 분석만으로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개정논의의 자료로서 활용가치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방송규정이 수용자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제도개선의 논의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해 현행 장애인방송의 편성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밝혀진다면, 추가적 제도마련의 실측적인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에 대한 다각적 연구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장애인방송 정책으로 진보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청자의 수용자 복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이론적 논의

1) 국내 장애인방송 편성정책 법제도

현재 국내의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은 다양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9쪽).

【표 1】 장애인방송 관련 항목별 법령

항목	법률	조항
장애인 방송의 필요성 및 당위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장애인 방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범위와 사업자 선정 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방송법	제6조(주관방송사의 임무)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고시)	
장애인 방송 채널 구성과 운용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장애인 시청 지원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시청자 미디어 센터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심의규정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수신료 면제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자료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중 방송프로그램편성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과 그에 따른 ‘장애인방송고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방송법은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확대하고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법령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조항이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되기 전, 방송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은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받았으며(송종길, 2003; 황주성·이민영, 2004), 실제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이었을 때는 장애인방송의 편성비율이 저조했었다.⁶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 조항은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방송사업자들은 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의무편성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1년 12월 26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자와 그 편성비율 및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을 고시하였다. 위의 ‘장애인방송고시’는 장애인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으로 정의하고(제2조),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명시하고 있다(제6조).⁷ 필수지정사업자에는 장애인방송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

6 2005년 2월 장애인방송 중 화면해설방송 제작편수는 주 8편에 불과했으나, 법조항에 강제성을 부과한 후 2014년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 등을 포함하여 주 최대 140여 편에 달했다(이재진·이영희, 2015, 77쪽).

7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중)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2013년(화면해설방송은 2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3년(화면해설방송은 2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보도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되며, 고시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연1회 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 하는데 그 대상에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가 포함된다. 필수지정사업자로 선정된 방송사업자 중 중앙지상파방송사는 2014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화면해설방송 10%를 제작·편성해야한다(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 고시에서 제시하는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⁸ 제8조에 명시된 성실제공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사업자 및 IPTV CP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SO, 위성방송, IPTV사업자 등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함을 뜻한다.

-
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5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시점 2개월 전까지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공표해야 한다.
- 8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대한 고시 제8조(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작·편성한 장애인방송물을 제공받아 시청자에게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제공받은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송신·재송신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④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내용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물로 제작·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물이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작·편성한 장애인방송물을 제공된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업자, IPTV CP로부터 장애인방송 신호나 내용을 제공받은 플랫폼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방송 신호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술적 차원에서 장애인방송 신호나 내용의 누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⁹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21쪽).

이와 함께 동조 제4항은 “내용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물이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와 같이 연속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내용이 중단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현행 장애인방송 고시는 의무편성 비율과 그 제공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인정을 받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해당 고시에는 장애인방송의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유형별 비율, 편성시간대와 재방송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수치상 방송시간의 5%와 10%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부적 규정의 부재는 방송사의 편의적 편성으로 인한 폐단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실질적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방송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규정이 부족한 현재의 법령 하에서 장애인방송의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그 분석결과는 현행 관련 법률의 개선안을 찾는 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9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방송 기술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는 장애인방송 신호를 유료방송사가 재전송할 경우 각 유료방송의 프로토콜에 맞춰 변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2011년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을 마련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21쪽).

2) 국외 장애인방송 편성정책

본 연구는 국외의 장애인방송 정책 중 한국보다 먼저 장애인방송을 시행해 온 영국과 미국의 관련 정책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규정과의 차이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영국

우리나라보다 먼저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도화시킨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 Act)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조항(303~308항)을 넣어 시청각장애인 방송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코드의 제정을 요구했다(최은경·안영민, 2012, 24쪽).¹⁰ 이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오프콤(Ofcom)과 방송사, 그리고 관련 장애인 단체들이 수 개월 간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한 결과 ‘시청각 장애인의 텔레비전 접근 서비스에 관한 규칙(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s 이하 TV접근서비스 규칙)’을 마련해 2004년 7월 공표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29쪽). 영국의 ‘TV접근서비스 규칙’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 및 1996년과 1990년 방송법에 따라 허가된 방송 서비스인 자막(subtitling), 수화(sign language), 화면해설(audio description)방송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고 밝히고 있다(Ofcom, 2004, 4쪽).

영국은 이어, 2005년에 장애인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가 추가된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개정하고 2010년에는 평등법(Equality Act)을 공표하면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최은경·안영민, 2012, 24쪽). 소외계층을 위한 이 같은 법안들은 시청자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키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TV접근서비스 규칙’은 “공공서비스 방송사를 비롯한 유료 방송 서비스

¹⁰ 커뮤니케이션 법 303의(1)은 시청각장애인의 서비스의 향유 및 이해증진을 위한 Ofcom의 code제정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조항(5)는 디지털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의 최소한의 의무제작 비율로 10%를 명시하고 이를 디지털면허가 발급된 후 5년 이내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113쪽).

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서비스 즉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서비스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측면과 기술적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계기로 분석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29쪽). 이 규칙은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 5월 개정본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제시된 장애인방송의 목표치는 공영방송 BBC채널의 경우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뉴스 프로그램 제외)로 규정하고 있고, ITV1과 Channel 4는 자막 90%, 수화 5%, 화면해설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채널들 역시 2014년 이후에는 최소 자막 80%, 수화 5%, 화면해설10%를 명시하고 있다 (Ofcom, 2015a, 11쪽).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영국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 2>에서처럼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수화와 화면해설방송의 의무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Ofcom, 2015b, 3쪽).

표 2 | 레벨 별 장애인 방송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2014)

Channel	Subtitling		Audio Description		Signing	
	Annual Quota	Achieved (2014)	Annual Quota	Achieved (2014)	Annual Quota	Achieved (2014)
BBC1	100%	99.8%	10%	21.2%	5%	5.7%
BBC2	100%	99.9%	10%	23.6%	5%	5.3%
BBC3	100%	100%	10%	30.9%	5%	5.6%
BBC4	100%	100%	10%	31.8%	5%	6.0%
BBC News	100%	99.9%	Exempt		5%	5.7%
CBBC	100%	99.9%	10%	27.6%	5%	5.8%
CBeebies	100%	100%	10%	24.3%	5%	5.4%
ITV1	90%	97.6%	10%	20.2%	5%	6.1%
ITV2	80%	97.7%	10%	27.3%	5%	6.0%
ITV3	71.6%	96.5%	10%	39.9%	4%	4.2%
ITV4	70%	85.3%	10%	24.8%	4%	4.6%
CITV	70%	87.7%	10%	26.9%	30 mins sign-presented a month	41 mins sign-presented a month
Channel4	90%	100%	10%	28.1%	5%	5.1%
E4	80%	100%	10%	53.3%	5%	5.4%

이하 생략

공영방송 BBC는 이미 2012년 이전부터 자막방송 100%를 제공하고 있고, 화면해설방송은 목표치(10%)의 최대 3배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최은경·안영민, 2012, 32쪽), 공영방송서비스를 대표하는 방송사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영방송인 ITV 등도 화면해설방송 목표치인 10%를 월등히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다고 나타나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35쪽).¹¹ 이에 대해 영국의 영국 왕립시각장애인협회(RNIB: 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관계자들은 의무편성량 보다 자발적으로 초과하여 화면해설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더 높은 비율의 화면해설방송을 독려하기 보다는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여 방송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134쪽).

영국의 TV접근서비스 규칙(Ofcom, 2015)에서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V접근서비스 규칙은 ‘프로그램의 선택과 편성 (Selection and scheduling of programmes)’으로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의 편성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막방송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더 많은 시청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명시하면서, 방송사업자는 자막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하며, 자막방송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보다 다양한 유형의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편성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18쪽).¹² 다음으로 수화통역방송의 선택과 편성에 있어 방송사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로부터의 조언이다(16쪽).¹³ 그리고 화면해설방송의 편성에 있어서는 화면해설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아도 되는 장르를 예시하고 있는데, 화면전환이 아주 빠르거나 화면해설을 삽입할 공간이 거의 없거나(뉴스 등), 화면해설의 제공이 시청권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는 경우(퀴즈 프로그램 등)는 화면해설로의 제공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20쪽).¹⁴

¹¹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민영방송 ITV3의 경우 2013년 한해동안 38.8%의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있다(35쪽)

¹² Selection and scheduling of programmes A4.13

¹³ Selection and scheduling of programmes A4.3

이와 함께, TV접근서비스 규칙은 장애인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제공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래밍과 스케줄링(Programming and scheduling)’이란 항목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각 채널별 주시청대에 자막과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하기를 기대하지만, 수화의 경우 오픈 포맷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화 프로그램은 비(非)주시청대에 편성되고 청각장애 시청자를 위해 녹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방송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지 선택하는데 있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혜택을 극대화 방법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중복 반복편성을 통해 이용자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혜택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9쪽).¹⁵

더불어 “한 편의 연속물이 장애인방송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리즈 내의 모든 방송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만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겨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고, 반복이 예상된다면 적절한 접근서비스와 함께 언제 반복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하고, 프로그램 방영 전후에 사과방송이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6쪽).¹⁶

Ofcom(2015)은 이외에 ‘TV접근서비스 규칙’에서 장애인방송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품질향상의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청자를 대표하는 집단과 서비스의 품질과 프로그램의 선택 및 편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17쪽).¹⁷

상기와 같이, 장애인방송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방송 고시’와 같은 ‘TV접근서비스 규칙’을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유형 선정 및 재방송 편성 등을 위해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반복적으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편성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¹⁴ Selection and scheduling of programmes A4.24

¹⁵ Programming and scheduling 38.

¹⁶ Selection and scheduling of programmes A4.4

¹⁷ Monitoring for consistency and quality A4.6, A4.7 / Consultation and feedback A4.8.

(2) 미국

미국의 장애인방송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재활법(Rehabilitation Act - Section 508 Accessibility),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CVAA: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텔레비전 디코더 회로법(The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 등을 들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미국의 장애인방송 정책은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소비자 정부 관련 사무국(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소속의 장애인권리사무소(DRO: The Disability Rights Office)가 담당하고 있다.

먼저 자막방송의 경우, FCC가 텔레비전 디코더 회로법(The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을 통해 1993년 이후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텔레비전에 자막방송 및 폐쇄자막(closed-captioning)을 송출할 수 있게끔 하는 자막방송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56쪽). FCC는 방송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들로 하여금 시청각 장애인들이 각 지역에서의 비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상정보란 생명보호, 건강, 안전, 재산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정보는 폐쇄자막이나 개방자막, Z크롤, 스크롤 등의 시각적 방식을 이용해 제공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상정보는 정규 뉴스프로그램이나 비정규 긴급 편성 뉴스를 통해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165쪽).

또한 위의 법안 중,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CVAA)은 장애인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규정과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¹⁸

¹⁸ 화면해설방송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서 도입되었으나, 2002년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10월 제정된 CVAA는 화면해설방송을 다시 의무화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의 영상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다 강화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48쪽).

FCC는 2000년 권고령(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통해 화면해설 방송을 실시할 방송구역(Designated Market Areas)과 대상 방송사업자, 방송시간대 및 시간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58쪽).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방송시장의 상위 4개 방송네트워크사인 ABC, NBC, CBS, FOX와 그 제휴사들, 그리고 디즈니채널, TBS, TNT 등 과 같은 다채널비디오제공사업자(MVPDs)은 반드시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48쪽). 또한 2015년 7월부터 The History Channel, Nickelodeon 등의 채널은 화면해설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중앙 방송국뿐만 아니라 상위 25개의 지역방송국과 위성공급자, 5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 회사 등은 가입자들에게 그 신호를 전달해야한다¹⁹.

둘째, 위의 방송사업자들은 분기별로 적어도 50시간(한 주에 4시간) 이상의 화면해설방송을 주시청시간대(월요일~토요일 8~11PM, 일요일 7~11PM)와 어린이프로그램(1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에 방송했던 동일한 화면해설프로그램은 의무방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172쪽). 또한 ABC를 제외한 각 방송사들은 홈페이지와 안내전화를 통하여 방송편성을 공지하고 있으며²⁰,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와 교양, 버라이어티 쇼 등을 주시청시간대와 토요일 오전시간대에 일정하게 편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적인 의무 대상이 아닌 PBS와 The CW 등 몇몇 채널의 경우에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비롯한 몇 가지 프로그램의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네트워크 제휴사와 다채널비디오제공사업자들은 위에서 상위 4개의 대형방송네트워크사와 다채널비디오제공사업자(MVPDs)가 제공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화면해설방송

¹⁹ The Audio Description Project(ADP) <http://www.acb.org/adp/tv.html>

²⁰ ABC의 경우에는 화면해설방송의 일정을 고지하는 별도의 페이지가 없었으며, FOX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편성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CBS <http://www.cbs.com/schedule/video-description/> Tel. 212-975-7917

FOX <http://www.fox.com/audio-description/>

NBC Tel. 818-777-7030

의 의무조건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방송(live programming)과 준 생방송(near-live programming)의 경우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48쪽). 생방송은 뉴스와 스포츠 경기 중계가 이에 해당하며, 첫 방송이 방영되기 몇 시간 전에 제작된 프로그램을 준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3) 방송편성의 공익성과 다양성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방송의 공익성·다양성·다원성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계층의 의견, 가치, 욕구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을 통한 소외계층의 복지구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안정임, 2004, 215쪽). 그러나 지금까지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논의는 방송의 공익적 역할에 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실천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또한 방송의 시장성과 경쟁논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편성의 다양성이나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실천적 이념에 대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홍종배·유승관, 2014, 8쪽), 그 흐름에 편승하여 장애인방송의 연구 역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안 마련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은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철학적 근거로 발전되어온 것인데, 그 개념의 핵심은 미디어에 부여된 사회적 이익의 실현(시청자/이용자 복지, 문화적 다양성, 공론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사회통합 등)이라는 도덕적 의무로 요약된다(정인숙·김미경·황성연, 2010, 44쪽). 장애인을 포함한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의 공익성은 시청자 및 이용자 복지 차원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방송에게 공익성을 요구하는 이유 중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구현 기능의 수행으로 볼 수 있다.²¹ 숙의민주주의의 입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

²¹ 방송의 공익성을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입장은 '사상의 자유 시장'의 원칙을 고수하는 시장민주주의와 상반된다. 시장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최대다수의 수용자의 선택이 곧 공익성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므로 장애인과 같은 소수계층의 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이 일정비율 이상 편성되기를 어려울지 모른다.

송,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고품질 정치방송, 교육방송, 재난방송을 담아내도록 하는 공익적 규제가 있어야 민주적 공론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윤영철, 2001, 51쪽),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는 방송의 공익이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의 복지 실현에 있어서 방송의 공익적 역할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수행된다(송종길, 2003, 158쪽).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장애인방송 역시 방송의 공익적 목적 실현과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이다.

다양성은 방송의 공익성을 구현하는 실제적 원칙이자 구체적인 기준이다. 다양성은 미디어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매체의 공익성 구현이란 차원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조익환·이상우, 2012, 180쪽). 맥퀘일(Mcquail, 1992)에 따르면, 다양성은 그 자체로 방송정책의 목적이 되며 독점 및 제한에 대항하여 소외된 수용자 계층과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양성은 오랜 기간 중요한 방송정책 목표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가라는 편성의 다양성은 장애인방송 편성정책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편성은 방송내용의 기획과 배열의 문제로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보여주는가를 결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이기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정의는 선택 가능한 서로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 수로 조작적 정의되며, 시청자에게 폭넓은 선택범위가 제공된다면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재영·박규장, 2005, 54쪽). 장애인방송의 편성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이 접근가능 하도록 제공되는 방송 역시 프로그램의 유형과 방송 시간대 등에서 다양한 선택의 범위와 시청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 1년간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 전체 방송프로그램 유형 비율과의 차이점, 프로그램 유형의 특징과 재방송을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²²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제작과정의 특성상 재방송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으나²³ 다큐멘터리나 외화와 같이 제

작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본방송에 편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형의 편성에 따라 재방송율도 달라질 수 있고, 수화통역방송의 재방송율도 파악하여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방송율에 대한 분석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시간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장르를 언제 제공하는가는 편성의 다양성을 알아보는 측정유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애인방송에 있어서도 대상 시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시간대에 다양한 장르가 제공되어야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편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가 도출된다.

<연구문제 1> 비장애인을 위한 방송(전체 방송)과 장애인방송(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의 편성에 있어, 프로그램 유형별 시간량과 재방송 비율에는 지상파 방송 채널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장애인방송(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의 편성에 있어,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재방송 비율, 방송시간대에는 지상파 방송 채널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더하여 시청각장애인 각 5명씩 10명과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방송 담당자 그리고 각 방송채널(KBS1, 2TV/ MBC/ SBS) 편성담당자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행 장애인방송 법령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편성업무를 하고 있는 방송 생산자 측면과 그 정책에 의해 편성된 방송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시청자의 인터뷰를 통해 편성표 분석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며, 장애인방송 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애로

-
- 22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은 방송의 100%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 23 화면해설방송은 주로 본방송이 방영된 후, 다시보기 등을 통하여 화면해설작가가 해당 방송분의 해설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화면해설방송은 재방송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국내 드라마는 본방송 직전까지 최종편집을 하는 등 제작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완성된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 화면해설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는 시스템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항과 장애인방송을 시청하는 수용자들의 만족·불만족 요인과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여, 추후 관련 법령의 개선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각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 이용자(청각·시각장애인)와 장애인단체 담당자 그리고 방송편성 담당자가 바라본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의 KBS1TV, KBS2TV, MBC, SBS의 전(全) 장애인방송(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1차적으로 각 방송사의 편성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차적으로 프로그램 유형과 재방송 여부 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상파 방송 중에서 EBS를 제외한 이유는 EBS는 교육을 주목적으로 한 전문방송이기에 종합편성의 성격을 지닌 다른 지상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치 않은 항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분석유목

(1) 프로그램 유형

수화·화면해설방송의 편성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안을 차용하여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뉴스,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

티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음악쇼, 스포츠, 퀴즈/게임쇼, 애니메이션으로 16가지 장르이며(방송통신위원회, 2012, 60쪽)^{24 25} 위의 기준에는 드라마에 포함되어있는 ‘외화’를 별도로 분리하여 총 17가지로 프로그램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유형을 아래의 <표 3>와 같이 크게 보도, 교양, 오락으로 나누어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표 3 | 방송프로그램 분류표

보도	교양	오락
뉴스 (종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지역뉴스, 북한뉴스, 국제뉴스, 경제뉴스, 기상뉴스, 스포츠 뉴스, 비정규 편성보도(기자회견, 재난방송, 특별행사중계 등))	시사정보	드라마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쇼
	생활정보	오디션/ 서바이벌
	토론	토크쇼
	교육·문화예술	코미디
		영화
		음악쇼
		스포츠
		외화
		애니메이션, 퀴즈와 게임쇼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자료 활용

(2) 재방송율

본 연구에서는 수화·화면해설방송이 재방송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방송의 형태를 ‘수화로 제작된 본방송’과 ‘수화가 추가된 재방송’, ‘화면해설로 제작된 본방송’과 ‘화면해설이 추가된 재방송’으로 나누었다. ‘수화

24 이 연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분류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연구자의 기존의 연구들이 이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연구들이 누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5 한진만(2010), 조익환(2012)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르구분 기준을 따르면서 인포테인먼트를 프로그램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4년 전후 유행했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하기에는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에 포함시켰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또는 화면해설로 제작된 본방송'은 본방송에 수화나 화면해설서비스가 편성된 경우이며, '수화 또는 화면해설이 추가된 재방송'은 본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그 방영분에 대하여 수화나 화면해설을 제작하여 재방송시에 각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로,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그 제작의 특성상 상당수의 화면해설방송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형태에는 사실상 '수화 또는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수화나 화면해설로 제작되어 방송된 프로그램을 다시 재방송하는 형태)도 포함되어있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실제로 편성표 분석을 통해 '수화 또는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을 뚜렷하게 구별해낼 수 없는 난점이 있어, 두 번째 형태인 '수화 또는 화면해설이 추가된 재방송'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방송사 편성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수화나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편성시간대

편성시간대의 분석유목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지정해 놓은 주시청시간대 규정, 통상 주중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를 고려하여 ① 오전시간대(06:00 - 12:00), ② 낮시간대(12:00 - 16:00), ③ 오후시간대(평일 16:00 - 19:00, 주말 16:00 - 18:00), ④ 주시청시간대(평일 19:00 - 23:00, 주말 18:00 - 23:00), ⑤심야시간대(23:00 - 06:00) 총 다섯 가지 시간대로 구분하였다(최세경, 2012, 86쪽).

3) 분석방법

코딩의 일관성 및 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체 분석일인 12개월 중 2014년 1월 한 달간의 KBS1 TV의 수화·화면해설방송 편성표 1개월 치를 활용하여 4명의 연구자가 사전코딩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코딩 간 신뢰도 검증은 홀스티의 신뢰도계수를 이용하였다(Wimmer & Dominick, 1994/1995., 정수영·구지혜, 2010, 433쪽 재인용).²⁶ 사전 코딩한 1개월 치 데이

터의 신뢰도는 프로그램 유형별 분석 유목이 95.3%로 나타났다.²⁷ 사전 코딩을 거친 후, 코딩 결과가 상이하거나 유목 분류가 애매한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분류 유목을 최종 확정하였다. 코딩을 마친 데이터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측조사에서 밝히기 어려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실시한 각 방송사 편성 담당자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방송 담당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5명, 청각장애인 5명의 심층인터뷰는 대면인터뷰로 시행할 예정이다.

4. 편성표 분석결과

1)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 차이

(1) 전체 방송과 장애인방송의 프로그램유형 차이

본 연구의 인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지상파방송사 4개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5년간 전체방송 편성비율을 토대로 국내 지상파방송 전체 장르의 비율을 도출하고자 한다.²⁸ 5년 동안의 흐름을 볼 때 전체방송의 비율에 큰 변동이 없고 그 편차의 경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5년간의 수치를 평균 내어 2014년 전체방송의 유형비율과 재방송율을 추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전체방송 대비 장애인방송의 비율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편성량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KBS1TV 8.54%, KBS2TV 3.18%, MBC 6.55%, SBS 6.28%로 나타났다. KBS2TV만이 유일하게 5%에 미치지 못했으나 KBS1TV와의 합은 11.72%로 KBS1, 2TV의 평균은 5.86%을 나

26 코더 간 신뢰도를 구하는 홀스티 신뢰도 계수의 공식은 $\langle \text{코더 간 신뢰도} = 2M / (N1 + N2) \rangle$ 이다. M은 코더 간에 일치한 코딩 수, N1은 코더 1이 코딩한 수, N2는 코더 2가 코딩한 수를 각각 의미한다.

27 방송프로그램 유형별 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2년에 조사·발표한 「방송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코더간의 차이를 줄였다.

28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5년 보고서가 2013년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아, 전문 기관에서도 1년가량 걸리는 작업으로 짐작된다.

타냈다. KBS간 의무편성비율의 상호보완 가능여부는 이후 진행할 편성담당자 인터뷰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는 KBS1TV 12.87%, KBS2TV 9.92%, MBC 11.22%, SBS 12.70%로, KBS2TV는 화면해설방송에서도 10%에 약간 못 미치는 달성율을 보였다. 화면해설방송 역시 KBS1, 2TV의 평균은 10%가 넘었으나, KBS간 의무편성비율이 정책상 상호보완 된다 하여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채널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각 채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은 별도로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 지상파방송3사의 전체프로그램과 장애인방송의 유형별 비율

단위: 분(%)

매체	연간유형별방송과 편성시간비율								
	보도			교양			오락		
	전체	수화	화면해설	전체	수화	화면해설	전체	수화	화면해설
KBS1TV	145,471 (31.77)	36,245 (92.34)	0 (0)	245,842 (53.37)	2,210 (5.63)	35,030 (59.65)	68,104 (14.86)	795 (2.03)	23,695 (40.35)
KBS2TV	36,340 (8.33)	8,405 (60.53)	0 (0)	200,060 (45.87)	5,430 (39.11)	24,045 (55.58)	199,774 (45.8)	50 (0.36)	19,220 (44.42)
MBC	88,000 (19.54)	21,805 (72.90)	17,435 (34.02)	170,723 (36.6)	8,065 (26.96)	5,140 (10.03)	198,142 (43.96)	40 (0.14)	28,670 (55.95)
SBS	83,916 (19.11)	26,180 (94.75)	0 (0)	160,930 (36.55)	1,405 (5.09)	16,915 (30.25)	195,376 (44.34)	45 (0.16)	38,995 (69.75)

2014년 한 해 동안의 KBS1TV, KBS2TV, MBC, SBS의 수화·화면해설방송의 유형별 시간량을 전체방송과 비교하여 장애인방송과 전체방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프로그램유형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대다수의 지상파 채널이 '보도' 분야, 즉 뉴스에 상당히 많은 편성량을 보이고 있었으며, KBS 2TV만이 '교양' 프로그램에 39.11%를 할애하고 있었다.

화면해설방송의 장르 역시 대체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KBS1TV의 경우 전체방송에서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77%였으나, 화면해설방송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전체 방송프로그램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화면해설방송의

프로그램 유형은 전혀 다른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보도: 0%, 교양: 59.65%, 오락: 40.35%).

KBS 2TV는 전체방송비율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채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KBS2TV 역시 ‘보도’ 분야가 화면해설방송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교양’은 전체비율보다 10% 가깝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MBC는 지상파 4개 채널 중 유일하게 ‘보도’ 장르를 화면해설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전체 방송 비율에 비하여 오히려 화면해설방송의 ‘보도’ 비율이 1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교양’에서는 전체 방송비율(36.60%)에 비해 화면해설방송(10.03%)이 현격히 떨어졌으며, ‘오락’은 오히려 12% 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55.95%).

SBS 경우도 화면해설방송의 장르비율이 전체방송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보도’ 장르는 전혀 제공되지 않은데 비하여, ‘오락’ 장르에 있어서는 4개 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69.75%). 이는 전체 방송에서 ‘오락’이 차지하는 비율과 25%이상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MBC를 제외한 다른 채널들은 모두 ‘뉴스’로 대표되는 ‘보도’ 장르에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뉴스’는 화면해설을 삽입할 공간이 거의 없어 화면해설의 제공을 권유하지 않는 장르라는 것을 감안할 때, KBS와 SBS의 편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MBC가 화면해설방송의 34%를 ‘뉴스’로 채우고 있다는 것에 장르의 다양성 부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체 방송과 장애인방송의 재방송율 차이

지상파 3사의 전체 방송과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의 본방송/재방송 비율을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수화통역방송은 모든 채널에서 대부분 본방송에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99.67%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수화통역방송이 ‘뉴스’와 같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 | 지상파방송사의 전체방송과 장애인방송 재방송을 비교

단위: 분(%)

매체	본방송			재방송		
	전체	수화	화면해설	전체	수화	화면해설
KBS 1TV	404,974	39,030	20,110	54,443	220	38,615
	(88.34)	(99.44)	(34.24)	(11.66)	(0.56)	(65.76)
KBS 2TV	340,382	13,885	7,775	99,666	0	35,490
	(75.08)	(100.0)	(17.97)	(24.92)	(0)	(82.03)
MBC	358,505	25,370	26,220	88,082	4,540	25,025
	(79.5)	(84.82)	(51.17)	(20.5)	(15.18)	(48.83)
SBS	385,824	27,540	7,630	54,398	90	48,280
	(87.94)	(99.67)	(13.65)	(12.06)	(0.33)	(86.35)

이에 반해, 화면해설방송은 전체 방송에 비해 재방송율이 크게는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BS). 분석 결과, 지상파 4개 채널의 평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율은 70.74%로 전체방송 재방송율 17.18%의 4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MBC의 경우 다른 채널에 비해 화면해설방송의 본방송 비율 (51.17%)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에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MBC를 제외한 세 개 채널은 화면해설방송의 본방송/재방송비율이 전체방송과 거의 정반대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MBC 역시 전체방송과 다른 재방송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화면해설방송 제작시스템의 특성²⁹을 고려한다고 해도, 재방송에 집중 편성된 화면해설방송은 비장애인을 위한 전체방송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재방송율은 방송시간대와의 무관치 않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9 화면해설방송 제작과정은 우선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화면해설 작가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중요한 시각적 요소를 설명하는 원고를 쓰게 된다.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요소를 제한된 시간에 맞추어 대본을 작성하게 되며, 원고작성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보통 하루나 이틀 이상의 소요시간을 요한다(이영희, 2012, 54쪽).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해설 대본으로 성우가 녹음을 한 후, 엔지니어의 믹싱작업을 거쳐 방송까지 이르게 된다. 때문에 화면해설방송의 제작은 최소 3일 이상의 시간을 요하게 된다.

2)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현황

(1) 방송사별 장애인방송의 편성량

장애인방송의 프로그램 유형과 재방송을, 편성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각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 건수와 시간량을 알아본 결과, 수화통역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의 총 방송건수는 7757건이었으며, 방송시간은 총 319,820분에 달했다(〈표 6〉). 그 중 화면해설방송의 방송시간은 209,145분이었으며, 수화통역방송은 그의 절반가량인 110,675분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화면해설방송의 의무편성비율(10%)이 수화통역방송(5%)의 2배에 해당됨을 볼 때, 방송시간량으로는 크게 특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편성프로그램 건수로는 화면해설방송(3762개)이 수화통역방송(3995개)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화면해설방송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의 러닝타임이 수화통역방송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비하여 2배 이상 긴 장르임이 추정된다.

표 6 |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 편성건수와 시간량

단위: N(분)

	방송형태		Total
	수화	화면해설	
KBS1TV	1181 (39,250)	1121 (58,725)	2302 (97,975)
KBS2TV	492 (13,885)	825 (43,265)	1317 (57,150)
MBC	1346 (29,910)	887 (51,245)	2233 (81,155)
SBS	976 (27,630)	929 (55,910)	1905 (83,540)
Total	3995 (110,675)	3762 (209,145)	7757 (319,820)

(2) 방송사별 장애인방송의 프로그램 유형

① 방송사별 수화통역방송의 프로그램 유형

수화통역방송 프로그램 유형의 건수별 평균을 보면 <표 7>와 같이 ‘뉴스’에 해당하는 보도 장르가 90.5%로 주된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정보’ 등의 교양장르가 6.9%를 기록했다. ‘생활정보’ 장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장애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가족(KBS2TV)’,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MBC)’ 등으로 장애인에게 특수하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일반적인 ‘생활정보’ 라고 연상되는 프로그램들은 수화통역방송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그 외에 교양장르에 속하는 다큐멘터리(1.1%)와 토론(0.9%)이 낮은 비율로 제공되었는데, 주로 보도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가의 정책상 중요하고 시급한 토론 방송(예를 들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일한 오락프로그램인 스포츠 방송은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수화통역방송은 17가지 방송프로그램 유형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6가지 장르에만 제공되고 있었고 상기와 같이 주로 보도성 프로그램에 국한되고 있는데, 수화통역방송이 이처럼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의 프로그램에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콘텐츠가 더 이상 긴급한 정보의 접근도구로 이용되기보다 문화의 향유와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이 보도 부문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 표 7 】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방송 프로그램 유형

단위: N(%)

대분류	보도	교양				오락	Total
		뉴스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KBS1	1143 (96.8)	10 (0.8)	8 (0.7)	6 (0.5)	7 (0.6)	7 (0.6)	1181 (100.0)
KBS2	310 (63.0)	0 (0.0)	0 (0.0)	181 (36.8)	0 (0.0)	1 (0.2)	492 (100.0)
MBC	1208 (89.7)	0 (0.0)	33 (2.5)	89 (6.6)	15 (1.1)	1 (0.1)	1346 (100.0)
SBS	957 (98.1)	0 (0.0)	3 (0.3)	0 (0.0)	15 (1.5)	1 (0.1)	976 (100.0)
Total	3618 (90.5)	10 (0.3)	44 (1.1)	276 (6.9)	37 (0.9)	10 (0.3)	3995 (100.0)

Chi-square=902.004, p<.001

②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프로그램 유형

장애인방송 중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는 총 17가지 프로그램 유형 중 5가지 유형(시사정보, 토론, 음악쇼, 스포츠, 퀴즈/게임쇼)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12가지 장르에서 제작·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영국의 경우, 화면해설을 삽입할 공간이 거의 없거나 화면해설의 제공이 시청권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는 퀴즈 프로그램 등은 화면해설로의 제공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5가지 유형이 화면해설방송에서 배제된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해설방송의 필요여부는 추후 진행할 시각장애인 대상 인터뷰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편성표 분석결과,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건수는 그 비율의 편차가 상당히 컸으며, 4개의 채널 모두에서 특정 몇 가지 장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지상파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평균적으로 다큐멘터리(32.0%)와 드라마(26.7%)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적게 편성된 오디오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경우 2014년 동안 단 5건(0.1%)에 불과하였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1TV는 프로그램 유형 중 다큐멘터리(58.9%)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드라마(19.5%), 생활정보(12.8%), 영화(8.8%)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체방송프로그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S1TV가 타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 장르의 분류가 적은 ‘교양’이나 ‘보도’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17가지 방송프로그램 유형 중 4가지 유형에만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되어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중된 편성정책으로 판단된다.

【 표 8 】 지상파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유형

단위: N(%)

대분류	보도	교양			오락								Total
		뉴스	다큐 멘터리	생활 정보	교육 문화 예술	드라마	버라 이어 티쇼	오디션 서바 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애니 메이션	
KBS1	0 (0.0)	660 (58.9)	144 (12.8)	0 (0.0)	219 (19.5)	0 (0.0)	0 (0.0)	0 (0.0)	0 (0.0)	98 (8.8)	0 (0.0)	0 (0.0)	1121 (100.0)
KBS2	0 (0.0)	352 (42.7)	5 (0.6)	170 (20.6)	228 (27.6)	0 (0.0)	0 (0.0)	0 (0.0)	0 (0.0)	19 (2.3)	0 (0.0)	51 (6.2)	825 (100.0)
MBC	230 (25.9)	72 (8.1)	27 (3.0)	0 (0.0)	374 (42.2)	7 (0.8)	0 (0.0)	0 (0.0)	0 (0.0)	0 (0.0)	177 (20.0)	0 (0.0)	887 (100.0)
SBS	0 (0.0)	119 (12.8)	194 (20.9)	8 (0.9)	186 (20.0)	263 (28.3)	5 (0.5)	29 (3.2)	39 (4.2)	4 (0.4)	50 (5.4)	32 (3.4)	929 (100)
Total	230 (6.2)	1203 (32.0)	370 (9.8)	178 (4.7)	1007 (26.7)	270 (7.2)	5 (0.1)	29 (0.8)	39 (1.0)	119 (3.2)	227 (6.0)	85 (2.3)	3762 (100)

Chi-square=3838.634, p<.001

KBS2TV 역시 다큐멘터리(42.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드라마(27.6%)와 교육·문화예술(20.6%)이 뒤를 이었다. KBS2TV도 1TV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17가지 방송프로그램 유형 중 6가지 유형에서만 화면해설방송이 제작·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KBS2TV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상파 4개 채널 중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비율이 유일하게 높다는 점이다. 1년간 170건(20.6%)이 제공된 해당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후토스 잃어버린 숲’으로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으로의 공익적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BS2TV는 1TV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오락 장르가 강화되어있음에도 1년 동안 화면해설방송으로 한 건도 방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BC는 KBS2TV와 마찬가지로 총 6가지 장르에서만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였으며, 1위는 역시 드라마(42.8%)인데, 눈에 띄는 것은 시각장애어린이시청자를 위한 애니메이션(20.0%)이 타 채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4개 채널 중 유일하게 뉴스가 230건(25.9%)이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의 Ofcom은 화면해설을 삽입할 공간이 거의 없는 ‘뉴스’ 등에는 화면해설제공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량의 1/4 이상³⁰을 화면해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에 할애하는 편성정책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시청률이 높고 오랜 시간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간판 오락프로그램(예를 들어, 무한도전 등)들이 화면해설방송으로 방영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SBS는 다른 채널과 달리, 버라이어티쇼(28.3%)와 생활정보(20.9%)의 비율이 높은 특색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오락 장르의 비율이 가장 높은 SBS의 전체방송비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SBS가 화면해설방송으로 제공한 프로그램 유형은 총 11가지로 지상파 채널 중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화면해설방송으로 편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수 비율로 볼 때 프로그램들이 고른 비중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기에는 그 편차가 큰 편이나 의무편성제도의 첫해인 만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화면해설방송을 도입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타방송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오락’ 장르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기야 백년손님’, ‘도시의 법칙’, ‘TV동물농장’, ‘달콤한 나의 도시’, ‘에코빌리지 즐거운家’,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등 대중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화면해설방송으로 제작·편성되고 있었다.

³⁰ 앞서 살펴본 편성시간량 비율(표 4)을 보면 ‘방송건수가 아닌 ‘방송시간량으로 보았을 때, MBC의 화면해설방송 ‘뉴스’는 34% 즉, 1/3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어 MBC의 화면해설방송 편성에 있어 ‘뉴스’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재방송율과 편성시간대

① 방송사별 수화통역방송의 재방송율과 편성시간대

수화통역방송의 재방송율은 앞서 전체방송과의 시간량 비교에서도 나타났듯이 본방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통역방송의 건수별 기준으로 볼 때, 본방송의 비율은 <표 9>와 같이 평균 9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KBS2TV의 경우 100% 본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수화통역방송의 편성시간대를 보면, 주로 오전시간(35.57%)와 낮시간(38.87%)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주목할 만한 것은 시청율이 가장 높은 주시청시간대(평일19:00-23:00, 주말18:00-23:00)에 수화통역방송의 비율이 0.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편성시간대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청각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화통역방송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려한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로 볼 때, 프로그램 유형과 재방송율 및 편성시간대를 종합해보면 수화통역방송은 대체로 아침과 낮에 본방송 뉴스로 방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방송 재방송율

단위: N(%)

	본방송	재방송	Total
KBS1	1179 (99.8)	2 (0.2)	1181 (100.0)
KBS2	492 (100.0)	0 (0.0)	492 (100.0)
MBC	1260 (93.6)	86 (6.4)	1346 (100.0)
SBS	974 (99.8)	2 (0.2)	976 (100.0)
Total	3905 (97.7)	90 (2.3)	3995 (100.0)

Chi-square=157.488, p<.001

②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율과 편성시간대

표 10 | 지상파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율

단위: N(%)

	본방송	재방송	Total
KBS1	446 (39.8)	675 (60.2)	1121 (100.0)
KBS2	134 (16.2)	691 (83.8)	825 (100.0)
MBC	473 (53.3)	414 (46.7)	887 (100.0)
SBS	163 (17.5)	766 (82.5)	929 (100.0)
Total	1216 (32.3)	2546 (67.7)	3762 (100.0)

Chi-square=392.094, $p < .001$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는 수화통역방송과 반대로 건수별 재방송율이 평균 6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화면해설방송의 제작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율은 프로그램 유형과도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실적으로 본방송에 화면해설 송출이 불가능한 ‘드라마’³¹에 편성을 집중시켜놓은 정책으로 인해 재방송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MBC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MBC가 4개 채널 중 유일하게 본방송과 재방송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이유는 화면해설방송으로 제작한 ‘뉴스’의 비중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를 볼 때, 방송물의 편집이나 녹음작업이 방송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화면해설방송으로 편성된다면 현재보다 본방송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화면해설방송의 편성시간대별 비율을 보면, <표 11>과 같이 평균적으로 낮 시간대(39.63%)와 심야시간대(31.98%)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수화통역방

31 현재 드라마는 전편이 미리 제작되어 방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방송이 있는 당일까지도 촬영과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화면해설제작이 본방송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과 마찬가지로 주시청시간대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추후 시각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실제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분석으로 볼 때 화면해설방송은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낮 시간과 심야시간에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이 재방송으로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 편성시간대

단위: N(%)

매체	오전시간대		낮시간대		오후시간대		주시청시간대		심야시간대	
	수화	화면해설	수화	화면해설	수화	화면해설	수화	화면해설	수화	화면해설
KBS 1TV	422 (35.73)	67 (5.98)	398 (33.70)	137 (12.21)	342 (28.96)	332 (29.62)	11 (0.93)	29 (2.59)	8 (0.68)	556 (49.60)
KBS 2TV	446 (90.65)	49 (5.94)	0 (0.00)	490 (59.39)	45 (9.15)	73 (8.85)	0 (0.00)	6 (0.73)	1 (0.20)	207 (25.09)
MBC	293 (21.77)	115 (12.96)	684 (50.82)	475 (53.56)	17 (1.26)	237 (26.72)	1 (0.07)	0 (0.00)	351 (26.08)	60 (6.76)
SBS	260 (26.64)	41 (4.41)	471 (48.26)	389 (41.87)	228 (23.36)	119 (12.82)	11 (1.13)	0 (0.00)	6 (0.61)	380 (40.90)
Total	1421 (35.57)	272 (7.23)	1553 (38.87)	1491 (39.63)	632 (15.82)	761 (20.23)	23 (0.58)	35 (0.93)	366 (9.16)	1203 (31.98)

수화: Chi-square=1790.499, p<.001 / 화면해설: Chi-square=904.995, p<.001

5. 장애인방송 생산자와 수용자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이상의 편성표 분석 결과로 밝히기 어려운 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각 5명씩 10명과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방송 담당자 그리고 각 방송채널(KBS1, 2TV/ MBC/ SBS) 편성담당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행 장애인방송 법령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편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 생산자와 그 정책에 의해 편성된 방송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과 시청자로서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실측조사 결과로 나타난 장애인방송의 프로그램유형과 재방송 비율을 근거로 수용자 측에는 장애인방송 이용의 만족·불만족 요인과 요구사항,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나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생산자 측에는 현행 장애인방송에 대한 수용자들의 요구사항과 개선 가능성여부,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 그 밖의 정책적 제안 등을 질문하였다.

시각장애인 5명의 인터뷰는 서울 마포점자도서관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인터뷰는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3명의 대상자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2명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방송 담당자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화면해설방송 담당자의 인터뷰는 대면인터뷰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해당 분야의 책임자로서 바라보는 입장과 문제점, 개선안 등이 주요 질문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각 방송사의 편성담당자는 방송사의 요청으로 이메일을 통한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시청각장애인 인터뷰

인터뷰대상자 중 시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2>와 같다.

표 12 | 시청각장애인 인터뷰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직업
시각 장애	A	남	50대	1급	18세	사회복지사
	B	여	50대	1급	15세	안마사
	C	여	50대	1급	17세	도서관장
	D	여	60대	1급	3세	주부
	E	남	50대	1급	8세	기업인
청각 장애	F	남	30대	2급	1세	사무직
	G	여	40대	2급	3세	사무직
	H	남	40대	2급	9세	사무직
	I	여	20대	2급	5세	사무직
	J	여	30대	2급	3세	사회복지사

시청각장애인에게 제시된 장애인방송 관련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은 <표 13>과 같다.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시청각장애인들 모두 접근이 쉽지 않으나, TV 프로그램이 정보습득과 여가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주시청시간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저녁시간과 주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방송이 주시청시간대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에 큰 불편이 있음을 토로했다. 하지만 화면해설방송에 비해 방송시간대가 규칙적이어서 인터뷰에 참여한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지상파 수화통역 뉴스의 편성시간을 대략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로 낮시간대에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 뉴스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저녁시간대 수화통역이 제공되는 YTN 뉴스를 선호하고 있었다.³² 청각장애인들은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 뉴스도 주시청시간대인 저녁에 방송되어야 하며, 수화화면의 크기도 지금보다 커져야 하며, 뉴스의 예고에도 자막이나 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시사나 상식을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가장 먼저 꼽았으며, 드라마나 예능·오락프로그램은 자막제공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문해력이 높은 20~30대의 답변이며 중장년층 중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화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재 지상파방송은 수화통역화면이 너무 작아서 전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항(정보에의 접근)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뉴스의 중요성으로 인해 지금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해당 법령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수화통역의 질을 높이고 수화화면 크기나 뉴스 제공시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각장애인 역시 주로 낮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재방송으로 제공되는 화면해설방송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각한 것은 화면해설방송 편성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고 방송시간이 불규칙해서 방송이 언제 편성되어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터뷰에 응한 시각장애인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TV

³² 청각장애인 인터뷰대상자들은 YTN 뉴스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수화통역으로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며, 수화통역의 화면이 지상파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13 | 시청각장애인 인터뷰 질문과 답변

영역	질문내용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방송 이용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TV프로그램 접근성이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 (공통) TV방송이 나의 삶의 중요 여부 (공통) TV 주시청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TV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움(지체됨) 있음. 지식과 정보 습득, 여가생활, 스트레스 해소 등도 중요함. 주로 저녁시간과 주말에 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TV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움(디지털화된 리모컨 버튼 조작이 어려워 주로 수신기를 이용함). 지식과 정보 습득, 여가생활, 스트레스 해소 등도 중요함. 주로 저녁시간과 주말에 이용.
장애인 방송 (수화·화면해설) 이용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의 장애인방송 제공시간 인지여부 (공통) 지상파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 시청 빈도 (시각) 화면해설방송 이용매체(TV, 방송사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연합회 제공 사이트 등) (공통)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의 만족도 (공통)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의 방송편성 만족여부 (시각) 화면해설방송이 재방송 편성에 대한 만족도 (시각) 뉴스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수화통역방송이 확대되기 위해 위의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항) 개정 필요여부 (공통)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의 추가 희망 장르 (공통)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의 편성개선을 위해 방송사가 할 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고 있음. 지상파 수화방송은 화면이 작고 낮방송이라 자주 시청하지 못함. 수화화면이 작고, 시간대도 맞지 않고, 수화 통역내용도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 만족하지 못함. 방송의 5%만 제공되어야한다면 지금처럼 뉴스 수화통역해주는 것이 유용함. 현재의 뉴스수화통역 시간대를 늘리고 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뉴스, 다큐는 수화방송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함. 드라마, 개그 등은 자막방송이 더 할당할 것임.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직접 듣는 것이 우선해야함. 수화통역사 배치, 수화방송 개선 권한은 중양화에 부여하는 것이 수화통역방송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름. 화면해설방송 제공정보 습득이 어려움. 방송시간대를 모르기 때문에 운 좋게 들게 되면 이용함. 수신기. 인터넷으로는 찾아듣기 어려움. 만족하지 못함. 본방송에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고, 뉴스도 외국인 인터넷 뉴터뷰 더빙이 없어서 볼 수 없음. 화면해설이 사실상 필요함. 만족하지 못함. 주시청시간대에 드라마와 코미디, 예능 오락프로그램의 편성이 요구됨. 낮과 심야의 재방송 제공으로는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할 수 없음. 다큐멘터리와 예능, 오락프로그램, 스포츠중계도 필요함. 스포츠중계는 캐스터와 해설자가 화면해설화 된 방송을 하면 해결될 것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필요. 재방송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제공하고, 안내하면 이용도도가 높을 것임.
요구사항	(공통) 장애인방송(수화·화면해설)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수화통역사 화면 확대가 필요. 수화통역사도 중양테스트를 통과자로 선정할 필요 있음	본방송 화면해설이 어렵다면, 본방송 도입부에 화면해설 재방송일시를 고지를 해주면 이용도도가 높아질 것임.

표 14 | 지상파방송사 편성담당 인터뷰 질문과 답변

영역	질문내용	KBS	SBS	MBC
화면 해설 방송 관련	1. 화면해설방송 시간대 고 정화 가능 여부	화면해설 제작 시간으로 인해 중영드라마, 외화, 해외 걸작 다큐 등으로 편성이 제한됨. 이들 프로 그램들은 가변 편성 존에 포함되므로 장애인 시 청자가 원하는 정규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말 드라마 재방송(토 12:10-14:25/월화드라마, 일 13:15-15:30 /수목드라마)과 평일 낮시간 재방송(월- 금 12:50-14:00)에 고정 편성 중.	인터뷰 질문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한 결과, 연구 취지는 동감하나 편성을 하 는 과정이 내외적인 여러 사항들을 고려 하여 이루어지므로 내외비적인 것들 이 많음. 때문에 공 식적으로 MBC 편 성규 입장을 대변하 여 답변을 드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 림. 또한 질문 대부 분이 복합적인 이유 로 결정되는 것들이 라 답변이 애매함.
	2. 예능·오락프로그램을 포 함한 장르로 확대가능 및 주시청시간대 편성 계획 여부	드라마, 예능 등 오락 프로그램은 거의 생방송 수 준의 발은 시간으로 제작됨. 별도의 제작 시간이 필요한 화면해설방송은 적용 불가능.	화면해설방송은 본방송 후 3일 이상 기간과 별도의 인력이 필요함. 대부분의 예능 오락프로그램은 당일 종합편집으로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 방송의 예능 오락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으 로는 본방송의 화면해설은 불가능함(해외처럼 사전 제작 시즈제물이나 A촬영팀-편집팀 등의 이원화된 인력구조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인터뷰에 응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함.
	3. 본방송 도입부에 화면해 설 재방송 시간 고지가 가능 여부	재방송 편성은 방송사 사정(뉴스 특보, 광고, 특 집 방송 등)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본 방송 프로그램에서 차후 방송 시간을 알려주는 고지를 넣을 수 없음.	방송사의 특성상 재방송의 경우 긴급한 속보나 시청 자의 니즈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아 잘못된 정보를 고지할 우려가 있음. 고정적인 화면해설 방송 편성을 패턴화하거나 홈페이지 음성지원 등의 별도의 고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실용성이 있어 보임.	인터뷰에 응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함.
	4. '화면해설방송안내와 '다음방송순서안내'의 음성 제공가능여부	KBS1TV에서만 일주일간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130여개로 분량이 많음. 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알려주는 음성을 녹음한 별도의 소개 ID를 만들 어 프로그램 앞에 붙이는 것은 방송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많은 추가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 켜 현실적으로 어려움.	SBS의 경우 다음방송순서안내를 모두 음성으로 제 공하고 있음.	
수화 통역 방송 관련	1. 저녁 8-9시 메인 뉴스 를 수화방송으로 제공하 지 못하는 이유는?	비장애인 시청권 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스튜디 오 전체를 활용하는 카메라 워크 등으로 인해 수 화 통역사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점 등 이 문제점. 별도의 스튜디오를 줄 경우 시설 및	메인 뉴스의 특성상 긴급한 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 고, 긴박하게 일고되기 때문에 수화통역사에게 원고 를 제공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여러 대의 카메라와 CG나 크로마키 등 특수기술을	

영역	질문내용	KBS	SBS	MBC
		<p>인력 추가 등의 비용 발생.</p> <p>수화통역사 활용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추가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책 판단이 필요함.</p> <p>2. 폐쇄 수화 기술(폐쇄자막과 같은)이 실용가능해지면, 저녁 메인 뉴스에 수화방송 제공이 가능한가?</p> <p>3. '뉴스'와 '다큐멘터리'의 수화통역방송 편성이 가능한가?</p> <p>4. 뉴스의 예고에 자막이나 수화의 제공이 가능한가?</p> <p>5. 수화통역사의 화면을 크게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p>	<p>사용하는데, 수화통역사본의 화면을 인허 송출하는 경우 방송사고 위험이 발생함.</p> <p>폐쇄 수화 기술을 이용한다면 저녁 메인 뉴스 시간 수화통역방송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해 100% 모든 방송에 자막 방송을 제공 중임.</p> <p>일부 다큐멘터리는 수화통역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화면이 중요하고, 인터뷰 내용이 이 지막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음. 수화통역화면이 자막을 가리는 예로서항으로 인해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해칠 염려가 있어 많은 양을 편성하지 못함.</p> <p>현재 SBS는 메인뉴스만 예고를 방송하고 있음. 메인 뉴스의 예고의 경우 헤드라인 자막을 제공하고 있음. 수화의 경우는 앞서 말한 메인뉴스의 특성상 예로서항이 있음.</p>	
공통	1. 장애인방송 편성정책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장구가 있는가?	<p>수화 방송이 불편하다는 비장애인 시청자의 요구도 많음. 현재 수화 화면을 키를 계획은 없음.</p> <p>방송위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이 꾸준히 전달되고 있으며, 본사 시청자 상담실에서도 장애인 시청자 의견 수렴하고 있음. 또 법적 기구인 시청자 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 중임.</p>	<p>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음. 논의 중인 폐쇄 수화 기술을 통해 좀 더 크고 시원한 수화통역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수화통역방송의 질을 높이고, 수화통역방송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임.</p> <p>다양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반영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하는 독점 업체임. 월 화, 수목드라마의 경우 연속성암치의 준수를 위해 재방송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1회부터 모든 회차를 화면해설로 유료 제작 후 미 방영분은 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고 있음. 한국농어인협</p>	

영역	질문내용	KBS	SBS	MBC
	2. 의무기준 이산 장애인방송 편성률 확대 계획이 있는가?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현재 KBS는 법적 기준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 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방송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권한을 일임하여 운영 중임. 지상파의 경우 장애인방송의 지원금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고, 삭감 폭도 매우 큰 편임. 늘어난 의무비율을 유지하면서 매년 줄어드는 지원액으로 현재 의무비율을 맞추기에도 방송사 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 장애인방송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회도 방송사에 별도의 공문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3. 장애인방송 지원이나 송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이사항 없음.	위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함.	
	4. 장애인 방송지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 비율이 타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KBS에는 1.5%포인트 낮게 책정돼 있음. 타사와 형평성을 맞추어주길 바람.	편성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줄어드는 예산 속에서 늘어난 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심야시간 제방송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장애인 시청권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됨.	
	5. 기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지원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나 개선점은?	특이사항 없음.	위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함.	

를 보는 저녁시간과 주말 즉, 주시청시간대에 화면해설방송을 본방송으로 시청할 원했으며 이는 주변 시각장애인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화면해설방송으로 가장 필요한 장르는 ‘예능·오락프로그램’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³³ 이유는 주로 자막과 행동으로 내용과 웃음 포인트가 전달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화면해설 없이는 가족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다음으로 선택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외국인 인터뷰 더빙이 반드시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외국어 문제는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뉴스에서 외국인 인터뷰의 더빙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MBC의 화면해설뉴스에 대해서는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제공되는 저녁 메인뉴스에서 인터뷰대상자 정보자막을 읽어주면서 이를 화면해설방송 비율에 넣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여기고 있었다. 전체방송의 10%만이 화면해설로 제공되는 현재 상황에서 해설할 내용이 많지 않은 뉴스로 일정 분량을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뉴스는 라디오로 정보습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화면해설방송 편성정보에 있어서는 제작특성상 본방송으로 제공되기 힘든 프로그램은 본방송 초입부에 화면해설방송으로 언제 재방송이 되는지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면 찾아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³⁴ 화면해설 방송 안내뿐만 아니라 전체방송에서 제공되는 다음 프로그램 안내³⁵도 음성으로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현재 화면해설방송으로 제공되지 않는 시사정보, 토론, 음악쇼, 스포츠, 퀴즈 쇼 중에서는 스포츠의 화면해설 필요성이 거론되었으나, 해설자와 캐스터가 쉽 없이 얘기를 하는 스포츠방송의 특성상 화면해설이 따로 삽입되기보다는 해설자나 캐스터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대명사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더 실

33 본 연구의 편성표 분석결과, SBS는 버라이어티쇼를 비롯한 예능·오락프로그램의 화면해설방송을 30%정도 제공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낮시간에 제공되는 재방송이며 편성정보를 얻기 힘들어 시각장애인들의 이용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34 인터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편성표 정보는 중장년층의 경우 대다수 접근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35 시각장애인들은 ‘화면해설방송안내’와 함께 ‘다음방송순서안내(ex: 이어서 ... 가 방송되었습니다)’를 음성으로 제공받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현재는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자막으로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NEXT’라는 리드멘트만 음성으로 제공하고 프로그램명은 자막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더욱 궁금증이 남는다고 하였다.

효성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본 인터뷰결과, 시각장애인은 TV시청 행위를 작게는 가족, 크게는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화면해설 방송이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은 현재 편성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유형 자체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이용이 불가능한 낮시간이나 심야시간에 제공되는 것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본방송이 아닌 재방송이 비(非)주시청시간대에 불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편성안내의 부재, 예능·오락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화면해설방송 편성의 문제로 꼽았고, 청각장애인 역시 ‘뉴스’에 집중된 수화통역방송 장르에 대한 불만보다는 시청가능한 저녁시간 뉴스가 아니라 편성시간대의 문제와 수화통역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등 질적인 문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장애인단체 담당자 인터뷰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방송 담당자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면해설방송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폐쇄자막과 같은 폐쇄수화통역 기술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이것이 실용화되면 주시청시간대에 수화통역방송이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호환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화면해설방송 담당자는 장애인방송고시에 편성장르, 편성시간대, 장애인 당사자의 자문 및 모니터와 같은 구체적 평가부분이 추가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현재 정량평가로 진행되는 장애인방송의 평가시스템에 화면해설 및 수화통역방송의 만족도 등 정성평가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하였다.

3) 지상파방송사 편성담당자 인터뷰

지상파방송사 편성담당자의 인터뷰 질문은 앞서 진행한 장애인 시청자와 관련단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질문과 그에 대

한 답변은 <표 14>와 같다. KBS의 경우 1TV와 2TV의 장애인방송 편성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두 채널의 편성정책에 대해 통합적으로 답해주었으며 SBS의 경우도 담당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나, MBC는 장애인방송 편성은 복합적인 이유로 결정되며 대외비적인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KBS와 SBS의 인터뷰 답변에 공통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무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기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KBS와 SBS는 현재 저녁 메인 뉴스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KBS는 그 이유를 비장애인의 시청권 확보와 추가 시설 및 인력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SBS는 메인뉴스에서는 긴급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수화통역사에게 미리 원고를 제공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주된 원인으로 밝혔다. 그러나 폐쇄자막과 같은 폐쇄 수화기술이 실용화되면 메인뉴스에 보다 큰 화면으로 수화통역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담당자의 경우 이러한 기술의 도입과 실행에 있어서는 추가비용이 요구됨으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지식정보 프로그램에 수화통역방송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터뷰 자막 등을 가리는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폐쇄수화기술이 도입된다면 비장애인 시청권 확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청각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뉴스예고자막과 수화제공’에 있어서는 KBS와 SBS 모두 헤드라인 자막 옆에 수화를 넣으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메인 토픽 예고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수화통역사의 오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본방송 예능·오락프로그램에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화면해설 제작시간이 3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방송 당일에 종합편집을 하고 있는 현재의 예능·오락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으로는 본방송의 화면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화면해설방

송을 고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냐는 질문에 KBS는 드라마나 외화, 해외 걸작 다큐 등 화면해설 제작시간이 허락되는 장르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해당 장르는 고정 편성이 아닌 가변적인 편성시간대에 포함되므로 정규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SBS의 경우는 주말과 평일 낮시간 재방송시간대를 고정하여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편성표 분석 결과, 낮시간대 편성만으로는 전체 방송의 10%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심야시간대 재방송으로 나머지 분량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KBS와 마찬가지로 화면해설방송 제작에 시간이 걸린다는 제작시스템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시각장애인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던 ‘본방송 도입부 화면해설 재방송시간 고지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KBS와 SBS 모두 재방송 편성은 긴급 속보 등에 의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SBS 담당자는 화면해설방송 편성을 보다 패턴화하거나, 홈페이지 음성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다음방송순서안내’에 있어서 SBS는 현재 모두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으나, KBS는 방송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 인력과 비용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짐작해볼 때 민영방송 SBS보다 공영방송 KBS가 방송고지 등에 예산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편성표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 중 하나인 KBS1,2TV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호보완여부에 대하여는 두 채널의 평균치로 산출한다고 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보완 정책은 두 채널의 전체방송프로그램 유형비율과 장애인방송 유형비율의 차이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더구나 두 채널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의문점이었던 MBC 화면해설뉴스편성에 관해서는 담당자의 인터뷰 거절로 인해, 뉴스보다 영상정보비율이 많은 장르로 화면해설 방송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음으로 장애인방송 전반에 대한 공통질문에 있어서 KBS와 SBS는 장애인

방송 편성정책에 현재 장애인들의 의견이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KBS는 시청자 상담실이나 시청자 위원회가 그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SBS는 화면해설방송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의 의견은 공문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현재 장애인방송에 있어서 장애인관련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시청자 상담실 등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역할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향력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법적 기구의 시청자위원회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공통질문인 의무편성비율 이상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답변했으며, 장애인방송지원에 대한 개선점에 관해서도 역시 예산확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SBS편성 담당자는 지상파의 경우 장애인방송의 지원금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고, 삭감 폭도 큰 편이라 매년 줄어드는 지원액으로 현재의 의무비율을 맞추기에도 방송사 내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장애인방송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KBS의 경우는 타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1.5% 포인트 낮게 책정되어있어, 타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예산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6. 결론

2014년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정책이 시행된 첫해에 해당한다. 의무편성 방송사업자로 가장 먼저 선정된 지상파방송사의 2014년의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방송의 프로그램유형은 전체방송 프로그램유형의 비율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대다수 지상파 채널이 '보도' 분야, 즉 '뉴스'에 상당히 높은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역시 채널별로 장르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

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방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형태는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대체로 아침시간대와 낮시간대에 본방송 '뉴스'로 방영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방송이 주시청시간대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크게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로 낮시간대에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 뉴스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지상파방송사의 수화통역 뉴스가 주시청시간대인 저녁에 방송되어야 하며, 수화화면의 크기도 지금보다 커져야한다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또한 시사나 상식을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도 수화통역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편성담당자는 현재로서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확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저녁 시간대 뉴스와 다큐멘터리의 수화통역, 수화화면의 크기 확대가 어려우나 폐쇄 수화통역기술이 도입되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증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화면해설방송은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낮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이 재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은 주로 낮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제공되는 화면해설방송이 생활주기와 맞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화면해설방송 편성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고 방송시간이 불규칙해서 방송이 언제 편성되어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 내용을 취합한 결과 시각장애인은 대체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는 주시청시간대에 '예능·오락프로그램'의 본방송을 화면해설방송으로 시청하길 원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TV시청행위를 통해 가족이나 사회와 소통하고 소외되지 않게끔 장애인방송이 역할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화면해설방송의 제작특성상 본방송으로 제공되기 힘든 프로그램은 본방송 초입에 화면해설방송으로 언제 재방송이 되는지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면 찾아보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편성담당자는 3일 이상 제작시간이 걸리는 화면해설방송과 방송 당일 최종편집을 하는 오락프로그램 제작여건으로 인해 본방송에 화면해설방송을 방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현재의 낮방송 및 심야방송과 재방송 시스템은 불

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재방송의 유동가능성 때문에 본방송에서의 재방송 시간 고지도 사실상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송사의 관심여하에 따라 홈페이지상의 재방송 고지는 가능할 수 있으며, 현재의 화면해설 프로그램 유형을 보다 고정적으로 패턴화하여 시각장애인이 규칙적으로 접근하도록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편성담당자 인터뷰 결과, 현재 청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 수화통역방송의 문제점은 폐쇄수화통역 기술이 실용화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작여건 상 주시청시간대 본방송 편성이라는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은 당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와 교양, 버라이어티 쇼 등을 주시청시간대와 토요일 오전시간대에 화면해설방송으로 일정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화면해설방송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방송물 자체의 사전제작시스템이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각장애인의 화면해설방송 이용활성화를 위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대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화면해설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인증절차를 거친 이용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전한 다시보기 서비스³⁶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 미국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보다 접근하기 용이한 안내전화를 통하여 방송편성을 공지하는 것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나아가 생방송이나 본방송에 화면해설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제작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편성담당자들이 입을 모아 제안했던 것처럼 예산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과제로 보이며, 관련 법령의 시행정책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36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시보기 서비스는 저작권의 문제로 영상을 제외한 소리로만 제공되고 있다.

능동적인 관여는 방송사가 장애인 시청자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다각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영국의 Ofcom은 ‘TV접근서비스 규칙’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형을 선정하는 데 있어 장애인의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정기적인 자문과 피드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지상파 장애인방송 편성담당자들은 현재에도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정기적인 자문이나 피드백 및 모니터가 아닌 불편함을 참다못해 시청자상담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토로하는 경우이며, 또 다른 창구인 시청자 위원회는 비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어려움을 심분 대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4년 신설된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제4항 제4호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³⁷이 조항을 통해 장애인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사들이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는데 있어, 각 지역의 장애인단체로부터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방송사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편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당장 방송접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즉각적으로 소리 높여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방송사 편성담당자들은 장애인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반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며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적극성의 부족이다.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

37 현행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 (중략) ④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중략)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브 잡스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을 직접 초대해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고 제작과정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술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편리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인은 더 이상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자로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방송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인식의 변화는 장애인과 방송사 및 방송정책규제기관의 태도와 행동에 적극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측자료 분석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일정부분 입증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방송 이용자인 시청각장애인의 인터뷰를 10명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 다양한 방송사와 채널에 대한 편성 현황과 편성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015년부터는 중앙지상과 외에 각 지역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로 장애인방송의 의무편성이 확대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피지 못한 방송사들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편성담당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장애인방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청각장애인의 요구도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미디어 소비자이다. 또한 다양성을 전제한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규범이며 이념이다. 방송사는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의 대상이 아닌 미디어 이용자이자 소비자란 사실을 인식하고 방송의 공익성이란 절대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장애인에게 유용한 방송의 제공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과 방안 마련의 논의를 이끄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미경·이동진·유가호(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4호, 137~155.
- 김재영·박규장(2005). 디지털시대의 방송 공익성과 지상파방송 정책 패러다임. 「사회과학연구」, 제16권, 49~69.
- 김칠관(2001). TV방송과 수화·수화통역 - 새로운 접근을 위한 모색 -.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제3회 공개 연구 발표회 2001년 8월, 6~24.
- 방송통신위원회(2009). 장애인 방송제작물 제작 편성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 융합방송 미디어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 방송통신위원회(2011). 시청각 장애인 시청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2012).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적 운용 허용. 2012년 9월 7일자 보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4). 해외 선진국과 국내의 장애인방송 운영제도 비교 연구.
- 송종길(200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송연구」 제57권, 147~178.
- 안영민·김위권(2005).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시청자주권 실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안정임(2004). 방송 소외계층과 수용자 복지: 다양성 개념으로 살펴본 정책 현황과 방향. 「방송문화연구」, 제16권 1호, 205~232.
- 오형일·윤석민(2014). 한국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 이념과 실제 -공영방송 법제도 및 KBS 편성목표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제87호, 107~146.
- 윤영철(2001).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33-55.
- 이영희(2012).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2차적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제28권 2호, 49~76.
- 이재진·이영희(2015). 매체이용자로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의 법제도적 현실과 개선점.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3권 1호, 54~100.
- 정수영·구지혜(2010). 지상파TV 뉴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5호, 415~457.
- 정인숙·김미경·황성연(2010). 방통융합시대의 상업주의화와 미디어다양성 확보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10-13-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익환·이상우(2012). 경쟁 환경에 따른 신규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프로그램 다양성 연구 : 기존 지상파 방송과 신규 종합편성 채널의 다양성 비교. 「한국방송학보」, 제26권 6호, 177~213.
- 최세경(2012). 종합편성채널의 편성전략 장르 다양성 그리고 시청 성과. 「방송문화연구」, 제24권 1호, 75~109.
- 최은경 안영민(2012).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서비스 정책 현황 분석: 한국과 영국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정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전자지널, 45호, 22~3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1). 시각장애인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활성화 방안.
- 한진만(2010). 방송환경 변화와 지상파 텔레비전 편성의 다양성 변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8권 1호, 7~43.
- 황주성·이민영(2004).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KISDI 이슈리포트」 04-30, 1~53.
- 홍종배·유승관(2014). 다문화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3호, 7~38.
- McQuail, D.(1992). Media Performance: Mass Communication and Measurement of Diversity. Communication Research, 30(1), 60~79.
- Ofcom(2004).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s.
- Ofcom(2015a).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s.
- Ofcom(2015b). Television access services report 201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http://kwacc.or.kr/Board/Screen/List>)
- 영국 오프콤 홈페이지(<http://www.ofcom.org.uk/>)
- The Audio Description Project(ADP) (<http://www.acb.org/adp/>)
-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https://www.fcc.gov/>)

연구자 소개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화면해설작가로 활동하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언론 법제·정책·언론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료하였다. 석사학위논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로 한국출판학술상 우수상을 받은바 있으며, 《시각 장애연구》와 《미디어 경제와 문화》,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등 다수의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화면해설전문작가로 다시 현업활동을 병행하며, 온오프라인을 통괄한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연구를 보다 폭넓게 진행하고자 한다.

진승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언론 법제·정책·언론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공동연구자와 함께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편성의 개선방안 연구: 지상파 3사의 편성 현황 비교분석을 중심으로’를 학회 발표 및 등재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한 바 있다. 현재 시각 장애인 시청자의 복지 관련 법제 연구, 광고심의, 공인과 명예훼손 등 언론법제윤리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연구후기

연구를 끝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보접근의 권리와 문화의 향유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영상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 영상을 해설하는 서비스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국내에 화면해설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0년 제1회 장애인영화제이며, 본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화면해설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전후다. 화면해설방송이 시작된 지 십여 년이 지난 현재, 지상파를 비롯해 위성, 종합편성, 홈쇼핑 방송까지 그 범위는 확대되었으며, 방송사업자의 형태별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10%에 해당하는 화면해설방송을 의무적으로 제작 편성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4년은 장애인방송의 의무편성을 시작한 첫 해에 해당하는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에서 장애인 방송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알아보고 그 현황과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의 장애인 시청자 복지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 처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편성의 개선방안 연구: 지상파 3사의 편성 현황 비교분석을 중심으로’는 그런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나 2014년 상반기 편성 현황을 분석하는데 그쳐 실증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었으나 연구자로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연구였다.

편성현황 분석과 더불어 시청각 장애인들과 장애인방송담당자들의 인터뷰, 즉 생산자와 수용자 측면에서의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편성표 분석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밝힐 수 있으며 이후 법 개정논의를 위한 자료로서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후속 연구를 기획하던 차에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과 만났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시작된 연구였기에 지난 일 년간의 연구 과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연구를 마무리하는 지금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본 연구가 시청각 장애인들이 보다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보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진행 중의 에피소드

시청각 장애인들과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방송 담당자, 그리고 각 방송사 편성담당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편성표 분석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며 보다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미디어 환경 개선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무사히 연구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재해석’에 대해

한국장애인재단의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은 장애를 가진 이들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연구가 편성분석과 더불어 생산자와 수용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된 데에는 많은 관심 가져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장애의 재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논문지원사업 지원자에게 전하는 말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의 재해석’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소수 학문인 장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업이다. 나의 연

구가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길 바라는 연구자라면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희찬 자문교수님께 전하는 감사인사

박희찬 교수님께서서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본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교수님께서서는 연구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편향된 시각을 보다 균형 있게 잡아주셨습니다. ‘장애의 재해석’ 논문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연구를 자문해주신 박희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03

보편적 학습 설계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 : 움직임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을
중심으로

정희정, 이용호

자문위원 : 이지수(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희정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용호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부교수

보편적 학습 설계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 : 움직임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보편적 학습 설계(UDL)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체표현활동 콘텐츠와 맥락을 분석하여 신체표현활동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수업 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표현활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480개의 개념과 23개의 하위범주 및 9개의 상위범주가 도출 되었다. 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분석된 중심현상은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과 ‘접촉즉흥을 통한 관계맺기’였고, 핵심범주는 ‘유연한 교수전략과 창의적 변형이 가능한 콘텐츠’였다. 수업은 흐름과 구조적 조건에 따라 ‘탐색’, ‘발견’, ‘실험’, ‘수용’의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전략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원리 지침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었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움직임 변형 기본 프레임과 접촉즉흥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보편적 학습 설계, 근거이론, 통합신체표현활동, 접촉즉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합교육은 일반교육과정의 수업내용을 근거로 장애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개별화된 교수계획을 통해 실현된다(이정은 & 염명숙, 2011). 2015년 국립 특수교육연구원(Korea National Institution for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70% 이상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장애학생들에게 일반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적 수정 혹은 교수적합화 등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번영 & 박승희, 2007; 황현주 & 박승희, 2006). 하지만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교수-학습프로그램 부족, 동료학생 및 부모들의 인식부족,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적절하지 못한 준비와 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분리위주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혜란, 2003; 박영균, 2004). 이에 통합교육이 일반교육과정의 상황을 도외시 하고 장애학생의 학급권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반교육에 투영되어 오히려 통합교육 실패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최신실, 박승희, 2001). 따라서 현재 일반교육에서의 요구와 특수교육에서의 요구를 모두 담아 낼 수 있는 통합교육의 개념과 방향이 필요하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어야 한다(박주연, 2009).

최근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이하 UDL)원칙 적용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UDL)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공통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교육목적, 교수방법, 교수자료 및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학습 환경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노석준, 2006; Rose & Meyer, 2002). UDL은 다양한 능력과 배경의 학생 요구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반교육과정에 장애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Kortering et al., 2008; McGuire-Schwartz & Arndt, 2007; Garderen & Whittaker, 2006). 수업참여는 학습을 위한 기본 전제이므로, 보편적 학습설계에 부합하는 도구와 매체는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rtering et al., 2008; Lieberman et al., 2008). 2008년 미국 보스톤에서 개최되었던 Co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National Convention에서는 UDL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Wehmeyer, Ketterlin-Geller, Hall, 그리고 Graham은 교수와 수업 도구에 UDL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손지영 & 김동일, 2010). 이는 이제 통합교육은 개념과 이론의 당위성 논쟁을 넘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UDL 실현을 위한 중재 중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러닝(e-learning), 오디오 설명삽입, 전자 텍스트 등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학습이다(김동일 외, 2008; CAST, 2004; Meo, 2008; Pace & Schwarts, 2008). 하지만 이를 교육현장에서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환경구축, 보조 장치 보급 등 물리적 환경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면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신체표현활동은 특수한 물리적 지원 없이 UDL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체표현활동은 모든 학생들의 학업적, 사회적, 기능적 발달과 지식의 향상(Catterall, 2009; Deasy, 2002)을 이끌 수 있으며 특히 장애학생에게는 성취 경험을 제공하므로(Malley & Silverstein, 2012) 그들의 성공적인 지식과 기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illier et al., 2011). 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선입견을 감소시킴으로서 장애신체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Benjamin, 2013; Slininger et al., 2010; Zitomer & Reid, 2011).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신체표현활동의 효과성이 밝혀지면서 사회, 언어, 수학 등 타 교과와 통합하여 전통적 수업환경에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Skoning, 2010). VAS(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Arts and

Disability)¹는 지식 기반 실용전략수립 필요성을 근거로 신체표현활동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매년 전문가를 비롯하여 현장가, 장애부모, 교사 등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Tomasic, 2013).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신체표현활동은 체육교과의 한 단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인 수업시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려해도 적절한 적용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전문적인 무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반교사들도 신체표현활동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개발과 구체적인 적용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접촉즉흥(Contact Improvisation; 이하 CI)는 기존의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처럼 움직임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기보다 신체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전문적으로 무용을 배웠든 혹은 배우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신체표현활동 콘텐츠이다. CI는 1972년 Steve Paxton에 의해 비(非)위계, 비(非)제도화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움직임 형식이다. CI는 일상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놀이, 스포츠, 무술 등 모든 움직임을 수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물론이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CI에 참가할 수 있다(Kaltenbrunner, 1998). CI는 사용하는 사람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기본적 개념은 두 사람이 접촉하여 무게와 에너지의 교류를 통해 신체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pkoff, 1997).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중력, 순간성, 관성, 마찰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신체 접촉점을 발견하고, 그 접촉점을 통해 서로의 체중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Paxton, 1997). 즉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즉흥 움직임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이다. Kaltenbrunner(1988)는 CI는 참가자들에게 움직임의 구체적인 방법,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1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Arts and Disability는 장애인을 위한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예술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 케네디 스미스(Jean Kenedy Smith)가 설립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 접근과 참여를 위해 관련 전문가, 행정가들이 모여 매년 예술 및 특수교육 컨퍼런스(VAS Intersections:Arts and Special Education)를 개최하고 있다.

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 모두 수용하는 CI의 개방성을 의미한다. 또한 Keriac(1997)은 CI에서 가르침은 그대로 모방하는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질에 적합한 고유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CI는 자신의 특성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법을 허용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와 같은 CI의 특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CI는 기존의 통합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적극적인 참여, 공동의 수업목표달성, 교수적 수정(instructional adaptation)(정주영 & 신현기, 2001; 이재원 외, 2012)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통합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이론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수업경험과정 분석은 수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학교현장에서 노련하고 실력 있는 교사들은 UD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UDL 학습원리를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Scott et al., 2003).

이에 본 연구는 교사들의 수업경험과정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실천전략은 기존에 알려진 콘텐츠만 제공하는 탈 맥락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장 교사들의 관점과 지각을 바탕으로 교수전략에 관한 맥락적 상호관계에서 실천전략을 도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이론 개발에 적합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천전략은 교수전략과 수업 콘텐츠 두 가지로 제시될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신체표현활동 수업에서 경험한 교수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교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체표현활동 콘텐츠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신체표현활동의 내용체계

신체 활동은 '체육'을 타 교과와 구별 지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체육과 에서는 신체 활동이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의 도구로써 활용된다. 체육교과의 내용요소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으로 나누 진다. 그 중 신체 표현활동은 움직임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창의적 표현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면서 창의력 향상을 중점으로 두는 신체 표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된 신체표현활동의 내용요소를 살펴보면 심미적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표현 유형과 다문화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중등 신체표현활동에서의 내용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체육에서는 신체 활동의 표현요소를 이해하고 표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는 태도 발달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 체육에서는 표현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활동을 수행하며 감상할 수 있는 적용 능력 발달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표현활동 내용을 <표1>와 같이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및 창작 표현으로 구분하고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표현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독창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조미혜, 2011).

표 1 | 표현활동 내용체계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 • 움직임 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신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 표현 유형과 요소 • 리듬에 맞춘 신체활동 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신체 적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와 특징 • 민속 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원리와 창작 과정 • 움직임 창작 표현 방법 • 창의적 표현 및 감상 • 독창성

위와 같은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신체 움직임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언어(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와 움직임 요소(신체, 공간, 시간, 힘,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 및 리듬 표현 유형과 요소를 이해하고 ‘신체 인식’과 ‘신체 적응력’의 실천하기 위해 2011년 체육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표2>와 같다.

표 2 | 신체표현활동 내용 체계

내용	내용체계
움직임 표현	움직임 언어 :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움직임 요소 : 신체, 공간, 노력, 관계 움직임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및 신체인식
리듬표현	리듬 표현 유형과 요소 리듬에 맞춘 신체활동 표현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신체 적응력
주제표현	구성원리와 창작 과정 움직임 창작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독창성
심미표현	특성과 유형 표현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독창성

신체표현활동은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강은주(2006)는 창작무용 활동이 발달장애아의 리듬감 향상 미치는 연구에서 신체각부위의 다감각적 표현이 결합된 창작무용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

의 리듬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권혜영 & 서지혜(2010)는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청각장애아동의 평형성과 신체균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라반의 무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형성, 신체조절 능력 향상을 제시하였다. 김나영 & 장경호(2008)은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신체표현을 실시하여 증가된 자기표현의 내용적 태도 표현, 비언어적 표현과 개선된 위축행동을 보고하였다. 송현주(2013)은 라반의 BESS 무용동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실시 전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엄진명 & 이필상(2012)은 신체표현활동을 이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으로 정신지체아동의 어휘습득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수용·표현 어휘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을 위해 신체표현활동을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 특수학교에서 역통합 무용활동 프로그램이 비장애 중학생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한 박일지 & 박현숙(2007)의 연구에서 전반적인 사회인식, 특히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수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신체표현활동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접촉즉흥(Contact Improvisation : CI)

CI는 1972년 미국의 현대무용가 Steve Paxton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무용으로 접촉과 즉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한다. CI는 현대무용(Modern Dance)에서 강조하는 음악이나 감정의 표현보다 무용의 본질인 신체 움직임의 중요성을 중요시 한다. 이는 CI이 이사도라 던컨의 자유, 자연, 그리고 신체의식을 계승한 무용이기 때문이다. 인습에서 벗어나 자연적 인간을 지향한 던컨은 인간자유의 기초적 개념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력을 향한 신체 움직임, 연속적 움직임, 즉흥무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던컨의 자연주의 움직임은 이후 서술적 구조와 테크닉에 집중되어 있던 무용에서 신체 움직임과 일상적인 움직임을 주목하게 하였다(윤미정, 2005).

이사도라 던킨의 자유사상을 배경으로 탄생한 접촉즉흥은 비(非)위계 및 비(非)제도화를 표방하고 일관된 형식이나 고정된 동작 유형 또는 안무가에 의해 만들어진 움직임은 철저히 거부한다. 이에 CI 무용수들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애쓰는 대신, 신체 움직임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즉 신체는 테크닉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보다, 신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CI에서 춤을 추는 주체는 장애인은 물론이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방성과 일상성으로 CI은 무용을 넘어 스포츠, 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Kaltenbrunner, 1998).

CI는 두 사람이 접촉하여 무게와 에너지의 교류를 통해 신체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Lepkoff, 1997).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중력, 순간성, 관성, 마찰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신체 접촉점을 발견하고, 그 접촉점을 통해 서로의 체중을 주고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Paxton, 1997). 즉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즉흥 움직임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것이다. 접촉즉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요인을 설정하여 움직임에 대한 다방면의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있다. Kaltenbrunner (1988)는 무용수들에게 움직임의 구체적인 방법,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 모두 수용하는 CI의 개방성을 의미한다. CI는 solo, 2인무, 전체그룹(앙상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Contact Quarterly에서는 CI이 일어나는 형식으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듀엣(Duet), 원형 안에서 접촉즉흥이 일어나는 라운드로빈(Round robin),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촉즉흥을 하는 잼(Jam)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CI 는 형식 안에서도 자발성, 평등의 가치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I이 추구하는 비위계적, 공동체적 가치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Paxton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를 상호협력으로 대체하였다. Keriac(1997)은 “무용, 즉 접촉즉흥이 선생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사이면서 학생인 참여자로서의 교사를 지향하는 접촉즉흥의 비위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르침은 그대로 모방하는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여를 강조 하였다. CI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질에 적합한

고유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신체를 존중하였다.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CI의 초기 활동에서부터 장애인을 포함해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985년 초 미드랜드(Midland) 무용단의 예술감독이었던 Lesley Hutchison 은 무용단을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로 성격을 전환하면서 학생이건, 노인이건, 또는 비장애인이건 아니면 장애인이건 간에 그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방식을 모색하던 중 CI가 가장 수월하고 매력적인 형식의 무용임을 발견하였다. 미드랜드 무용단의 무용수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무용을 가르쳐온 Louise Richards 와 Kevin Finnan은 장애인들도 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윤미정, 2005).

만인 당신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떻게 무용을 할 수 있는가? CI의 연구는 신체에는 항상 중력의 계속적인 떨어짐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항상 호흡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이 얼마나 작건 간에 움직임이 있는 곳에선 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ichards & Finnan, 1997).

Alessi(1997)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무용을 할 때, 그들이 받은 즐거움과 감동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며 비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장애인들에게 무용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였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각기 다른 부분들의 제한된 움직임만을 갖는 각기 다른 장애인들에게 공간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한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CI은 장애인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누구나 무용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는 평등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CI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충만한 신체적, 정서적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Kaltenbrunner, 1998).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통합 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표현활동과 CI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이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서울문화예술재단과 장애인예술재단에 연구목적을 밝히고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연구요약서, 연구 참여자동의서를 첨부하여 적합한 연구참여자 추천을 의뢰하였다. 참가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신체표현활동 수업 5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재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표현활동 수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참가자가 진행하고 있는 신체표현활동 프로그램 포함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수업이거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둘째, 신체표현활동이나 CI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1차 섭외에서 추천받은 10명의 교사에게 전화로 연구목적 및 내용을 밝히고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의 교사에게 연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이메일로 연구요약서와 연구동의서를 전달하였다. 선 검토 후 수업 방법을 공개하는 꺼려하는 1명을 제외한 6명의 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직접면담 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수업내용과 방법을 공개한다는 것에 동의하여 마지막으로 서면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작성 시 자의로 면담을 중단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3>와 같다.

표 3 연구 참가자

분류	이름	성별	경력	전공	주요 인터뷰 내용	횟수
비 통합 수업	참가자 1	여	8년	무용	① 접촉즉흥의 사용	3회
	참가자 2	여	15년	무용	② 수업 진행 및 방법	2회
	참가자 3	남	6년	무용	③ 장애 대상 무용 수업 시 교육 방법	1회
통합 수업	참가자 4	남	10년	체육교육	④ 통합교육에서 접촉 즉흥 및 무용수업의 함의점	2회
	참가자 5	여	5년	무용		2회
	참가자 6	여	6년	무용		1회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업 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표현활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표4)에 기초하여 2~3회 시행하였고, 회기 당 면접 시간은 90~120분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 까지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 계획서와 면접내용에 관해 이메일로 사전에 공지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녹음 하고 현장에서 연구메모를 작성 하였다.

표 4 심층면접의 범위와 내용

범위	내용
1. 교육목표	- 통합수업 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목적은? - 기존의 무용수업과 차이점은? - 이를 하는 목적은?
2. 교육 내용	- 수업 전개 방법은 무엇이며, 그러한 전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 단계에 따라 어떤 수업 콘텐츠를 사용하며, 그 이유는? - 사용하는 콘텐츠 특징은?
3. 교육환경 및 교사 역할	- 수업 시 교사 역할은?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환경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 교사 개입은 어느 정도? (장애인/ 비장애인)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을 위해 교사들의 수업경험과정을 실제적으로 파악 하여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교사들의 수업실시과정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는 근거이론 방법을 선택하였다. 근거이론은 어떤 것의 이해를 위한 귀납적인 접근과 관련이 있다. 즉, 실제 삶의 현장에서 참여자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 현상들에 대해 깊게 탐색하기 위해 관찰로 시작해 개념과 이론을 도출한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연구 집단에 관련된 과거에 알려진 개념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거나 만일 밝혀져 있다 하더라도 개념 간의 관계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맥락적 상호관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근거이론의 장점이다(신경림 & 김미영, 200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만 제공하는 탈 맥락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맥락적 상호관계를 통해 도출된 실천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장으로부터 얻은 실제적인 자료로부터 개념과 범주들을 개발하고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중심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중재적 조건, 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적 구조를 통해 콘텐츠 실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진실성 확보를 위해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다원화,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감사자료 남기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녹취한 후 수집된 자료 및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그림과 표가 참여자의 의도와 같은지 참여자에게 재확인을 거치면서 진행하였고 마지막 연구결과를 확인받았다. 수집된 자료와 분석에 관하여 동료지지 연구 집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자들의 의견을 점검하였다. 연구자는 무용전공 1인과 특수체육전공 1인으로 구성하여 연구가 무용이나 체육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방향의 타당성을 위해 연구과정 동안 무용전공교수 1인, 체육전공교수1인에게 조언을 받았다.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사회복지전공 교수 1인과 특수교육 박사 1인에게 분석내용과 연구결과를 검증받았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 이 풍부한 교수 1인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전 연구 계획서, 연구 참여자용 정보지 및 동의서를 이메일로 보내 연구 참여를 확인받고, 면접 시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작성 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원자료와 연구노트,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3월 13에 A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승인을 받았다. IRB 승인번호는 No. 1503/002-009이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을 위해 교사들의 수업경험과정을 실체적으로 파악 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의 수업경험과정 분석은 수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신체표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경험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개방코딩 : 근거자료 분석에 의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대상으로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무리지어 추상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미가 같은 개념을 제외하고 총 48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를 23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고, 9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얻은 개념과 범주화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1 표 5 | 개념의 범주화

개념		범주	구분
신체움직임과 정신이 함께 변해감, 스킨쉽으로 감정전달, 비언어적 교류, 접촉으로 교감을 이끌어내려고 함, 같이 무언기를 만드는 수업, 모든 움직임 수용, 같은 수업 전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업,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름, 과정 지향적	신체움직임과 정신이 함께 변해감, 스킨쉽으로 감정전달, 비언어적 교류, 접촉으로 교감을 이끌어내려고 함, 같이 무언기를 만드는 수업, 모든 움직임 수용, 같은 수업 전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업,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름, 과정 지향적	신체표현 활동의 유용성 신취	인과적 조건
	장애정도에 따른 구별 필요, 장애유형에 따라 배려할 수 있는 것 틀림, 장애유형에 따라 틀린 반응, 장애학생으로 인해 수업 전반 집중도 떨어질 수 있음,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실나 체육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교실 책상 밑에놓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비싸니까 그런 거 인사주죠, 무용실은 당연히 없죠, 운동장에서 하는 거죠	장애정도에 따른 구별 필요, 장애유형에 따라 배려할 수 있는 것 틀림, 장애유형에 따라 틀린 반응, 장애학생으로 인해 수업 전반 집중도 떨어질 수 있음,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실나 체육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교실 책상 밑에놓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비싸니까 그런 거 인사주죠, 무용실은 당연히 없죠, 운동장에서 하는 거죠	교사제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세로물이란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 발견 하는 것, 킨츠에 움직임 요소들의 다양한 적용, 움직임 요소의 차원적 조합, 기본동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적용, 즉흥 표현 범위 확장,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본 움직임, 동작에 익숙해지면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빠르게 해보기도 함, 수업 시간에 방향, 공간, 시간, 타이밍이 동시에 이루어짐, 정면이 비편(방향), 3분에 몇 가지 동작을 함, 같은 동작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작게 했다면 플레이즈가 됨, 방향에 따라 굉장히 틀려짐, 몸의 포인트에 따라 삼각형을 계속 변형, 틀에서 벗어나면 그게 또 새로운 규칙, 점점 움직임을 추가, 리듬을 바꿔서 함, 일상적 움직임에 움직임 요소 적용하여 변형, 대상에 따른 변형, 틀은 만들기 나름, 다양한 신체부위 사용 및 변형, 전달하는 방법만 조금 바뀌는 것임, 사이 사이 에너지가 생기면 속도, 높낮이를 추가하면 더 다이나믹, 해집, 속도와 방향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됨, 다양한 선택 범위(움직임 요소) / 시고 변형 직접 체험, 움직임과 에너지가 확장되면서 움직임 요소가 추가 됨	움직임 요소의 적용에 따른 변형	운동성 있는 수업내용	중심현상
내 몸에 집중하고(start from individual) 그다음 내 주변을 관찰하고 그리고 타인하고 마주보는 과정, 처음부터 움직이게 하지 않음, 모두별 수업, solo-duet-group로 점진적 확장, 움직임 소스를 배우고 이 소스를 통합할 수 있는 수업 전개, 초기에는 경계 허물기를 함, 처음에 어떤 움직임이든 수용, 수업에 대해 마음 놓음, 수업 초기에는 큰 동작, 긴장 풀기, 몸코딩으로 낮은 단계 접촉(아어퀀테)부터 접근, 소스가 추가 되면서 동작들이 점진적으로 커짐, 단계별 접근(어색함 점차적 감소), 수업 초기 : 관계만든기, 자기 개방(오픈 마인드), 여러 가지 움직임 소스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이 소스를 스토리로 통합할 수 있는 것(ex 스토리 보드), 놀이(ex 얼음팽, 패턴 달리기, 복근 운동, 릴렉스 점프), 흥미유발 위해 처음에는 놀이로 접근, 끊임 없이 개발되는 놀이, 손잡고 큰 원 만들기	점진적·수업 흐름		
빙송댄스(유행댄스), 일상생활에서 동작 발견하기, 내가 늘 접촉하는 사는 것에서부터, 자기 몸이 소재,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동작 추출,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일상이 춤이 된다면, 방송 댄스 변형, 주제는 모두가 알고 흥미 있어 하는 것(ex 겨울왕국, 유행댄스 등)	학생중심의 소재선택		

개념	하위범주	범주	구분
<p>정형화된 움직임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 시도, 자기 신체로 가능한 움직임 찾기,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움직임의 시작,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찾으려고 여러형태로 시도, 소리를 움직임으로 표현, 무게중심 찾기, 여러 시도를 통해 움직임의 시작,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찾으려고 여러형태로 시도, 소리를 움직임으로 표현, 무게중심 있는지 계속 실험, 두 사람간의 가능성 찾기, 움직임 탐색을 위해 느린 속도로, 상대 힘에 반응하기 위한 탐색, 어느 정도 밀수 동작 시도, 나만의 고유한 움직임 발견, 다른 학생들 관찰 후 새로운 동작 시도, 기존 움직임의 재발견, 관찰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움직임 발견, 발견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자기 재발견</p>	<p>새로운 가능성의 발견</p>	<p>접촉중흥을 통한 관계맺기</p>	
<p>자기인의 느낌 스스로 찾아가기, 느리게 움직이기로 자기 움직임 관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 자기의 현재 몸에서 움직임 시작, 늘 접촉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나의 무게중심에서 시작, 내가 느끼는 자극 만큼 반응, 자기가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존중과 배려, 내 힘을 내가 아는데 중요, 원하는 방향으로 걷기, 그 순간 학생들이 정하는 것, 나는 휠체어에서 내려오고 싶다, 내가 주체적으로 찾을 리더 팔로워 스스로 찾아서 선택, 함께 난위로 조절, 자신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애너지.</p>	<p>자기로부터 시작</p>		
<p>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친구의 몸도 소중하게 여겨야 함, 상대가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계속 주고 받는 연습(반응 주고 받기), 나도 반응을 좋아하고 상대가 웰 하고 싶은 것지 알아 차리기도 해야함, 서로의 자극에 반응, 공통된 신체중심 찾기, 서로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접근, 돌 다 즐거워야 함, 알리고 노력해야함, 상대방향을 상처주지 않고 내 몸을 함께 출수 있는, 충분히 질때까지 계속, 몸으로 배려를 배우는 것, 내가 혼자 설수 있게끔,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 타인의 움직임과 반응을 이해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음, 신뢰가 생기면 내 몸을 던질 수가 있죠, 같이 만나서 같이 일어나는것을 존중, 상대 움직임에 집중, 같이 있는 경험 통해 다양성 체험, 반응에 대한 즉흥성, 자기인식을 기본으로 한 상호존중, 무작위 움직임에서 힘과 거리 조절(상호 조율성), 교감, 비언어적 교류, 대화체로 동작 주고 받기, 공간 나누기, 공동경험 나눔, 신체접촉을 통한 친밀감 증가, 장애학생 능력 존중, 소수에 대한 존중과 오픈마인드에 관한 이해교육, 리더-팔로, 가을, 다양한 능력 존중,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애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수용(수용과정이해)</p>	<p>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나</p>		
<p>기존방법 응용, 다양한 장르(미술, 음악)로 기존 방법 응용, 소수 장애학생 통합하기 위한 교사의 탄력적 수업 운영, 대상자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 사용, 수업환경에 따라 수업 방법 변형, 학생이 원하는 무지킬에서 접촉, 일인 학생이 결석했을 때 즉흥적으로 수업내용 변경함, 비틀어보기, 확장적 사고, 놀이는 끊임없이 개발됨, 그룹별로 다 틀려서 즉흥적으로 반응을 해야해요, 트랜스 듀서(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주는 것)를 사용, 사운드 아트 사용, 움직임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글쓰기 동작카드 사용, 추상적 그림 카드 제시, 움직임 카드의 무한 변형 가능, 스토리 보드 사용, 움직임 지도 만들기, 시청각 자료, 관련 동영상, CF, 접촉 개념(소중함) 설명 위해 인형 사용,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방송댄스 중 가장 쉬운 동작 찾기</p>	<p>교사의 유연한 수업 전개</p>	<p>창의적 교수 전략</p>	<p>중재적 전략</p>
	<p>시각적 수업 도구 사용</p>		

개념	하위범주	범주	구분
<p>물을 조금 주시면 좀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좀 더 쉬워짐, 가장 재미있게 놀러면 그 물 안에서 재미있게 놀아야 함, 학생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접촉촉흥 프레이밍 형성, 제한범위 설정으로 자유로움 유도, 질문만 제시(어떤 느낌? 무엇인지 같아?), 과제만 제시(구멍을 만들어보시오, 신체의 한부분으로 글을 써라), 간단한 제시 : 만나고 헤어진다, 소중함, 무게중심, 명확하고 단순한 과제제시, 키워드 중심으로 과제 제시(일상이 춤이 된다), 쉬운 동작, 큰동작, 단순한 동작을 예시로 보여줌</p>	<p>반구조화된 수업</p>		
<p>교사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의지가 우선, 장애인만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 보성미비 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도 그렇고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움직임이 그들에게 무엇일 수 있을까요, 다른 몸의 균형점을 갖고 있는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움직임,</p>	<p>장애학생의 능력을 존중하는 교사태도</p>	<p>교사의 열린태도</p>	
<p>민감해하지 않는 분위기, 정답을 제시하지 않음, 경청해서 보기, 다른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노력, 충분한 시간을 들어 관찰, 마음껏 움직여라 정답 같은건 없다,</p>	<p>수용적 분위기</p>		
<p>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끌어줘야 함, 어~ 되게 새로운 움직임이다, 자유롭게 움직일 때 칭찬 : 긍정적 강화, 장애학생의 장애가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관점 변화, 동작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도와주는 것, 스케폴딩, 새로운 동작 관찰과 피드백,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좋은거 잘하는거 발견해주는 것, 가치를 발견해 주는 사람, 변화 수용의 포인트를 찾아주는 사람,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부분을 끄집어냄, 움직임을 창발 할 수 있는 과제 제시</p>	<p>발견 피드백</p>		
<p>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교사 언어 게임,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부위들로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피드백, 다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사회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 제언, 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은연중 제시, 변형 가능성 제시, 접촉된 그 지점에 에너지와 마음을 전달 하세요, 사회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 제언("너희들도 주위를 이해해야 하니까."), 학생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던져줌.</p>	<p>제시적 피드백</p>	<p>끌어내는 교육</p>	
<p>교사가 직접 참여해서 시작점 열어줌, 행동의 시작과 끝을 이끔, 공간을 뛰어 다니며 참가자들의 움직임 촉진, 학생이 만든 물을 따라 교사도 함께 함, 연결고리로서 교사(잘 인텔 때는 교사가 즉흥으로 받아주면 연결되기도 함), 난 너희랑 같이 노는 사람, 흐름과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 참가자 참여를 동기화 시킬 수 있음, 같이 만들어야 하니까, 어색한 부분을 즉흥으로 연결해줌.</p>	<p>참여자로서의 교사</p>		
<p>잘 생각해봐... 팔꿈치로도 되지, 발목, 무릎으로도 되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열어 줌, 예는 최소로 함, 특이한 예를 보여 줌, 틀이 변형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런 것도 가능해, 도는 것도 가능해", 자기 생각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은 많이 안보줌</p>	<p>교사 모델링</p>		
<p>움직임 스킴 내용은 학생들이 만드는 것, 내가 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선택, 자기만의 움직임을 만들어 볼, 자유로운 역할 변형, 스스로가 게임물을 계속 만들, 나만의 답을 만들, 학생 참여 영역 확장, 학생의 자발성 및 창의력을</p>	<p>넓어진 학생참여영역</p>	<p>자발적 참여 촉진</p>	<p>작용/상호작용</p>

범주	구분
<p>개념</p> <p>위한 과제 특성은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이어야 함, 스토리 보드 만들(교사는 틀만 제시/학생은 내용인들), 가능성 열어 놓기, 학생들이 과제를 풀 수 있도록 함(창의적 문제해결능력, ex. 움직임 소스 단어들), 교사는 틀만 제시하고 내용은 학생들이 만들어 감, 우연한 해프닝에 규칙을 만들, 교사는 다양한 움직임 소스 제공, 선택할 수 있는 종류를 최대한 많이 제시, 학생들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 확장, 자기 수준에 맞춘 변형, 소재의 확장, 수업 컨텐츠의 다양한 활동, 공동의 목표 위해 쉬운 동작을 찾거나 변형 시키려는 노력, 유일한 너희들의 작품, 장애학생의 역할(ex 나무)</p> <p>아... 저 친구는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관찰해서 자기가 응용해서 움직여볼까?, 경청해서 보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춤추는 것, 관찰, 다양한 가지와 태도에 대한 수용, 수용이 되면 이후의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짐, 오픈마인드가 되면 다름을 수용 가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수용, (장애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이해, 아~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구나 (수용되는 경험), 과정을 통한 오픈 마인드, 점점 지속해 질 수록 마음을 열게 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인지, 적당한 신 유희(개인 공간 존중), 장애인 당사자의 오픈 마인드, 자각하는 신체개념의 긍정적인 변화; 다른 힘을 쓴다는 것에 대해 존중과 배려, 다른 사람의 무게를 받아 주기 위해서는 내 힘을 내기 아는 것이 중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 모습 수용, 민망해 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게 중요, 다양성 수용은 학생들에게 도전에 대한 자신감 고양 시키고 능동적 참여 촉진,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되고 수용, 스스로를 수용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소리치고 뛰어 다니기, 상처받지 않기, 뭐든 좋다, 반응이 없어도 좋다, 시행착오도 좋음, 정답을 제시하지 않음 이 소리도 음악이 된다.</p> <p>다른 것은 새로운 것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됨,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무엇일까?, 듣는 다는 것은 무엇일까(ex 사운드 아트, 청각장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학생들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도록,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스스로 질문함, 비장애학생의 인식변화, 동기유발 : 학생 스스로 의문을 갖게함, '어떻게'라는 고민, 이 주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움직임을 이들에게 무엇일 수 있는가?, 아름다움은 뭐고, 추한 것은 무엇이지?, 순수한 움직임이란 ?, 추상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고유성을 찾을 수 있게 됨, 내가 먼저 변화야 함,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청각장애학생에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장애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장애수준은 어디 있나? 기준은 어디 있는가?, 표현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 가는 것임, 다름은 과정은 다다른는 것, 장애 관계 기준이 없다.</p> <p>다양한 표현방법 수용, 다양한 가지와 태도에 대한 수용, 춤을 접하기 전에는 내 몸은 그냥 몸통아리, 오픈마인드가 되면 다름을 수용 가능, 상황수용, (장애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이해, 공동의 무게 중심에서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알게 모르게 체득 됨, 몸은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즉흥의 타이인 이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자기 인식 내면화, 개인 사이에 접촉이 발생 됨, 지면 만나다 보면 관찰아오,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다보면 타인의 시선에 대해 자유로워 저요, 같이 있는 경험을 통해 모두 같은 것임.</p>	<p>관점 변화의 시작</p> <p>결과</p>
<p>허위범주</p> <p>체화된 수용감 증진</p>	<p>다름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p> <p>나와 타인에 대한 수용</p>

2. 축코딩 :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1)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의 과정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신체표현활동의 유용성 경험’이며 중심현상은 ‘변형을 통한 다양한 표현’, ‘접촉즉흥으로 관계맺기’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은 ‘장애학생의 편차로 참여 힘들’이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중재적 조건은 ‘창의적 교수전략’과 ‘끌어내는 교육’이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발적 수용과 참여’로 결과는 ‘관점 변화의 시작’과 ‘장애학생의 참여’로 도출되었다.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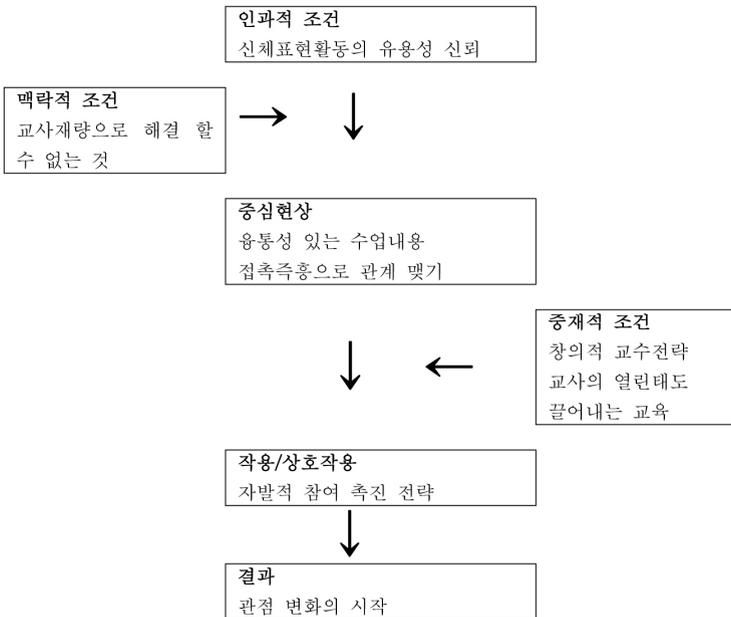


그림 1 | 패러다임 모형

2) 범주 분석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도록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다.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통합수업을 위한 신체표현활동의 유용성 신뢰'이고, 하위범주는 '신체와 정신은 하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이다. 참여교사들은 신체표현활동이 통합수업에 유용한 이유는 표현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장애학생은 수업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때로는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 보다 우수한 신체표현,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팀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와 정신은 하나라고 믿었다.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움직이다 보면 장애학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신체로 전달되는 감정이 언어보다 강력하다고 믿었다.

다른 교과에서는.... (중략).... 같이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나 하는 거는 드물어요. 그런데 체육이나 무용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참가자 4).

동물들이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자기를 미워하고 좋아하는걸 알잖아요. 그게 바로 스킨십이에요. (약하게 테이블을 치면서)이렇게 만지는거 하고, (꽹! 치면서)이렇게 만지는거 하고는 달라요. 자폐·아이들도 분명히 이걸 느껴요. 강도의 차이죠(참가자 3).

(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조건들이다.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은 '교사재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하위범주는 '장애의 편차', '미흡한 시설'이다. 참여교사들은 각 학급에 속해 있는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정도가 모두 제각각이며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장애학생의 돌발 행동이 심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실내 체육관, 무용실, 체육기구 등 교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 시설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도움반 학생의 수준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는 것만 하는 수준의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참여가 가능한 아이가 있고...(중략)...학교에서는 그런거(특수체육도구) 안 사주죠. 그거는 비싸기도 하고 쓰는 사람도 적으니까(참가자 4).

무용실이 없는 데는 엄청 많아요. 그냥 책상을 뒤로 밀어놓고 수업을 해요(참가자 5).

(3) 중심 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중심생각이나 사건들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과 ‘접촉즉흥(CI)을 통한 관계맺기’이다. 참여교사들은 수업 대상자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들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각 컨텐츠들의 내용은 상이 했지만 공통적으로 움직임 요소를 적용하여 움직임을 변형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을 촉진하고 장애학생을 포함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사용 되었다.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의 하위개념은 ‘움직임 요소의 적용에 따른 변형’, ‘점진적 수업흐름’, ‘학생중심의 소재선택’이다. ‘접촉즉흥(CI)으로 관계맺기’의 하위개념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자기로부터 시작’, ‘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남’이다.

①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

신체표현활동은 신체 움직임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신체 움직임은 이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움직임은 신체×시간×공간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며 어떤 움직임을 선택하고 구성하여 나열할 것인가에 따라 움직임

의 내용과 분위기는 달라진다. 변형은 학생들이 움직임 요소들을 자유롭게 변형하고 조합하여 움직임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교사들은 신체표현활동에서 움직임 요소들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창의적 변형을 이끌었다. 이 전략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움직임 요소의 변형은 음악에서 음표들이 적절히 조합해 곡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소들의 축적과 확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은 무한하다. 참여교사들은 움직임 요소 중 주로 신체부분, 높이, 크기, 속도, 에너지를 조합하여 움직임 변형을 이끌었다.

방향, 템포, 스페이싱, 무게, 높이, 이런 것들이 교사 스스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지 수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방향을 이렇게 배웠지만, 방향이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참가자 2).

모든 방법은 공통적으로 동작은 단순해요. 단순한 동작에 형태, 박자, 방향 등 다른 요소의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거죠. 네임덴스 하는 방법만 알았으면 여러 가지 (움직임 요소를 응용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참가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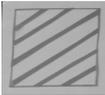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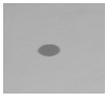
움직임 카드			
무게 움직임 높이	가볍다 위	중간 중간	무겁다 아래

그림 2 | 무게(weight) 움직임 카드 (참가자 5)

움직임 요소들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또 하나의 요소가 발견된다. 시각적 도구를 사용한 무게 변형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그림2>의 무게 카드를 제시한다. 이 카드로 무게

(weight)와 높낮이(level)가 함께 표현될 수 있다. 은 가벼운 느낌으로 신체 위치 중 위쪽을 사용하고, 은 중간으로 배꼽 위치를 사용하고, 은 무거운 느낌으로 신체 위치 중 아래쪽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무게를 움직임으로 표현한다면 은 팔을 아래쪽으로 늘어뜨려 천천히 터벅터벅 움직이고, 은 팔을 위쪽으로 번쩍 들어 흔들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은 팔을 허리 높이에서 좌우로 휘휘 저으며 움직일 수 있다. 이 무게 카드에 대한 움직임 탐색이 익숙해지면 아래 <그림3>에 제시한 움직임 경로(path way)가 조합될 수 있다.

움직임 카드				
움직임 경로	직선	곡선	지그재그	원

| 그림 3 | 움직임 경로 (pathway) 카드 (참가자 5)

두 종류의 움직임 카드의 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직선)와  (가벼움 : 높게)를 동시에 제시하면 학생들은 팔을 위로 들고 흔들면서 가볍게 직선으로 뛰어 할 수 있다. 여기에 방향(direction)요소가 첨가 되면 학생들은 위의 동작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시행한다. 참가 교사들은 신체 표현활동이 이러한 움직임 변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모든 학생은 ‘변형’이라는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협력 작업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형에서 장애학생들의 움직임은 ‘장애’라는 특별한(special) 움직임이 아니라 수많은 변형의 하나로 평범한(normal) 움직임이 될 수 있다.

follower는 leader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가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중략)... 서로 접촉을 받아가면서 방향, 힘의 세기, 속도 같은 것을 계속 변화 시키면서 대화체로 주고 받는거죠(참가자 1).

기본 동작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변형률(움직임 요소들)을 한번 언급을 해요. 기본률은 해야 하는 것, 변형률은 요것도 가능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대신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으니 그냥 일단 움직여 보는거죠(참가자 2).

참여교사들의 수업은 움직임 표현, 주제표현, 창작 작품 만들기 또는 1인무(solo), 2인무(duet), 군무(group)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였다. 참여교사들은 초기 관계형성 단계를 매우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초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표현활동과 CI가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신체가 접촉하였을 때는 타인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신체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몸이랑 몸이 닿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몸이 닿았을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앞으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게끔 가두기도 하고(참가자 1).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오픈마인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오픈마인드도 함께 강조하였다. 이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다름이 수용되었을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 오픈마인드의 필요성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는 놀이로 진행하였다. 참여 교사들이 사용 한 놀이(no3²)는 무궁화 꽃이 00 합니다, 몸으로 퀴즈, 얼음 땡, 거울 게임, 움직임, 몸으로 하는 007 뺑 이다. 놀이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모방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은 기본 규칙에 움직임 변형전략을 첨가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2 콘텐츠 명 뒤에 표기된 no는 부록에 개시된 콘텐츠 번호이다. 자세한 콘텐츠 내용은 번호에 맞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도록 하였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오픈 마인드, 관계 형성을 위해 수업 초반에는 서로 관계 허물기를 먼저 해요. 원으로 모여 소리지르기도 하고 서로 별명 불러주기 아님 내 별명 크게 얘기하기를 하면서...(중략)...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뛰어 다녀 봤지. 소리를 질러봤지. 처음 본 사람이랑 이렇게 미친 듯이 별명을 부르면서 ... 그리고 나면 조금 친해져요(참가자 2).

두 번째 단계는 전개단계로 움직임 요소 표현, 리듬표현, 주제표현을 배운다. 참여교사들은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를 통칭하여 움직임 소스라고 하였다. 움직임 소스들은 체육교과 내용체계에 <표6>와 같이 분류된다. 모두 움직임 변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범주 구분에 따라 중심 요소에 차이가 있다. 움직임 표현은 모양을 주로 변형하는 활동이고 리듬표현은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거나(바디 퍼커션) 기존 콘텐츠에 박자와 속도를 변형 시키는 활동이다. CI는 즉흥적 요소와 접촉(contact)을 주제로 하는 활동이다. 주제표현은 주어진 주제에 창작무용작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표 6 | 움직임 소스 범주별 수업 콘텐츠

범주	수업 콘텐츠 제목
움직임 표현	액션카드, 바디 터널 만들기, 신체로 글자 쓰기, 네임댄스, 구멍찾기, 모방 표현, 맛사지, 바디 스캔, 신체로 모형만들기, 포토탄스,
리듬 표현	바디 퍼커션, 중언부언, 꾸미기 체조, 인성 피라미드, 소리로 움직이기, 느리게 움직이기
접촉 즉흥	소중한 우리의 몸, 접촉즉흥, 지자랑 댄스, 소리지르기, 무작위 커뮤니케이션, 단계적 컨택, 주고받기, 자유즉흥, 가위바위보, 사람사, 조각상 만들기, 잘 만나고 잘 헤어지기, 몸으로 하는 도미노, 눈감고 감각체험, 어깨 몸 붙여서 떨어지지 않고 걷기, 감각주고 받기
주제 표현	지시댄스, 칼 군무댄스, 플랩심업, 심판댄스, 상상여행, 프레이즈 만들기

마지막은 창작 작품을 만드는 단계이다. 이전에 습득한 다양한 움직임 소스들을 통합하고 자유롭게 응용하는 단계이다. 학교 통합수업 현장에서는 종이에

직접 쓰거나 보드판을 만드는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콘텐츠는 움직임 지도 만들기, 스토리보드로 스토리텔링이 있었다. 학교 밖 수업에서는 상상 놀이, 자유로운 접촉즉흥, 프레이즈 만들기 같이 비 구조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② 접촉즉흥(CI)로 관계맺기

CI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상대와 함께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호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이다. CI은 상대방과 접촉점을 통해 체중을 주고 받으며, 무게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참여교사들은 CI을 놀이, 주제표현, 창작표현에서 표현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독립적 콘텐츠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CI에서 배려와 존중의 가치와 더불어 자존과 독립의 가치도 함께 강조하였다. 접촉즉흥으로 관계맺기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자기로부터 시작’, ‘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남’의 하위범주를 가진다.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란 새로운 움직임 시도해보고 자신의 움직임과 상대의 움직임을 탐구하여 합의된 무게 중심점(negotiated center point)을 발견하기 위해 반복되는 과정을 말한다. CI에서 ‘새로움’은 일상적인 동작을 수업에서 실행해봄으로써 재발견하게 되는 것,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신체부위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움직임,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움직임을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소리에 반응한 움직임, 촉각에 반응한 움직임 등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 움직임을 찾아간다. 즉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움직임을 찾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잘만나고 잘헤어지기(no.4)’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하는 일상적인 동작을 실시한다. 마주한 손바닥은 접촉점이 된다. 두 사람은 그 접촉점으로 서로 미는 힘을 주고 받으면서 무게 중심점을 찾는다. 하나의 접촉점이 익숙해지면 손가락과 손가락, 손바닥과 어깨, 발과 발, 발과 손 등 접촉부위를 바꾸면서 체중 전이가 가능한 새로운 접촉점을 찾는다. 뇌병변 장애인은 어깨, 등, 발, 몸통 등으로 비장애인과 접촉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천천히.....사람마다 만났을 때 사람마다 만나는 속도와 만나는 힘이 다 틀려요. 미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트너와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 셈이죠, 그게 또 접촉즉흥의 과정이구요....(중략)...이 사람이 나한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구나 내가 받아 줄 것인가. 아님 내가 이걸 밀어낼 것인가. 계속 두 사람이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찾아야지 재미 있거든요(참가자 2).

사람과 만나는 거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인사정도하고, 어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같이 밥먹고 차 마시고 하다보면 손 터치가 더 편안하게 생각되고...(참가자 1).

자기로부터 시작(initiation from one-self)이란 교사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체로 가능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다. 참여교사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유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개인의 고유한 움직임을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끌어내다’는 것과 ‘창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창작’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고, ‘이끌어내다’는 것은 나의 내적 반응을 외부로 발현시키는 것이다. 이 작업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만의 표현을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차이점 존중’, ‘신뢰’, ‘오픈 마인드’, ‘수용’의 가치를 체화시킬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움직임과 비장애인의 움직임에 대한 구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참여교사들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감각 느끼기(no.5)’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감각 느끼기’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타나는 모든 움직임을 수용 하였다.

그건 하기 나름이죠. 몸으로 해도 되고, 눈으로 해도 되고, 그건 다 달라요. 하다보면 마음이 오픈이 돼요. 마음이 오픈이 되면 그 영향이 몸에 까지 가요(참가자 3).

어 저는 사람에게 고유의 움직임은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유의 움직임을 본인만 모를뿐이지... 안 움직여봤던 사람들은 모를 뿐이지... 그 고유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순간 순간적인 즉흥적인 요소가 투입되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요(참가자 2).

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남이란 신체 자극을 주고받는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CI에서 움직임 작동 매커니즘은 자극과 반응을 '주고 받는' 것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참여 교사들은 처음에 놀이로 '주고 받는' 경험과 주고받으면서 움직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몸으로 도미노 게임(no.6)'과 '랜덤 접촉즉흥(no.7)'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참여교사들은 주고받을 때 상대를 조정하기 보다는 신체를 접촉하고 있는 동안 상대의 힘과 움직임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간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손가락 접촉(no.8)'을 실시한다. 이 콘텐츠의 기본 움직임은 두 사람이 손끝만 접촉하고 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팔로워가 움직이는 것이다. '어깨 붙혀서 떨어지지 않고 걷기(no.9)'에서는 두 사람이 어깨라는 접촉점에서 미는 힘으로 만났다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상대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가 주는 자극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상대 움직임을 배려해주어야 한다.

왜냐면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참가자 3).

그러니까 배려를 배울 수 있게끔 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의 배려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중략)...끊임없이 서로 계속 만나면서 중간 시점을 맞춰가는 건데, 중심점을 맞추면서 상대의 무게, 힘, 신체에 대해 경청하려고 그에 맞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소통이 되죠(참가자 2).

참여교사들은 ‘주고 받기’에서 자기신체중심 유지 역시 배려만큼 중요하다고 하였다. 무게를 받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변화를 잘 보조해 주는 것이다. 즉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움직임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도 자기 신체가 그 무게를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교사들은 이러한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이 나타남을 경험하였다.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전략을 만들어 내는 데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다. 본 연구에서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과 ‘CI을 통해 관계맺기’이라는 중심 현상을 촉진하여 ‘자발적인 수용과 참여’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주는 중재조건은 교수전략으로 ‘창의적 교수전략’, ‘교사의 열린태도’, ‘끌어내는 교육’이었다. ‘창의적 교수전략’의 하위개념은 ‘교사의 유연한 수업진개’, ‘시각적 수업도구 사용’, ‘반구조화된 수업’ 이고, ‘교사의 열린태도’는 ‘장애학생의 능력을 존중하는 교사 태도’와 ‘수용적 분위기’이며, ‘끌어내는 교육’의 하위개념은 ‘발견 피드백’, ‘제시적 피드백’, ‘참여자로서의 교사’, ‘개방적 교사 모델링’이다. 이러한 교수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① 창의적 교수전략

참가 교사들은 수업환경과 대상자에 따라 기존 콘텐츠를 응용하거나 내용을 학생의 요구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형은 교사가 사전에 준비하기도 하고 수업상황에 즉흥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타 장르(음악, 영화, 미술 등)의 기법을 응용하였으며 움직임 요소, 감정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움직임 카드, 관련 동영상 등 시각적 수업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최소 규칙, 명확한 상황 설

정, 간결한 과제 제시 등 규칙을 최소화 하였을 때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과제는 일상이 춤이 된다, 만나고 헤어진다, 무게중심 등과 같이 키워드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어떤 기법을 그대로 모든 수업에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중략)...청각장애학생들과 함께 했던게 '사운드 아트'였어요. 사운드 아트는 버려졌던 소음들이나 소리가 없는 사일런스 그런걸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몸의 움직임과 사운드 아트를 통해 소리를 찾는거죠(참가자 6).

놀이 개발을 엄청 했어요. 분필가져와서 바닥에 낙서도 하고 그 원에서 점프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옛날에 돈가스 같은 놀이도 하고(참가자 2).

② 교사의 열린 태도

참여 교사들은 장애와 다양성에 대한 교사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마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움직임을 개성으로 존중하였고 장애로 새로운 표현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뇌병변 장애인 교사는 장애 때문에 발이라는 표현 도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양성이 수용되는 수업 환경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신의 움직임이 용인되는 수용적인 수업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건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혹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 있을까?

.(중략)...몸이 틀리고, 휠체어를 타고 해서 생겨나는 몸의 균형점이 달라요. 그래서 움직임도 다르고. 저한테는 그게 새로운 몸의 움직임 언어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움직임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참가자 6).

교육이 바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인거죠...(중략)... 도리도리 해봐! 인간의 도를 깨닫고 이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만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을 다 보고 판단하기위해서 만든거다라고 말이죠(참가자 4).

뭔가가 안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 까지 오래 걸려요. 안에서 있다가 나올 때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못 기다려 주고 넘어가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다가 마는거지. 그래서 충분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다려줘야 해요(참가자 2).

③ 끌어내는 교육

본 연구에서 끌어내는 교육이란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움직임의 시도를 시도해 보도록 하여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가교사들은 수업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움직임을 발견해 주기도 하고 개방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위해 참가자로 수업에 직접 참가하기도 하였고 엉뚱한 동작을 예로 보여줌으로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개념은 발견 피드백, 제시적 피드백, 참여자로서의 교사, 교사 모델링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학생 스스로 그것을 수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발견 피드백과 제시적 피드백을 사용하였다. 정형화된 움직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움직임 실험을 시도 할 수 있도록 움직임 요소를 제안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즉흥 움직임에서 개성을 발견해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할 때는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등의 개방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사용하였을 때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표현활동은 학생에게 새로운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움직임의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관찰할 때 손가락질 하고 웃기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관찰해서 자기가 응용해서 움직여볼까? 하고 늘 얘기 해줘요...(중략)...‘어~ 되게 새로운 움직임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 이 친구는 다리가 불편한데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웃으면서 시작하다가도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참가자 5).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끌어줘야 되는거 거든요. 그거를 어.. 굳이 팔을 이렇게 하세요 다리를 요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움직임을 가두는 거니깐(참가자 2).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내내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춤을 주입시키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 주고, 발견해내는 방법들이 춤의 언어가 되게... 그래서 그거는 비장애인들이 움직이는 언어와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들어내고 싶었어요(참가자 6).

신체표현활동에서 교사는 선생님이 아니라 ‘함께 노는 사람’이다. 참여 교사들은 교사가 직접 참여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수업 역동성과 학생참여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참여자로 참여했을 때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빨리 일어났다고 하였다. 수업 참여자로 참여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학생들의 움직임을 촉진시키거나 흐름과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같이 해야죠. 난 너희들이랑 같이 노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디안밥 맞고. 그러면서 조금씩 경계가 무너졌던 기억이 있어요(참가자 1).

교사는 동작이나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모델링 전략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의 신체표현활동 수업에서 교사 모델링은 모방을 위한 규격화된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특이한 동작을 보여주거나, ‘동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움직임 소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어떠한 움직임도 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아무도 그걸 시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교사가 조금 더 열수 있게 ‘도는 것도 가능해’ 하고 다른 변형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참가자 2).

그때 직선도 가능하다고 보여주면, 학생들이 “어 요것도 가능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직선을 써요. 다른 변형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많이 사용하면 안되요. 학생들이 이 룰이 전부인줄 알고 그것만 하거든요(참가자 1).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부위들로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고 보여줘요. 애들이 손과 발만 인식하는데 엉덩이 가슴 옆구리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다고 보여 주는 거죠(참가자 5).

(5)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y)

작용/상호작용은 특정한 상황들 아래서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실행하여 거기에 대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변형을 통한 다양한 표현’과 ‘CI을 통한 관계 만들기’를 위해 사용 되는 전략은 ‘자발적 참여촉진 전략’이고 하위개념은 ‘넓어진 학생 참여영역’과 ‘체화(體化)된 수용감 증진’이다. 참여 교사들은 콘텐츠에서 학생이 규칙을 변형하고, 동작을 만들고, 좋아하는 소재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학생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확장 시켰다. 참여 교사들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체득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체화된 수용감을 위해 교사들은 콘텐츠

들을 2인무 또는 모듬으로 진행하였고 접촉즉흥의 형식을 사용 하였다. 교사들은 이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체화시켜 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여행가본 사람? 하고 상상 여행을 하는거예요...(중략)... 얼음 길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어 이제 눈이 안보이네’하면 또 서로 손을 잡게 되고.. 그렇게 나는 상황만 제시해주면 애들이 동작을 만들어요(참가자 2).

간단하게 제시해줘야 해요.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다 만드는 거죠. 나무 만드는 장면을 만든다고 하면 장애학생이 나무가 되고 다른 학생들은 가지가 되고 나무를 중심으로 모양을 만드는 식으로 어떻게든 과제를 만들려고 해요(참가자 4).

몸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지만...(중략)...수업을 진행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애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죠...(중략)..중요한건 애들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참가자 1).

(6) 결과(consequence)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이는 항상 예측이 가능하거나 의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Strauss&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신체표현활동 수업과정의 결과는 ‘관점 변화의 시작’으로 하위개념은 ‘다름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 ‘나와 타인에 대한 수용’로 나타났다.

① 다름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다른 각도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참여 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다른 움직임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을 이끌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였다. 참여교사들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도 수업 과정을 통해 장애와 장애학생 능력 그리고 움직임과 아름다움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는 ‘움직임은 장애 학생(인)에게 무엇일수 있는가?’,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추한 것은 무엇인가?’, ‘움직임이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의 움직임은 서로에게 무엇인가? 또는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장애란 무엇인가?’, ‘나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하게 된다.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래요...(중략)...장애인과 함께 춤을 추면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졌다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거죠(참가자 6).

춤 접하기 전에 내 몸은 그냥 몸이었다고 해요, 근데 춤을 추고 나서는 춤을 출 수 있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춤 수업을 찾아 다니시더라고요 (참가자 2).

② 나와 타인에 대한 수용

학생들은 자신의 동작이 수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구나’라고 스스로의 움직임을 수용 하게 된다. 참여교사들은 이 현상을 학생들의 다양해진 움직임, 표현의 자신감, 장애학생과 공간을 나눠 쓰는 정도, 장애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장애학생의 자기표현 정도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신체표현활동에서 나타나는 수용은 자기 수용에서 타인의 수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의 변화가 장애인들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참가자 6).

자기만의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적어도 춤 출 때는 그게 장애로 안오는거죠...(중략)...그런 과정을 통해 (뇌병변 장애인) 이제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춤을 춰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작업자로 들어온거죠(참가자 2).

3. 선택코딩 : 핵심범주의 도출과 정교화

1) 핵심 범주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선택코딩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데 근거이론 연구에서 핵심범주의 선택 기준은 다른 모든 범주들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자료에 자주 드러나야 하며, 범주들을 연결시키고 통합시켜야 하며 발전되는 설명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통합심체표현활동 실천전략에 관한 핵심범주는 유연한 교수전략과 창의적 변형이 가능한 콘텐츠이다. 참여교사들이 사용한 콘텐츠들은 학생들 스스로 움직임을 변형하여 동작을 창작할 수 있다. 참여교사들은 이러한 자유로운 움직임 변형과 접촉즉흥으로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을 촉진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하도록 이끌었고, 타인의 표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가치가 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장애학생의 움직임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으며, 장애인의 움직임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수 전략과 능동적 변형을 핵심 범주로 선택하게 되었다.

2) 과정분석

과정 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의 흐름과 구조적 조건에 따라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핵심범주 유연한 교수 전략과 창의적 변형이 가능한 콘텐츠는 수업의 흐름과 구조적 조건에 따라 ‘탐색(explore)’, ‘발견(discovery)’, ‘실험(experiment)’, 수용(accept)’의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탐색(explore)’단계로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탐색한다. 학생들은 직접 움직이면서 탐색하기도 하고,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탐색하기도 하며, 타인과 함께 움직이면서 탐색하기도 한다. 탐색 대상은 움직임 요소를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움직임이다. 이때 교사들은 탐색 범위 확장을 위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움직임 요소들을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 변형의 예를 보여주는 적극적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움직임을 수용하고 존중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발견(discovery)’단계로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한다. 장애학생에게도 비장애학생에게도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새로운 움직임은 자신의 신체를 출발점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작,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동작,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발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자신의 고유한 움직임 표현을 경험하면서 다른 움직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움직임을 발견해 주고,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서 개성과 강점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실험(experiment)’단계로 실험이란 발견한 움직임을 제시된 과제에 적용하거나, 상상력을 위해 무수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조율(negotiating)하는 과정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order for free)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 틀 안에서 능동적으로 변형 움직임을 창작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서서히 교사 개입은 최소로 하여 학생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역을 확장 시킨다. 네 번째는 ‘수용/변화의 시작’단계이다. 다름과 새로운 수용과 변형은 단기간에 일어나거나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수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함께 작업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난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비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그리고 교사들은 ‘움직임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다. 참가 교사들은 근본적 질문을 갖게 되는 이 단계를 수용/변화의 시작 단계라고 보았다.

3) 범주의 속성과 차원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교수전략과 창의적 변형이 가능한 콘텐츠’라는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을 정리하면 <표7>와 같다. 교사들은 교사재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서도 유연한 교수전략과 창의적 변형을 사용하여 신체표현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관점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재적 조건이 수반된 움직임 변형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통합신체활동표현 실천전략개발을 위해서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교사들의 교수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표 7】 신체표현활동 교사 수업경험의 실천전략

범주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신체표현활동의 유용성 신뢰	인식강도	강함 ↔ 약함
맥락적 조건	교사재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제한정도	큼 ↔ 작음
중심현상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	사용빈도	자주 ↔ 드물게
	접촉즉흥을 통한 관계맺기	강도	강함 ↔ 약함
중재적 조건	창의적 교수전략	사용빈도	자주 ↔ 드물게
	교사의 열린태도	강도	강함 ↔ 약함
	끌어내는 교육	사용빈도	자주 ↔ 드물게
작용/상호작용	자발적 참여 촉진 전략	강도	강함 ↔ 약함
결과	관점 변화의 시작	수준	높음 ↔ 낮음

4) 움직임 요소 변형 기본 프레임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신체표현활동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분석된 신체표현활동의 실천전략 핵심은 움직임의 창의적 변형이었다. 이 변형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장애학생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비장애학생들은 다름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 변형전략들을 종합하여 ‘움직임 변형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레임을 제안하기에 앞서 이 프레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신체든지 움직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므로 현장에서 이 프레임을 사용할 때 교사들은 프레임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수업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움직임은 움직임 요소에 따라 변하며, 창의적 변형은 움직임 요소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프레임은 움직임 요소를 독립요인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변하는 움직임을 종속요인으로 하여 여러 가지 독립요인이 개별적, 집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움직임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의 움직임이 무한한 만큼 움직임을 변형 하는 데는 독립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프레임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모든 변수를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프레임에서는 참여 교사들의 컨텐츠 분석을 바탕으로 쉽고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독립요인이 1개인 기본 변형과 독립요인 2개를 조합한 상호작용변형만 다루기로 한다. 프레임 설명에 앞서 대상자, 교사, 수업목적에 따라 요소들은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요인들의 수준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있어 이 스펙트럼을 모두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소, 최대값만 제시한다. 단 방향은 0~360에서 45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8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프레임 적용 시 교사들은 수준이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본 프레임에서 사용될 독립요인의 범위는〈표8〉과 같다.

표 8 | 독립요인의 범위

움직임 요인	차원 범위
속도(Speed)	느리게 ∞·빠르게
방향(Direction)	앞, 뒤, 오른쪽, 왼쪽, 앞뒤의 45도
크기(Size)	작게 ∞·크게
높낮이(Level)	낮게 ∞ 높게
힘(Weight)	약하게 ∞ 강하게
경로(pass way)	직선, 곡선, 원

본 연구는 통합신체표현활동을 위해 일반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종속요인인 움직임은 <표9>와 같이 현 체육교과과정에서 제시한 움직임 언어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대상자와 목적에 따라 움직임으로 통칭되는 모든 움직임이 종속요인에 해당됨을 밝힌다.

표 9 | 종속요인 1 : 움직임(Movement)

이동동작	비 이동 동작	조작적 동작
걷기(Walk)	뻗기(Stretching)	당기기(Pull)
기어가기(Creeping)	굽히기(Bending)	밀기(Push)
달리기(Run)	앉기(Sitting)	들어올리기(Lifting)
뛰기(Jumping)	떨기(Shaking)	치기(Striking)
뛰어넘기(Leaping)	회전하기(Turning)	
말뛰기(Galloping)	떨어지기(Falling)	
양감질(Hopping)	구르기(Rolling)	
	무게중심옮기기(Transferring weight)	
	균형 맞추기(Balancing)	

신체부분(Body part)요인은 관절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신체부분을 말한다. 체육교과과정에서 신체부분은 움직임 표현에 해당된다. 체육교과과정에서 신체부분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 분석 결과 현장에서 참여교사들은 교사들이 자세한 신체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창의적 변형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프레임에서는 참여교사들이 신체부분들

과 선행연구 결과 Kaufmann(2006)이 ‘Inclusive Creative Movement and Dance’에서 제시한 신체부분을 종합하여 신체부분(표10)을 제시한다.

표 10 | 종속변인 2 : 신체부분(Body part)

상(Upper)		중(Middle)	하(Lower)
머리	팔	등	다리
눈	어깨	가슴	무릎
코	팔꿈치	허리	발목
턱	손	엉덩이	발꿈치
귀	손가락	골반	발가락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움직임 변형 프레임은 <표11>와 같다. 이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기본 논리는 ‘움직임 변형에 대한 영향은 독립요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이다. 즉 움직임은 변수에 따라 변하며, 하나의 움직임에 적용하는 독립요인의 수가 많아 질수록 움직임은 다양해지고 변형의 범위는 넓어진다.

표 11 | 움직임 요소 변형 프레임

움직임 \ 속성	속도	방향	크기	높낮이	힘	경로
Movement	M1	M2	M3	M4	M5	M6
Body part	B1	B2	B3	B4	B5	B6

이 프레임의 일차 목적은 하나의 독립요인에 따라 움직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차 목적은 두 독립요인을 조합하여 동시에 적용함에 따라 움직임 변화가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움직임 변형은 독립요인을 몇 개로 하느냐, 얼마만큼의 독립요인 범주를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의 움직임은 독립요인들의 조합으로 발현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업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독립요인을 중심으로 변형을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변형 원리에 따른 변형과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형태로 하나의 독립변인에 따른 움직임 변형이다. 이를 1차

변형(basic variation)이라고 한다. 속성에 따라 movement × 속도, movement × 방향, movement × 크기, movement × 높낮이, movement × 힘, movement × 경로로 변형된다. M1부터 M6는 독립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걷기’라면 속도가 적용되어 M1은 느리게 걷기부터 빠르게 걷기까지 속도를 변화하여 걷는 것이 된다. 움직임이 ‘Push’라면 M5는 약하게 밀기부터 세게 밀기까지가 가능하다. B1부터 B6는 독립변인에 따라 신체부분을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 부분 ‘상체’에 속도가 적용되면 B1은 상체만 빠르게 움직이기, 느리게 움직이기가 될 수 있다. 신체부분 ‘오른쪽 팔’에 높낮이가 적용되면 B4는 오른쪽 팔을 높게 들거나 낮게 드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두 개의 독립요인의 조합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2가지 독립변인의 특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2가지 독립변수의 상호교차에 대한 움직임 변형을 상호작용변화(interaction variation)라고 한다. 상호작용변화란, 어떤 한 독립요인에 의한 움직임 변형에 다른 한 독립요인이 추가됨에 따라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다이나믹해지는 것을 말한다. 본 프레임에서 제시한 독립변인들을 조합하면 6×6으로 36개의 조합이 나타난다. 그 중 참여교사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합은 movement × (속도+방향), movement × (속도+크기), movement × (경로+방향), movement × (힘+높낮이) 등이다. 예를 들어 걷기에 속도(M1)와 방향(M5)을 변형 하면 오른쪽으로 걷다가 왼쪽으로 또는 뒤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또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빠르게 뛰기를 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은 무한하다. 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수업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무한성이 장애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통합현장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틀로 본 프레임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UDL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체표현활동 콘텐츠와 맥락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과 움직임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현장 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표현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6명과 2~3회 면접을 실시한 후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교사들의 신체표현활동 수업과정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는 ‘융통성 있는 교수전략과 창의적 변형이 가능한 콘텐츠’로 나타났다. 통합수업을 위한 실천전략은 콘텐츠가 가진 특성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재적 조건과 상호작용 조건들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교사들은 신체표현활동이 개인의 표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교사재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학생들의 편차와 미흡한 시설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장애의 편차’와 ‘미흡한 시설’은 맥락적 조건에 해당되며 이는 교사들이 신체표현활동 시 다양한 변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조건 된다. 신체표현활동 수업과정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과 ‘접촉즉흥(CI)를 통한 관계맺기’ 중심전략은 학생들이 체화된 수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참여영역을 넓혀 능동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열린태도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자가 선호하는 소재를 선택하고,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발견·제시 피드백, 교사참여, 가능성 모델링 등 적극적인 중재적 전략을 사용하여 작용/상호작용전략의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작용/상호작용전략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에 따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도 ‘장애’와 ‘다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점은 UDL 학습 설계원리 지침들이 실

현되고 있는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연한 교수전략이다. 이 전략들은 UDL 원리에서 요구하는 지침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수전략의 결과를 UDL의 원리와 연관시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심현상에서 나타난 ‘융통성 있는 수업내용’과 ‘접촉즉흥(CI)을 통한 관계맺기’는 UDL 원리 2 ‘학습표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 제공’의 요구를 충족하여 지침 4,5,6³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습 수단이 될 수 있다. 움직임 요소의 적용에 따른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은 개인의 신체적 능력과 개성에 따라 학생들이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인의 표현 방식을 허용하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변형은 학생들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므로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중재적 전략에서 나타난 교사의 열린 태도, 끌어내는 교육은 UDL 원리 3 ‘학습·유지 참여를 위한 다양한 수단 제공’의 지침 7,8⁴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교사의 열린태도는 장애 학생의 ‘장애’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움직임을 또 다른 표현의 한 방법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끌어내는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발현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3) 창의적 교수전략은 원리1 ‘교수자료설명을 위한 다양한 수단 제공’의 지침 1,2,3⁵과 원리3의 지침9⁶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전략이다. 창의적 교수전략은 대상자에 맞게 기존의 콘텐츠들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타 장르의 기법들을 응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인지적 지원과 다양한 접근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 장벽을 낮춘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요약해보면

-
- 3 지침 4 : 신체적 제약 없이 학습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제공, 지침 5 :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별학생에게 적합한 표현 방식을 허용, 지침 6 :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CAST, 2008).
 - 4 지침 7 : 흥미를 갖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자양한 전략 적용, 지침 8 :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적 지원 제공(CAST, 2008).
 - 5 지침 1 : 인지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 지침 2 : 글이나 상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 지침 3 :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
 - 6 지침 9 :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적 지원을 제공(CAST, 2008).

UDL 실천전략은 콘텐츠가 원리 2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은 원리 1, 원리 3의 전략으로 학생들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즉 UDL 실현을 위한 교수 전략은 독립적인 한 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UDL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UDL 현장 적용 전략이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회 제공이라는 선행연구(손지영 & 김동일, 2010)와 내용상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창의적 변형이 가능한 콘텐츠이다. 콘텐츠는 참여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움직임 변형 기본 프레임과 참여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접촉즉흥(CI) 콘텐츠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콘텐츠들은 움직임 변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강조했듯이 장애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창의성 함양,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 통합신체표현활동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콘텐츠 분석범위는 움직임 요소, 무용, 게임, 움직임 변형, 접촉즉흥(CI)이다. 이는 움직임 변형과 파트너링을 통합신체표현활동의 핵심전략으로 제한한 2013, 2014년 VAS 결과와 움직임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을 제시한 Kaufmann(2006)과 유사한 분석 범위를 갖는다. 움직임 변형 프레임 내용은 통합교육의 일반교육과정적용을 위해 현 교육부가 제시하는 체육교육교과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형식은 사용의 유용성을 위해 매트릭스로 제시되었다. 이 매트릭스는 '움직임 변형은 움직임 요소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를 전제로 움직임 요소(속도, 방향, 크기, 높낮이, 힘, 경로)는 독립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변하는 움직임은 종속요인이 된다. 독립요인들은 보편적인 움직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교사들도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쉽게 신체표현활동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움직임은 체육교과는 물론이고 과학(Kim, 1995), 수학(Pica, 2006), 언어(Smith, 2002); (Pica, 2006)등 타 교과에서도 UDL 실천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프레임은 모든 과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접촉즉흥(CI)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를 제시하였다. 접촉즉흥은 신체 접촉을 통해 서로의 무게중심을 주고받는 것이다(Lepkoff, 1997).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참여교사들은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접촉즉흥의 개념에 더 초점을 두고 게임 및 놀이의 형식으로 접촉즉흥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록〉에 제시하고 있는 접촉즉흥 콘텐츠들은 교육현장에서 게임과 놀이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통합신체표현활동 교사들의 경험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통합교육현장에서 신체표현활동을 사용하는 교사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는 중등학교에서는 무용수업의 시수가 현격히 적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연구 참여자 표집 시 이론적 포화를 염두 하면서 통합신체표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3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표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3명으로 모집하였으나 표집수가 적어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통합신체표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수를 확보한다면 더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 과정에서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분석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미흡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도출 시 자료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과정이 미흡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정교한 이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업 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경험 정보를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학생 관점에서의 보편적 학습 설계의 적용과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실효성 높은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5).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1].
- 김혜란 (2003). 미국 초·중·고교 교사들의 통합 교육에 대한 태도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8(1), 143-160.
- 강은주 (2006). 창작무용 활동이 발달장애아의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8(-), 147-162.
- 권아름 (2013). 접촉즉흥에 내포된 소통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권혜영, 서지혜 (2010).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청각장애아동의 평형성과 신체균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韓國舞踊教育學會誌, 21(1), 47-63.
- 김나영, 장경호 (2008).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신체표현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6(2), 25-44.
- 김동일, 손지영, 윤순경 (2008). e-러닝에서 보편적 설계의 적용에 대한 사용성 평가, 9(2), 97-127.
- 김번영, 박승희 (2007). 통합학급에서 교수적 수정 중재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수업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2(1), 19-49.
- 노석준 (2006). 보편적 설계 원리의 교수.학습에의 적용: 보편적 학습 설계. 제11회 이화특수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17-27.
- 박일지, 박현숙 (2007). 특수학교에서의 역통합 무용활동 프로그램이 비장애 중학생의 사회적인식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3), 645-667.
- 박영균 (2004). 장애아동 통합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6(2), 245-267.
- 박주연 (2009). 통합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과 원리 탐색, 지적장애연구, 11(1), 237-253.
- 손지영, 김동일 (2010).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연구의 적용 전략 및 효과성 고찰.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1(1), 385-411.
- 송현주 (2013). 무용동작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신경림, 김미영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엄진명, 이필상 (2012). 신체표현활동을 이용한 노래부르기가 정신지체아동의 어휘 습

- 특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2), 31-48.
- 윤광보, 김용욱, 권혁철 (2002). 장애학생의 학습을 위한 보편적 설계의 실행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7(3), 263-282.
- 윤미정 (2005). 소매틱 차원에서 본 접촉즉흥무용의 의미와 기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재원, 김영진, 박승재, 김권일 (2012). 통합체육수업에서의 교수적 수정 중재가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행동,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2), 87-106.
- 이정은, 엽명숙 (2011). 통합학교 중등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 비교. 특수교육, 10(1), 283-304.
- 정주영, 신현기 (2001). 경도 장애 초등학교의 통합교육 방법으로서 교수적합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정서·학습장애연구, 17(2), 251-283.
- 조미혜 (2011). 2011개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창의·인성 중심 교육과정. 2011 체육교육 한마당, 80-109.
- 최신실, 박승희 (2001).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원격 학급 일반교사의 지원요구. 초등교육연구, 14(2), 319-347.
- 황현주, 박승희 (2006). 일반초등학교의 통합교육 실행에서 학교관리자의 역할. 정서·행동장애연구, 22(4), 47-79.
- Alessi, A. (1997). Dance with different needs. *In Contact Quarterly's Contact Improvisation's Source book*, 146p.
- Benjamin, A. (2013). Making an entrance: theory and practice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dancers: Routledge.
- Block, B., & Kane, N. (2008). Normalization and socialization processes for persons with severe cerebral palsy. *National Dance Association Proceedings*.
- Block, M. E. (2007). A teacher's guide to inclu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neral physical education: ERIC.
- CAST (2008).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guidelines version 1.0*. Wakefield, MA: Author.
- Catterall, J. (2009). Doing well and doing good by doing art: *A 12-year longitudinal study of arts education-effects on the achievements and values of young adults*. CA: I-Group Books.
- Deasy, R. J. (2002). *Critical links: Learning in the arts and student achievement and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DC: AEP.

- Garderen, D., & Whittaker, C. (2006). Planning differentiated, multicultural instruction for secondary inclusive classroom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8(3), 12-20.
- Hillier, A. J., Greher, G., Poto, N., & Dougherty, M. (2011). Positive outcomes following participation in a music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on the autism spectrum. *Psychology of Music*.
- Kaltenbrunner, T. (1998). *Contact improvisation: moving, dancing, interaction: with an introduction to new dance: Meyer & Meyer Verlag.*
- Kaufmann, K. A. (2006). *Inclusive creative movement and dance: Human Kinetics.*
- Keriac. (1997). Different directions in contact. *In Contact Quarterly's Contact Improvisation's Source book*, 63-64p.
- Kim, K. (1995). Moving to Learn. *Instructor*, 104(8), 66-69.
- Kortering, L. L., McClannon, T. W., & Braziel, P. M. (2008).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 look at what algebra and biology students with and without high incidence conditions are saying.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9(6), 352-363.
- Lepkoff, D. (1997). Contact Improvisation: An Issue of Definition. *In Contact Quarterly*, 29, 64-65.
- Lieberman, L. J., Lytle, R. K., Clarcq, J. A. (2008). Getting it right from the start: Employing th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pproach to your curriculum.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79(2), 32-39.
- Novack, C. J. (1990). *Sharing the dance: Contact improvisation and American culture: Univ of Wisconsin Press.*
- Malley, S. M., & Silverstein, L. B. (in press). (2012). 2012 VSA Examining the intersection of arts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 McGuire-Schwartz, M. E., & Arndt, J. S. (2007). Transforming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from college classroom to early childhood classroom.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8(2), 127-139.
- Meo, G. (2008). Curriculum planning for all learners: Applying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UDL) to a high school reading comprehension program.

- Preventing School Failure, 52(2), 21-30.
- Pace, D., & Schwartz, D. (2008). Accessibility in post secondary education: Application of UDL to college curriculum. *US-China Education Review*, 5(12), 20-26.
- Paxton, S. (1997). The small dance. *In Contact Quarterly's Contact Improvisation's Source book*(23).
- Pica, R. (2006). Learning in leaps and bounds. *Teaching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7(3), 31-34.
- Richards, L., & Finnan, K. (1997). In Contact with special needs. *Contact Quarterly's Contact Improvisation's Source book*.
- Rose, D. (2001).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16(4), 64.
- Rose, D. H., & Meyer, A. (2002). Teaching every student in the digital ag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ERIC.
- Scott, S. S., McGuire, J. M., & Shaw, S. F. (2003). Universal design for instruction a new paradigm for adult instruc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4(6), 369-379.
- Sharon, M. (2012). The Intersection of Arts and Special Education. Exemplary Programs and Approaches.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 5-9p.
- Sherrill, C. (1998). *Adapted physical activity, recreation and sport: Cross disciplinary and lifespan*: ERIC.
- Seham (2012). The Intersection of Arts and Special Education. Exemplary Programs and Approaches, *Dance partners: A model of inclusive arts education for children and teens with different abilities*.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 81-100.
- Skoning, S. (2010). Dancing the curriculum. *Kappa Delta Pi Record*, 46(4), 170-174.
- Slininger, D., Sherrill, C., & Jankowski, C. M. (2010). Children's attitudes toward peers with severe disabilities: Revisiting contact theory. *APAQ*, 17(2).
- Smith, K. L. (2002). Dancing in the Forest: Narrative Writing through Dance. *Young Children*, 57(2), 90-94.
- Str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Newbury Park, London: Sega.
- Tomasic, M. (2013). 2013 VAS Intersections: Arts and Special Education, Exemplary Programs and Approaches, *Developing curricular and assessment tools for the physically integrated dance class*,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 182-201.
- Tortora, S. (2005). *The Dancing Dialogue: Using the Communicative Power of Movement with Young Children*: ERIC.
- Whatley, S. (2007). Dance and disability: the dancer, the viewer and the presumption of difference. *Research in Dance Education*, 8(1), 5-25.
- Zitomer, M. R., & Reid, G. (2011). To be or not to be-able to dance: Integrated dance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dance ability and disability.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2(2), 137-156.

부록 신체표현활동 및 접촉즉흥 콘텐츠

1. 움직임 표현 > 신체로 글자 쓰기, 네임 댄스

- 1) 수업 목표 : 신체를 부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2) 활동 :
 - (1) 신체의 한 부위로 글자를 쓴다.
 - (2) 교사는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이름쓰기, 조이름 쓰기, 작품 제목 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예) 머리로 이름 쓰기, 팔꿈치로 조이름 쓰기, 엉덩이로 제목쓰기

2. 리듬표현 > 변형 유행댄스

- 1) 수업 목표 : 기존 유행댄스에 속도를 변형 한다. 3개 변형을 첨가하여 창작 작품을 만들어 본다.
- 2) 활동 :
 - (1) 복잡한 동작을 단순화 시켜본다.
 - (2) 느린 박자로 동작을 시행해본다.
 - (3) 유행댄스 기존음악을 느린 음악으로 바꿔본다.
- 3) 변형 :
 - (1) 움직임 요소를 첨가한다.
 - 유행댄스 동작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동작 높낮이를 바꾼다.
 - 유행댄스 동작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방향을 바꾼다.

속성 \ 동작	동작	속도	동작 높낮이	방향
방승댄스		느린음악	낮게<--> 높게	앞<--> 뒤

- (2) 작품창작 시 접촉즉흥 미션을 첨가한다.
예 1) 창작 작품을 만들 때 신체접촉을 2번 첨가하세요.

예 2) 우연히 두 사람의 시선이 접촉하는 부분에서 교실 반바퀴를 뛰세요.

3. 놀이

1) 얼음 땡 > 움직임 인식, 모양 인식

- 규칙 : 멈추기(얼음)에 주제에 맞는 동작 모양을 만든다.
- 즉흥적 반응 향상
- 동작은 상황, 운동 종류 등 주제와 관련된 특징적 모양을 취한다.
예) 얼음 : 동작 모양, 야구, 축구, 야구

2) 무궁화 꽃 00 합니다. > 모양 인식

- 규칙 : 00에 알맞은 동작을 실시한다.
- 무궁화 꽃이 (농구, 수영, 커피, 무용 등) 합니다.
- 걸어오다가 00(예, 농구)하는 동작으로 멈춤

3) 몸으로 퀴즈

- 규칙 : 몸으로 설명하고 알아 맞추기

4) 몸으로 하는 007빵

- 규칙 : 0, 0, 7, 빵은 사람을 지목, 빵에 지목된 오른쪽, 왼쪽 사람은 으악 소리와 함께 만세 동작을 한다. 틀린 사람은 벌칙을 수행하고, 다음 '으악' 동작을 만들 수 있다.
- 학생들이 게임규칙을 변형 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변형 : "만세" 동작을 다른 동작으로 변형 시킨다.
예) 점프, 누웠다 일어나기, 벽짚고 오기, 제자리 돌기 등

4. 접촉즉흥 > 잘만나고 잘헤어지기

1) 수업 목표 : 신체를 접촉하고 미는 힘을 주고받으면서 무게중심을 찾아 간다.

2) 활동 :

- (1) 만남 : 두 사람이 신체지점을 접촉하고 서로 밀어준다.
- (2) 무게중심 찾기 : 점점을 중심으로 미는 힘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무게중심

을 찾는다.

(3) 무게중심 유지

(4) 헤어짐 : 천천히 접촉부분을 밀면서 떨어진다.



| 그림 4 | 신체접촉지점

5. 접촉즉흥 > 눈감고 감각체험

1) 수업 목표 : 감각자극에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반응하는 사람은 자각한 에너지 크기 만큼 반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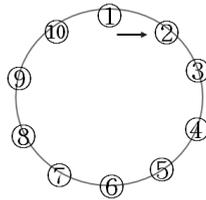
2) 활동 : 학생 1은 자극을 주는 사람이고 학생 2는 반응하는 사람이다.

| 표 12 | 감각체험하기

자극	반응		
바람 불기	① 2는 눈을 감고 있고, 1은 2의 신체 한 부분에 입으로 바람을 분다 ② 2는 자각하는 힘(에너지)만큼 움직인다. ③ 1은 바람의 세기를 조절 할 수 있다.		
터치 하기	① 2는 눈을 감고 있고, 1은 2의 신체에 접촉한다. ② 2는 자각되는 힘 만큼 움직인다. ③ 1은 접촉하는 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다.		

6. 접촉즉흥 > 몸으로 하는 도미노

- 1) 수업 목표 :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다.
- 2) 활동 : 기본 도미노 순서를 바탕으로 박수, 팔꿈치, 투명공, 동작 등 다양한 변형 활동을 실시한다.
기본 도미노가 익숙해지고 나면 순서를 바꿔 랜덤 접촉즉흥(no.7)을 실시한다.
순서는 1을 시작 지점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간다



| 그림 5 | 기본 도미노

(1) 박수 도미노

- 기본 : 1은 2에게 박수를 친다. 2는 3에게 박수를 친다. 기본 도미노 방향으로 진행한다.
- 변형 : 1과 2가 동시에 박수를 칠 수 있도록 한다.
1은 2와 동시에 박수를 칠 수 있도록 천천히 박수를 치고, 2는 1의 속도에 맞춰 박수친다. 1과 2는 동시에 박수를 치게 된다.

(2) 팔꿈치 도미노

- 기본 : 1은 2를 향해 팔꿈치를 민다. 2는 3를 향해 팔꿈치를 민다. 기본 도미노 방향으로 진행한다.
- 변형 : 신체 부위 한곳(예, 머리, 입, 다리)로 도미노를 진행한다.

(3) 동작 도미노

- 기본 : 1은 2를 향해 동작(예, 만세, 점프, 구르기 등)을 한다. 2는 같은 동작을 반복한 후, 원하는 동작을 3을 향해 한다. 기본 도미노 방향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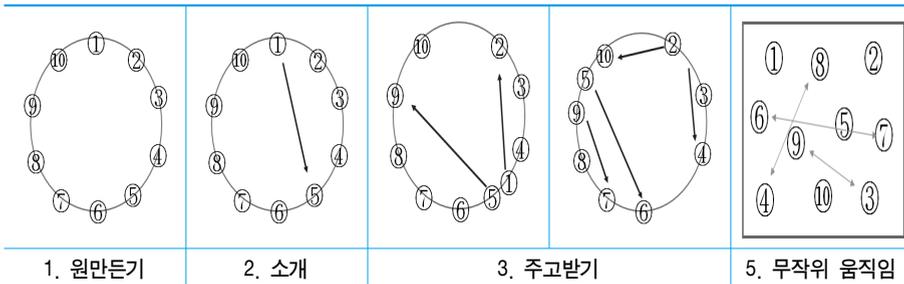
- 변형 : 비순차적으로 동작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동작을 전달한다. (무작위로 동작을 전달 한다.), 1은 5에게 동작을 전달 하고 제자리로 온다. 5는 9에게 동작을 전달하고 제자리로 온다.

7. 접촉즉흥 > 랜덤 접촉즉흥

- 1) 수업 목표 : 즉흥적으로 동작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활동 : 무작위(Random) 움직임으로 서로 이름과 동작을 주고 받다가, 서서히 한 명씩 바닥에 눕는다.
 무작위 형식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즉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성이다. 처음 실시할 때는 도미노 형식(no.6)에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 (1) 자신의 이름에 알맞은 동작을 정한다.
 - (2) 원 대형(no.6)에서 시계방향으로 이름을 말하면서 동작을 전달한다.
 - (3) 랜덤으로 이름을 주고 받는다.
 - (4) 자연스럽게 무작위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과 이름을 주고 받는다.
 - (5) 자발적으로 바닥에 누으면서 정리한다.

* 무작위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교사는 “만약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닥 에 누으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 (6) 모두 바닥에 눕게 되면 교사는 서서히 숨고르기를 실시한다.



| 그림 6 | 랜덤 이름 주고 받기

- 3) 변형 : 몸으로 하는 가위, 바위, 보
- 쉬운 동작으로 가위, 바위, 보 동작을 정한다.
 - 무작위 움직임 형태로 움직인다.
 - 우연히 만나게 되면 가위, 바위, 보 동작 중 하나를 실시 한다.
 - 같은 동작이 나오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
 - 다른 동작이 나오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간다.
 - 처음에는 교사의 신호에 맞춰 하다가 점점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8. 접촉즉흥 > 손가락 접촉

- 1) 수업 목표 : 파트너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지는 자신의 움직임을 느껴본다.
- 2) 활동 : Follower(F)는 눈을 감고 Leader(L)의 접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leader는 follower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서로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도록 10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7 | 손가락 접촉

9. 접촉즉흥 > 어깨 붙여서 떨어지지 않고 걷기

- 1) 수업 목표 : 상대방의 움직임을 느끼고 함께 움직인다.
- 2) 활동 : 신체 접촉지점이 떨어지지 않도록 움직인다. 서로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반응하면서) 움직인다.



1. 접촉하고 접촉점으로 힘주고 받기



2. 힘주고 받으면서 걷기

| 그림 8 | 떨어지지 않고 걷기

10. 접촉즉흥 > 사람 사(인)

- 1) 수업 목표 : 서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주고받으면서 중심점을 찾는다.
- 2) 활동 : 접등을 맞대고 접촉점 쪽으로 민다. 상대방과 미는 힘을 주고받으면서 중심점을 찾아본다. 중심점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의 지속 시킨다.

- (1) 접촉
- (2) 접촉점 쪽으로 미는 힘을 작용하면서 중심점을 찾는다.
- (3) 중심점을 변형시키면서 움직임으로 변형 시킨다.
- (4) 다양한 접촉즉흥



1. 접촉하기



2. 미는 힘 주고받기



3. 중심점 변형



4. 다양한 접촉즉흥

| 그림 9 | 미는힘 접촉 : 사람 사(인)

3) 변형 :

(1) 같은 방법으로 손을 잡고 당기는 힘으로 중심점을 찾아본다.



1. 당기면서 중심점 찾기

2. 중심점 유지하면서 다양한 위치 변형

| 그림 10 | 당기는 힘 접촉

11. 리듬표현 > 소리로 움직이기

1) 수업 목표 : 소리에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2) 활동 :

소리를 먼저 내고 이에 맞는 움직임을 찾아 소리와 움직임을 연합시켜보는 활동이다. 혼자서도 실시하거나 모둠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변형으로는 속도와 리듬을 변형할 수 있다. 장애학생과는 모둠형식에서 장애학생의 소리에 다른 학생이 움직임이거나 장애학생의 움직임에 알맞은 소리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

(1) 소리에 움직임으로 반응

: 자신이 내는 소리에 어울리는 움직임을 찾아본다.

: 소리 내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누어 실시해 본다.

예)

소리	움직임	소리	움직임
아~~	기지개 펴기	어~~	발구르기
슈류룩~	팔 휘젓기	히 하 ~	달리기
훅	점프	뚝, 압!	멈추기

(2) 변형

소리에 빠르기(느리게<->빠르게), 소리크기(작게<->크게), 액센트(약<->강)의 변화를 시도해 본다.

(3) 여러 가지 소리를 연결 시켜 움직임 프레이즈를 만들어 본다.

: 모듬원 각각의 소리 움직임을 연결시킬 수 있다.

: 소리에 맞추어 모듬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소리	슈르륵	훅	어~	히 하~
움직임	팔 휘젓기	점프	발 구르기	달리기

연구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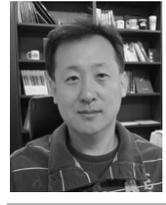
정 희 정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용 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부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건강운동과학 전공에서 특수체육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FUN& KICK이라는 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교육 교수 전략을 연구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현장과 연구의 거리(Gap)를 줄이고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후기

연구를 끝내며

장애학생들이나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임과 동시에 상처를 주는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전에 비해 장애를 ‘다름’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체감하는 차별과 그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다. 실제로 장애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앞에서는 친절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포레들의 태도에서 장애학생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장애를 ‘다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애학생들이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위와 같은 고민은 물론 우리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근거한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of Learning)이다. 수요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설계. 현재 장애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에는 안정맞춤인 개념이고 이론이다. 다음의 문제는 이 멋진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 시킬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지점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보편적 학습 설계를 실현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보편적 학습을 실현 시킬 가장 보편적인 도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 연구팀이 내놓은 답은 ‘신체 움직임’이었다. 신체 움직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며 동시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므로 개별적이다.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신체 움직임에 있어 동등한 전제하에 개인의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신체활동은 UDL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질문 ‘그래서 어떻게?’ 여러 신체 활동

중 신체 움직임의 보편성과 개별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체표현활동’으로 범위를 좁히고 한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신체표현활동 콘텐츠 중 ‘접촉즉흥’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포커스를 맞추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팀의 핵심은 개념과 이론을 넘어 ‘실천전략’을 수립하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체표현활동으로 접촉즉흥을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고 수업을 참관하여 관찰을 하였다. 교사들의 수업 경험을 인터뷰 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우리 연구팀이 깨달은 것은 콘텐츠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마인드 그리고 그 마인드에서 나오는 교수 전략들이 하나의 큰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장애학생들의 장애를 그 사람의 개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움직임을 발견해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의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자존감을 고취해 나갔다. 이런 교수전략은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사들의 이러한 마인드와 수업 경험들을 들으며 우리는 연구를 떠나 너무나도 큰 가르침을 받았다. 가장 큰 울림은 준 말은 이것이다.

‘가능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발견만 해주면 되요.’

어쩌면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리고 싶은 간절함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성을 지나 다시 연구로 돌아와 본 연구팀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것을 어떻게 문자화 시켜 보다 많은 교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까하는 것이었다. 근거이론 방법을 바탕으로 모든 문장과 단어를 분리하여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여 경험에 따른 교수전략과 콘텐츠를 분리하고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교사들도 교육적 도구로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움직임 기본 요소들을 매트리스화 시켰다. 숫자로 측정 할 수 없는 무형의 데이터인 움직임과 교수전략을 데이터로 만든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

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터뷰에서 만난 훌륭한 교사들의 교수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장애학생들의 상처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낮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연구를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작은 성과이지만 모두를 위한 진정한 통합교육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구진행 중의 에피소드

본 연구는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인터뷰 결과를 열어보았을 때 교수 전략과 수업 콘텐츠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존재하였다. 전략만 분리를 하자니 콘텐츠 언급이 없으면 안되고, 반대로 콘텐츠만 언급을 하자니 그 전략으로 인해 콘텐츠가 작동하게 되고 정말 난감했다. 전략과 콘텐츠를 어떻게 정리하고 논의하여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연구 진행 중 가장 큰 에피소드였다. 연구방법 수정에 대한 논의, 연구 목적의 상실, 연구 방향의 전환 등 궁극적인 연구 기틀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재해석’에 대해

연구 주제를 찾거나 연구 과제를 하다보면 사실 ‘장애’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장애에 관련된 당면 문제들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주제는 장애 관련 연구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속 깊숙이 밀어놓은 숙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주제로 던져주기 전에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장애의 재해석’을 주제로 논문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그 숙제를 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논문지원사업 지원자에게 전하는 말

이 지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문의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내가 속해 있는 전공에서 벗어나 제 3자가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논문지원사업의 논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에서 혹은 현장에서 개인이 발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너무 익숙해져 있을 수 있는 ‘장애’라는 분야에서 한 걸음 나와 다시 한번 이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지원자들이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지수 자문교수님께 전하는 감사인사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이지수 교수님께서서는 첫 만남에서 ‘나도 체육이 익숙한 분야는 아니지만 이 방법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심이 가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함께 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모두 체육을 전공한 우리 팀에는 장애인의 현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체육 비전공자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우리 전략을 평가해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지수 자문교수님과의 만남은 연구의 자문을 넘어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만난 첫 자문회의에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연구들을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연결점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문회의 외에도 결과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봐 주시고 2시간이 넘는 전화 통화로 보완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자문은 물론이고 누군가 정리되지 않는 결과를 귀기울여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무언가를 발견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 내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자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4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정은, 조태흥

자문위원 :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은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조태홍 | 대전 새날장애인이룸센터장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그 동안 장애인을 돌봄의 의존적인 수혜자로 바라보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상호 돌봄과 공존”의 주제로서의 실제와 특성을 탐색하고, 장애인 돌봄에 관한 균형적인 관점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성인장애인의 상호 돌봄과 공존”의 핵심적 체계로 가족을 주목하면서 19세 이상의 성인장애인과 그 가족을 짝(dyad)으로 하여 일대일 대면의 서베이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최종 성인장애인과 가족 각각 90명씩 총 18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의 “상호 돌봄과 공존”의 실재를 탐색하기 위하여 성인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기여에 대한 인식과 내용, 크기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SPSS 21.0을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장애인의 “상호 돌봄과 공존”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 방법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 유형을 도출하고 질적연구 방법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 요인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인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기여가 높을수록, 가족 기여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우,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인장애인의 기여 시간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집분석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과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을 3개의 유형으로 도출한 결과, 성인장애인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도구적 기여와 정서적 기여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면서 나머지 요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가족 기여 요인이 부정적인 상태로 지각하는 유형이 뒤따랐으며, 가장 적은 수이지만 모든 요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유형이 존재하였다. 가족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에 대한 지각이 약간 낮은 수준을 제외하고 모두 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요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뒤를 따랐다.

셋째, 12명의 성인장애인과 가족, 전문가에 대한 FGI 방식의 질적 연구 결과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인식의 하위범주는 “나 혹은 우리도 모르는 매우 생소하거나 상관없는 개념”, “한참 생각하면 발견되는 나름대로의 의미”, “확고한 자기인식과 책임감”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내용은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는 가족의 구성원에서부터 가족의 파수꾼”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만족도와와의 상호작용의 특성은 “가족과 사회관계의 중심추와 윤희율”와 같은 중심주제로 모아졌다.

위와 같이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은 실제적인 영향력은 물론 독특한 유형과 특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돌봄에 있어 “상호돌봄과 공존”이라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추진하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인장애인, 성인장애인 가족, 가족 기여, 가족관계, 돌봄

I. 문제제기

장애인 돌봄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돌봄을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이 연구의 시작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작은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보다 나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지향해 가고 있다. 사전적인 정의로 돌봄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보호, 부양, 수발 등과 같은 용어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장애인 돌봄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미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주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윤리성과 책무성이 발휘되어야 할 광의적인 함의를 지닌 체계이며, 이들에 대한 돌봄의 실태가 곧 복지 상태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역행하듯 장애인 돌봄을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은 여전히 평생 심각한 돌봄 위기를 초래하는 원천으로 머물러 있다. 더욱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시선 역시 배제나 낙인과 같은 차별 문제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이 문제인데?”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열악한 돌봄 현실이야말로 장애인 복지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동기이자 타당한 근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 차별적 시각과 갈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해답으로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돌봄의 지원,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불충분한 홍보와 교육, 더디게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의 특성, 차별적인 장애인 인식의 역사 등이 나열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유를 떠올리는 가운데 장애인 돌봄에 대한 본질에서 시선이 고정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돌봄이라면 분명 차별과 같은 돌봄의 부작용이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돌봄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깊어진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이 돌봄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은 당연히 그리고 분명한 돌봄 대상자이며, 돌봄 제공자는 비장애인이다.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 즉, 돌봄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는 돌봄 제공자가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을 전달하는 일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돌봄의 관계에서는 돌봄 제공과 의존이라는 속성이 발생하며, 돌봄 제공에 대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담, 스트레스와 같이 부정적인 경험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돌봄 의존에 대해서는 낙인과 차별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은 너무도 비돌봄적이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돌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반성과 함께 숙고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실마리는 돌봄의 본질로 회귀하게 만들며 결국, 돌봄의 역사와 정의에 대한 성찰에 이르게 한다. 즉, 돌봄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돌봄의 대상을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돌봄의 의미가 가진 역사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즉, 돌봄을 스스로 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의존’으로 규정하는 현상이나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임금노동이 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류의 역사는 돌봄을 통해서 지속되어 온 인간적인 삶의 특성이며(최현·이금주·이지은 역, 2014), 돌봄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의 일부였으며, ‘의존’ 역시 지금과 같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Daly & Lewis, 2000; 최희경, 2009 재인용).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개념도 자녀가 의존적인 부모를 모신다는 일방적인 개념 보다는 보은과 책임이라는 호혜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최희경, 2009). 이러한 돌봄의 역사와 전통에 근거해 보면 지금의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의존적인 관계로 국한되는 돌봄에 대한 정의는 결국 왜곡된 인

식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돌봄에 대한 정의 역시 단순하지 않다. 다시 말해, 돌봄이 오랫동안 보호, 수발, 부양 등의 용어로 세분화되고 혼용되어 온 만큼 그 의미 역시 사회, 정서, 윤리, 관계적 차원 등으로 다양하고 신중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Thomas(1993)는 돌봄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선입견과 경험에서 탈피하여 돌봄이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의 정체성, 돌봄 제공자와 돌봄 제공자 간의 관계, 돌봄의 성격, 돌봄 관계의 사회적 특성 등의 다양한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상호작용 하면서 생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돌봄이 다차원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Kahana 등(1994)은 돌봄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돌봄 행위의 맥락과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 뿐만 시간적인 차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최희경, 2009 재인용).

결국 이러한 돌봄의 역사와 다차원적인 정의만 보더라도 그 동안의 장애인 돌봄은 돌봄 제공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차원에서 매우 협소하게 소홀히 정의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 역시 점증되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돌봄에 대한 시각은 양방향적인 차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탐색과 재해석이야말로 장애인과 장애인 돌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돌봄에 관한 논의의 초점을 Kahana 등(1994)이 제안한 돌봄 행위의 공간적 차원 가운데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의 확장된 틀에서는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돌봄 관계의 상호작용적인 관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장애아동보다는 성인장애인이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이 더 역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성인장애인 역시 가족과 사회적 돌봄이 배제된 채 개인 스스로 완전히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의 상호작용 역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장애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성인장애인이 분명 생심리사회적인 성장과 자립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생애주기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성인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주된 결정이 여전히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최근에는 상대적 자립이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즉, 완전한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다 할 지라도 이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자립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Crewe & Zola, 2001; 정연수·이영선·김승현·박원희, 2014 재인용).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성인장애인과 가족을 둘러싼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라도 모든 장애인이 항상 돌봄을 받고 있을 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일부 성인장애인 자녀는 노인 부모에게 정서적인 말벗이 되고 여가생활을 함께 하는 등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며(Grant & Ramcharen, 2001; Heller, Miller, & Factor, 1997), 노년기 부모의 동반자나 지지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Rimmerman & Muraver, 2001; Seltzer & Krauss, 2001). Greenberg(1995)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질환이 항상 심각하지 않으며, 질병 과정 중에 안정된 시기나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항상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 장애인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직업을 갖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관계망이 좁기 때문에 건강한 자녀에 비해 자신을 돌보는 노인 부모에게 지지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식사준비 및 기타 집안일, 시장보기, 재정적 도움, 다른 가족원 돌봄, 고민 듣기와 조언, 가족과 친구들 소식 전달, 말동무 역할 등 상당한 정도로 가족에게 다양한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돌봄 대상자인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는 돌봄 제공자인 가족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Horl(1989)은 성인장애인의 감사하다는 표현이나 경제적 보상 등이 돌봄 제공자의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완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Greenberg(1995) 역시 성인 정신장애인의 기여는 노인부모의 낮은 주관적 부담과 관계가 있으며,

Greenberg 등(1993)도 성인 정신장애인이 가사 일을 거들거나 부모의 말벗이 되어 주어서 노인부모의 돌봄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비장애 성인자녀를 대신해서 병약한 어머니를 보살피는 부양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성인장애인도 있다(최희경, 2012).

이렇듯 돌봄의 확장된 틀 안에서 성인장애인은 부담스러운 의존자의 역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정서적이고 도구적인, 경제적인 기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다시 성인장애인을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의 돌봄 만족이나 부담에 영향을 끼쳐 전체 가족의 안녕이나 만족도가 향상되는 상호 돌봄과 공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의 실체는 이론적으로 교환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역할정체성이론에 근거해서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 정체성과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성인장애인의 기여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김학령, 2001; 이유리, 2008; 이현숙, 2007; Grant & Ramcharen, 2001; Greenberg et al., 1993; Greenberg, 1995; Heller, Miller, & Factor, 1997 ; Horl, 1989), 지적장애인(김고은, 2010; 김고은·이종립·현진희, 2012) 등으로 한정되어 왔으며, 국내에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도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김고은·이종립·현진희, 2012; 김학령, 2001).

따라서 이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장애인 돌봄의 실천 현장에서조차 장애인을 의존적인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편향된 돌봄 패러다임을 대신하여 상호돌봄과 공존의 관점에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차별성이다.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상호돌봄과 공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많은 수의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인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dyad) 서베이를 실시한다. 둘째, 연구내용과

방법의 객관성이다. 즉, 성인장애인의 상호돌봄과 공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즉,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성인장애인의 다양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인 가족 기여에 관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인식과 내용, 크기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검증한다. 셋째, 연구결과에의 신뢰성이다. 즉, 성인장애인의 돌봄 제공 역할의 전환과 교환을 기초로 한 상호돌봄과 공존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각 요인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인식과 내용,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양적연구 방법으로 도출한 뒤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인장애인과 가족 등을 질적 연구방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여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를 중심으로 한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에 관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성인장애인의 ‘상호돌봄과 공존’의 중요한 자원이자 주체로서 인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는 어떠한가?

둘째,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와 가족관계 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장애인 돌봄에 있어 성인장애인의 상호돌봄과 공존의 실제와 특

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 요인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차원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교환이론과 역할정체성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특별한 관계에 참여를 선택하는 것은 그 관계에서 얻게 되는 잠재적이고 긍정적인 만족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돌봄은 돌봄 제공자에게 갈등,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 손실이나 기쁨, 만족 등과 같은 보상이나 지지를 초래한다(Raschick & Ingersoll-Dayton, 2004). 따라서 돌봄의 상호 과정에서 지지나 돌봄 보상이 주어지면 돌봄 대상자는 이에 순응하게 되고 돌봄 제공자는 돌봄의 부정적인 손실이 개선되어 그 결과 돌봄 대상자의 복지도 향상된다고 본다(최희경, 2009).

현실적으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장애나 손상을 가진 성인장애인 가족은 돌봄 부담과 같은 심리적 손실을 더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성인장애인 역시 스스로 수동적인 돌봄 대상자라는 부정적 인식이나 낙인을 스스로 또는 가족과 사회적 편견에 의해 매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김학령(2001)은 정신장애인의 실제 기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직업,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과 관계된 동일한 척도(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GAF)를 일부 정신장애인 보호자, 사례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가족들은 평균 4.86점(SD=1.94), 사례관리 전문가는 평균 6.71점(SD=1.61)으로 가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기능수준의 인식이 평균 5.42점(SD=2.13)이며,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기능 수준이 평균 6.46점(SD=1.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의 도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거나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어서 평가에 인색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김희정, 2000). 이러한 경우 성인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높은 돌봄 부담을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가족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의 교환관계에서 호혜성(reciprocity)은 반드시 동등한 형태의 도움이나 지지의 동일한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계의

역사에 의해 형성된 협상의 함축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이 장애인으로부터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장애인이 매우 적은 양의 도움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가족은 충분히 보상 받았다고 지각할 수 있다(Horwitz et al., 1996; 김학령, 2001 재인용). 이에 Greenberg(1994)도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이 기여 정도에 대해서 매우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도출되는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은 역할정체성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역할정체성이론은 역할과 관련된 자아개념인 역할 정체성으로부터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다양한 사회적인 범주와 위치에 따라는 역할기대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역할정체성이며, 이러한 역할정체성을 활용하여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의미한다(Stryker & Burke, 2000; 김문근, 2009 재인용). 이러한 역할정체성이론을 바탕으로 382명의 성인 정신장애인의 상호작용 경험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문근(2009)의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보장하는 역량강화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능동적인 역할정체성이 증가하고, 능동적 역할정체성이 증가하면 정신건강서비스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해 이 연구에서도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성인장애인이 제공하는 기여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기대와 자기평가를 경험하게 되고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의 교환과 전환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형성된 역할정체성은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의식적으로 활성화되고, 돌봄 역할과 부합된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역할정체성이론이 성인장애인의 상호돌봄과 공존에 대한 실천적 가치와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전적으로 기여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기여가 어떤 것을 야기하도록 하는 행동의 요소나 과정(김학령, 2001)이라는 차원에서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는 가족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나 독립심, 동등함, 사회적 유용성과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욕구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자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사회적 지지 차원으로도 적용되고 있으며(이현숙, 2007), 지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하는 사람이 일방의 지지를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oberts et al., 1999; 김학령, 2001 재인용). 따라서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성인자녀로서의 일상적인 돌봄의 역할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가치 등에 관한 상호작용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더욱 호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연습은 곧 성인장애인의 상대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성인장애인의 기여는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Greenberg 등(1994)은 정신장애인의 기여를 가정에서 가사일, 장보기, 음식 준비, 친구 관계 유지 등과 같은 생활영역 속에서 도구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가족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는 크게 친근한 상호작용이나 온정, 존경 등의 정서적 차원, 지역사회 참여와 소속, 관계에 대한 사회적 차원, 일상적인 과업과 소소한 일을 대신해 주는 실제적 차원,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도와주는 문제해결(Nelson et al., 1992)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성인장애인의 적극적인 가족돌봄과 자립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 노인부모를 돌보는 6명의 남성 성인자녀에 대한 최희경(2012)의 질적연구 결과, 연구참여자인 2명이 성인장애인이었다. 이 둘 중 한명

은 2급의 장애인으로 57세, 미혼이면서 무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이 남성 성인장애인은 92세의 노환의 어머니와 동거해 오면서 10년간 돌보고 감당해 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48세이며 미혼의 3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지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와 치매가 있는 81세의 어머니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들 성인장애인은 다른 비장애 성인 자녀와 달리 오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노환이 든 어머니에 대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 전환과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고, 본인들 역시 자식 된 당연한 도리로 ‘아들 역할’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역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김학령(2001)은 정신장애인의 기여를 일상생활 기여, 정서적 기여, 수단적 기여, 가족관계 기여, 자기생활 기여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신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 가족은 성인장애인의 기여를 수단적 기여(평균 3.74점, SD=.70), 자기 생활기여(평균 3.15점, SD=.91), 가족관계 기여(평균 2.92점, SD=.85), 정서적 기여(평균 2.60점, SD=.83)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장애인은 수단적 기여(평균 2.64점, SD=.78), 자기 생활기여(평균 3.29점, SD=.82), 정서적 기여(평균 3.14점, SD=.82), 가족관계 기여(평균 2.94점, SD=.85), 일상생활 기여(평균 2.84점, SD=.82)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이러한 기여가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가족과 정신장애인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가족은 5개 영역에서 최소 2.94점(SD=.91, 일상생활 기여)에서 최고 3.78점(SD=.73, 수단적 기여), 정신장애인은 최소 3.28점(SD=.96, 가족관계 기여)에서 최고 3.70점(SD=.86, 수단적 기여)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유리(2008)의 정신장애인의 주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일상생활, 가족생활, 돌봄, 정서적, 수단적, 경제적 차원으로 정신장애인의 기여를 4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상생활이 평균 2.30점(SD=.86), 돌봄이 평균 2.27점(SD=.83), 수단적 기여가 평균 2.27점(SD=.72), 가족생활은 평균 2.24점

(SD=.71), 경제적 기여는 평균 1.63점(SD=.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간 보다 조금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이 제공하는 기여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주로 돌봄 제공자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나 만족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먼저, 김희정(2000)의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의 기여가 가족생활의 방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지만, 일상생활 어려움과 정서적 부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왔다. 즉, 정신장애인의 기여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에는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나 보호에 대한 어려움은 덜어주고 가족들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감소시켜 주는 자원이 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성인들을 돌보는 고령의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돌봄 대상자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인 기여 가운데 돌봄 대상자의 정서적 기여 요인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은 감소하였으며, 돌봄 대상자의 정서적 기여 요인과 경제적 기여 요인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자의 돌봄 만족감은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최해경, 2015). 가족관계에 있어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장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가족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고, 정신장애인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리, 2008).

이처럼 교환이론과 역할정체성이론,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의 양상은 매우 독특한 유형과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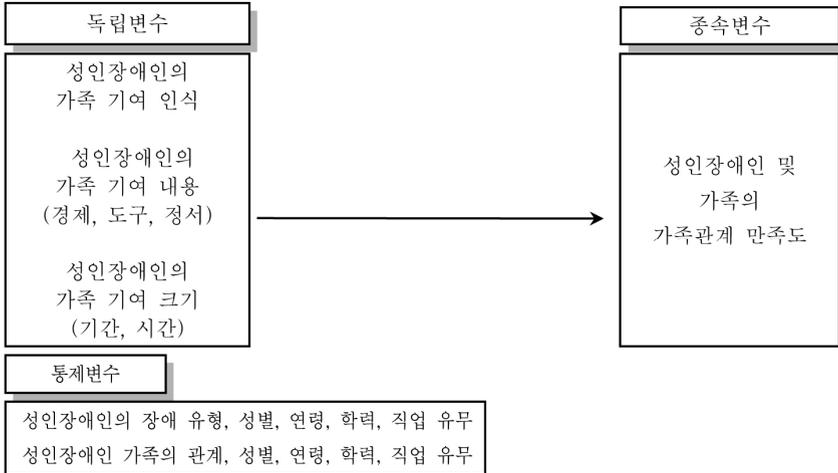


그림 1 | 연구모형

2. 조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 대상자는 성인장애인과 가족을 모두를 대상(dyad)으로 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장애인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급이 있거나 장애 등급이 없지만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손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19세 이상인 자로 구분하였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가족은 조부모, 부모, 형제나 자매, 자녀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성인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성인장애인과 일상생활의 교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셋째,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이 연구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는 자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크게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방법은 연구자 2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와 실친, 서베이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 1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들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목적과 표집 기준, 조사표에 대한 설명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1:1 대인 면접과 자기 보고식의 서베이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설문지 문항의 개발은 표준화된 척도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조사 보고서, 국내외 학위 및 연구논문, 장애인복지 전공의 자문위원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수정보완 후 2015년 7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와 지각, 상호작용에 관한 의미와 양적 방법의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인 FGI (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장애인, 성인장애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족, 성인장애인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 성인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전문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의견과 편의에 따라 가정 또는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서 60~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은 녹취 또는 기록되었으며 2015년 7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행되었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종속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양옥경(2001)이 개발한 축약형의 가족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양옥경·김연수, 2007). 이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성, 지지 및 격려, 여가시간 공유, 상호간 도움 요청하기 및 협력적인 문제해결 등의 친밀한 관계를 물어보는 10문항과 가족원 간의 상호 감정 및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각자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수용존중 영역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의 4점의 리

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정서적인 친밀과 수용 등이 긍정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성인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각각 Chronbach's $\alpha=.985$, Chronbach's $\alpha=.982$ 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는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특성에 관한 변수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인식, 가족 기여 내용, 가족 기여 크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성인장애인이 평소 가족에게 기여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였다.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내용에 대한 측정은 Greenberg, Greenley와 Benedict (1994)가 사용한 척도(Patient's Contribution to the Family)와 정신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관한 이유리(2008), 김정은과 최해경(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조하여 경제적 생활비, 용돈 등의 경제적 측면의 기여에 관한 3문항, 식사, 청소 등의 집안일 거들기나 가족 간호나 학습 등과 같은 도구적 측면의 기여에 관한 5문항, 가족에게 위로나 칭찬, 대화 등의 정서적 기여에 관한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경우 각각 Chronbach's $\alpha=.878$, Chronbach's $\alpha=.847$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크기는 기간과 시간으로 나누어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제공 기간을 개월 수로 조사하였으며, 최근 6개월 간 성인장애인의 월 평균 1일 가족 기여 제공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통제변수는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성인장애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유형으로 측정하였으며, 가족은 성인장애인과 관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유무로 조사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성인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한 사람만 응답하거나 결측, 오류 등의 부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후 성인장애인과 가족 각각 90부씩 총 18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사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의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회귀분석 전에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및 공차한계(Tolerance)를 검토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돌봄의 역할과 전환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성인 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특성에 따른 유형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FGI 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먼저, 성인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42명(46.7%), 뇌병변 장애는 32명(35.6%), 기타 16명(16.7%)으로 나타났다. 성인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2명(68.9%), 여성 28명(31.1%)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최소 22세에서 최대 73세의 범위를 보이는 가운데 평균 41.47세(표준편차 9.47)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명(43.4%), 대학교 이상은 35명(3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유무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1명(56.7%)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전문·관리·사무직이 23명(2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11명(12.1%), 단순노무직이 8명(8.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장애인의 부모인 경우가 60명(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21명(23.3%), 기타 9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성별은 여성이 68명(75.6%), 남성이 22명(24.4%)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최소 24세에서 최대 86세의 범위 속에서 평균 58.63세(표준편차 12.32)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36명(40%)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의 경우 약 절반 정도인 46명(51.1%)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전문·관리·사무직이 19명(21.1%), 서비스직이 각각 11명(12.2%), 단순노무직이 6명(6.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주목할 점은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성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고령기의 부모 그 가운데 어머니에게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김고은, 2011; 유창민, 2015).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성인장애인이 가족보다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과 전문·관리·사무직의 비율 등이 근소한 차이지만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전체 사례수가 90명으로 매우 적고 유의표집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무리가 따르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성인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단서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은 개인의 경제적 수단 뿐만 아니라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과 삶의 질,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르는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박혜진, 2013; 오세란, 2008), 성인장애인은 여전히 직업을 갖을 수 없거나 직업을 갖더라도 직무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시각이 우선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5년 기준으로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실업률 3.7% 보다 약 6배가 많은 23.0%로 나타나고, 3개월의 월평균 소득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약 52% 정도인 157만원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6). 또한 2011년 전체 취업장애인의 47.5%가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취업장애인의 정규직(상용근로자)의 비율이 25.9%에 불과하다는 결과도(김성희 외, 2011)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취업장애인의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이 142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소득 구간도 99만원 이하가 40%, 100만원-199만원이 37.1%로 나타난 반면 비교적 소득이 높은 구간인 200만원-299만원은 12.4%, 300만원 이상도 10.4%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도 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3개월의 월평균 수입은 간장애가 196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장장애가 189만원, 지체장애가 155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유형도 단순노무직이 30.1%로 가장 높고, 관리·전문·사무직 비율이 17.7%,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가 12.5% 등으로 확인되었다(김성희 외, 2011). 이는 성인장애인의 더 나은 취업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열악한 현실에 대한 강조도 필요하지만, 자칫 이러한 사회적 돌봄의 시각은 곧 장애인과 장애인 취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시혜적인 대상으로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이면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다양한 취업 특성과 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관찰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다양한 장애인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사례나 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에 대한 시도는 성인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인식에 대한 현실적 간극을 좁혀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장애인이 성인장애인 가족보다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과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 역시 성인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적 능력은 물론 이들의 가족 기여에 대한 역량과 상황에 대하여 유연하고 균형 잡힌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성인장애인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서 성인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와 상호작용의 경험은 더욱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성인장애인의 특성(N=90)			성인장애인 가족의 특성(N=90)		
장애유형	지체장애	42(46.7)	성인장애인과 관계	배우자	21(23.3)
	뇌병변장애	32(35.6)		부모	60(66.7)
	기타	16(16.7)		기타	9(10.0)
성별	남성	62(68.9)	성별	남성	22(24.4)
	여성	28(31.1)		여성	68(75.6)
연령	범위	22-73	연령	범위	24-86
	평균(표준편차)	41.47(9.47)		평균(표준편차)	58.63(12.32)
학력	초등(특수)학교졸업	8(8.9)	학력	무학	9(10.0)
	중학교 졸업	8(8.9)		초등(특수)학교 졸업	22(23.3)
	고등학교 졸업	39(43.3)		중학교 졸업	6(6.7)
	대학교 이상	35(38.9)		고등학교 졸업	36(40.0)
직업 유무	전문·관리·사무직	23(25.6)	직업 유무	전문·관리·사무직	19(21.1)
	서비스직	6(6.7)		서비스직	11(12.2)
	단순노무직	8(8.9)		단순노무직	6(6.7)
	자영업	3(3.3)		자영업	5(5.6)
	기타	11(12.1)		기타	5(5.5)
	없음	39(43.3)		없음	44(48.9)

2.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관련 특성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와 관련된 특성은 가족 기여에 대한 인식, 가족 기여 유형, 가족 기여 현황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먼저,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성인장애인이 평소 가족에게 기여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의 범위 가운데 3.54점(표준편차 .97)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값 3점대인 보통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반면, 성인장애인 가족의 응답은 최소 2점에서 최대 5점까지의 범위를 보이는 가운데 평균 3.74점(표준편차 .92)으로 나타나 중간값 3점대에 속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편인 4점대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를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성인장애인은 각각 7.38점(표준편차 2.22), 10.39점(표준편차 2.45), 11.73점(표준편차 1.95)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장애인 가족은 각각 7.16점(표준편차 1.84), 10.61점(표준편차 2.16), 11.94점(표준편차 1.9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가족 기여 내용을 4점 만점의 변환 값으로 산출한 결과, 성인애인과 성인장애인 가족 모두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세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 2.46점(표준편차 .74)과 2.39점(표준편차 .61)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중간값 2.5점 미만의 부정적인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도구적 기여에 대해서는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평균이 각각 2.60점(표준편차 .61), 2.65점(표준편차 .54)으로 나타났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에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났다. 정서적 기여에 대해서 성인장애인은 평균 2.93점(표준편차 .48), 성인장애인 가족은 2.99점(표준편차 .48)점으로 나타나 모두 정서적인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즉,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정서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긍정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기여는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성인장애인이 가족보다 약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가족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의 비교이다. 치매,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과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배우자 114명과 자녀 62명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평균연령 72.01세(표준편차 7.64)의 보호자 176명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과 최해경(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보호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돌봄 대상자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4점 변환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 각각 1.78점(표준편차 .97), 1.97점(표준편차 1.05), 2.26점(표준편차 1.10)으로 모두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39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고은(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간단한 집안일이나 시장보기, 아플 때 도와주는 등의 도움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도움이나 조연 등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표본과 척도의 한계로 비교의 무리가 따르지만, 이 연구에서의 성인

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지각은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기여는 성인장애인의 부정적인 지각 수준이었지만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인 지지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실체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동안 간과해 온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기여를 제공해 온 기간과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성인장애인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12개월의 범위를 보이는 가운데 평균 115.97개월(표준편차 75.15) 즉, 약 10년 가까이 가족 기여를 제공해 왔다고 응답하였다. 성인장애인 가족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08개월의 범위 가운데 평균 122.89개월(표준편차 77.33) 즉, 약 10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6개월 간 1일 평균 기여 시간에 대해서 성인장애인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0시간의 범위 가운데 평균 3.44시간(표준편차 2.47), 성인장애인 가족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2시간의 범위에서 평균 3.57시간(표준편차 2.68)으로 응답하여 성인장애인과 성인장애인 가족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 기여 기간과 시간 모두 성인장애인 가족이 약간 더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시각에서의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성인장애인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가족 돌봄의 수혜자로서 강조되어 온 현실 속에서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성인장애인의 기여 제공에 대한 인식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성인장애인 보다는 가족이 더 약간 긍정적인 인식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장애인 보다 가족이 더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이유를 추정해 볼 때 응답의 부정확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성인장애인은 자신의 기여에 대해서 당연한 일상적인 역할과 책무로 지각하거나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유사하게 자신의 기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이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성인장애인 가족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긍정적 기대와 인정 등이 반영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앞선 취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성인장애인이 노년기 부

모나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이나 도구적인 지원, 정서적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성인이자 가족의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구성원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소수이지만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고령의 부모가 많은 표본 속에서도 경제적 기여에 대한 성인장애인의 인식 수준을 제외하고 가족이 모두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긍정적인 응답 수준을 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장애에 대한 시선은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Time for money’와 같은 모형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노년기 부모에게 심리사회적인 지지 횟수가 많은 자녀일수록 노년기 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지가 적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처럼(Couch, Daly, Wolf, 1999; 정우진, 2014 재인용) 향후 성인장애인의 직업과 경제적 기여에 대한 성인장애인, 가족의 인식과 사회적 반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비장애인 성인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더욱 세심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관련 특성

변수명		성인장애인(N=90)	성인장애인 가족(N=90)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인식		범위 평균 3.54(.97)	2-5 3.74(.92)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내용	경제적 기여	범위 평균 4점 변환 평균 7.38(2.22) 2.46(.74)	3-13 7.16(1.84) 2.39(.61)
	도구적 기여	범위 평균 4점 변환 평균 10.39(2.45) 2.60(.61)	4-16 10.61(2.16) 2.65(.54)
	정서적 기여	범위 평균 4점 변환 평균 11.73(1.95) 2.93(.48)	6-16 11.94(1.91) 2.99(.48)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크기	기여 기간	범위 평균 115.97(75.15)	12-308 122.89(77.33)
	기여 시간	범위 평균 3.44(2.47)	0.5-12 3.57(2.68)

3. 성인장애인과 가족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만족도 특성

종속변수인 성인장애인과 가족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만족도의 특성은 <표 4-3>과 같다. 성인장애인의 경우 최소 30점에서 최대 60점의 범위 가운데 평균 45.68점(표준편차 .841)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장애인 가족은 최소 27점과 최대 72점의 범위 가운데 평균 43.01점(표준편차 8.1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4점 만점의 변환 값으로 비교한 결과, 성인 장애인은 중간값 2.5점을 기준으로 평균 2.61점(표준편차 .48), 성인장애인 가족은 평균 2.46점(표준편차 .47)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긍정적으로 가족관계를 만족하는 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보다는 성인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지각 수준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 가족관계 만족도 특성

성인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N=90)			성인장애인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N=90)		
구분	값	4점 변환	구분	값	4점 변환
범위	30-60	1.71-3.43	범위	27-72	1.54-4.11
평균	45.68(8.41)	2.61(.48)	평균	43.01(8.16)	2.46(.47)

4.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확인 결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지수는 2 미만의 1.677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로 살펴본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1.062에서 2.445로 2.5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성인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1의 설명력은 12.4%이고 F값은 2.384로 $p < .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인장애인이 제공하는 가족 기여 요인을 투입한 모델 2의 설명력은 모델 1보다 44.0%가 증가한 56.4%로 나타나고 F값 변화량은 9.191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중 성인장애인의 학력($B=5.165$, $p < .01$)과 직업유무($B=4.349$, $p < .05$) 요인이 가족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인장애인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력의 장애인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5.165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성인장애인이 직업이 없는 성인장애인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4.34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에 성인장애인의 학력($\beta=.306$, $p < .01$)이 직업 유무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이 투입된 모델 2의 분석 결과,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B=2.448$, $p < .001$)와 가족 기여 시간($B=.681$, $p < .05$)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장애인은 가족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기여가 높을수록($\beta=.568$, $p < .001$),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 시간이 많을수록($\beta=.200$, $p < .05$) 가족관계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해서 가족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검토한 결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지수는 1.876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VIF로 살펴본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1.241에서 2.35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은 11.5%이고 F값은 2.190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이 투입된 모델 2의 설명력은 51.2%이며, 모델 1보다 39.7% 증가하였으며 F값 변화량은 10.58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델 1의 성인장애인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가족 연령($B=-.228$, $p < .05$)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장애인 가족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이 투입된 모델 2에서는 성인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가족의 인식(B=3.686, p<.001),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B=1.456, p<.01),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시간(B=.623, p<.05)으로 나타나서 성인장애인이 기여에 대한 가족의 지각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을수록(β =.415, p<.001),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가 높을수록(β =.341, p<.01), 성인장애인의 기여 시간이 증가할수록(β =.205, p<.05) 가족관계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성인장애인(N=90)				성인장애인 가족(N=90)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	β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장애유형+	3.219	.192	.291	.002				
	성인장애인과과의 관계+					2.389	.139	1.857	.108
	성별	-.072	-.004	.229	.005	.418	.022	.574	.030
	연령	.002	.003	.051	.043	-.228	-.345*	-.111	-.168
	학력+	5.165	.306**	2.293	.154	2.144	.129	2.480	.150
	직업 유무+	4.349	.258*	.498	.028	-2.088	-.129	-.859	-.053
독립 변수	성인장애인 가족 기여 인식			1.942	.207			3.686	.415***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기여			-.345	-.078			-.439	-.099
	성인장애인의 도구적 기여			-.184	-.037			-.258	-.068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			2.189	.568***			1.456	.341**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기간			-.008	-.084			-.006	-.059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시간			.790	.200*			.623	.205*
R ²		.124		.564		.115		.512	
Adjusted R ²		.072		.503		.063		.444	
ΔR^2				.440				.397	
F값		2.384*		9.849***		2.190*		7.449***	

+ 장애유형 : 지체장애=1, 기타=0, +성인장애인과과의 관계: 부모=1, 기타=0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1, +직업 유무: 직업 있음=1, 없음=0

*p<.05, **p<.01, ***p<.001

위와 같이 성인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에 관한 요인 중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정서적인 기여 즉, 가족에게 위로나 칭찬, 격려, 문제에 대한 의논이나 정보 제공, 가족이나 친구 등의 소식 전달, 대화나 말동무 등의 기여와 성인장애인의 기여 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장애인과 돌봄의 관계에서 고정되어 온 시각 즉, 성인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인장애인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서 ‘장기간의 상당한 돌봄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돌봄의 수혜자’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다양한 기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건강하고 정서적인 기능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성인으로서의 돌봄 역량을 지닌 구성원’으로 전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할정체성이론과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사회적 역할로부터 역할과 관련된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역할정체성이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역할정체성이론과 교환이론에 근거해 본다면 성인장애인은 가족에게 다양한 기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 기쁨과 보람 등의 정서를 경험하고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인정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 기여 제공자로서의 역할정체성이 형성과 축적은 곧 가족 기여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와 사회적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일부 연구 결과에서 ‘과도한 수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 ‘의존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주관적인 안녕감이 저해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이나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일방적으로 받기 보다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시각(Lowenstein, Katz & Gur-Yashi, 2007; 정우진, 2014 재인용)과 마찬가지로 성인장애인 역시 자신의 가족 기여 역할에 대한 자아개념과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정서적 기여에 대한 측면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장애에 기인한 이유 이외에도 중·고령의 비율이 높은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사회정서적인 선택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과 ‘인생의 목적과 대인관계’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사회정서적인 선택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평가가 중요한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게 될

경우 정서적인 만족감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마주할 경우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닌 가족이나 친구 등과 우선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이 우선이며, 이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거나(Frieder, 2001),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더욱 확고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점이다(Carstensen, Fung, & Charles, 1999). 예를 들어, 비교적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건강이 취약하거나 일상생활동작기능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서도 개인적 관계형성이 친밀하게 이루어진 집단의 노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노인 집단에 비해서 더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del & Marit, 2005; 정우진, 2014 재인용). 따라서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정서적 기여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지각 수준과 가족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공통된 결과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일부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성인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는 중·고령의 가족에게 긍정적인 돌봄의 역할을 제공하는 있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는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기여는 성인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성인장애인의 가족 돌봄 제공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시각은 타당하며, 이들의 돌봄 역할에 대한 전환과 교환의 시각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5.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과 가족 관계 유형과 양상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에 대한 전환과 교환의 가능성에 대한 양적 검증에 이어 상호작용 유형과 특성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군집분석과 FGI를 수행하였다.

먼저, 성인장애인 가족 기여 요인 중 가족 기여 인식과 가족 기여 내용, 가족 관계 만족도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각 변수의 분석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 값으로 변환한 뒤 계층적 군집분석의 Ward 방법을 통한 군집화일정표를 통해서 군집의 수를 탐색하고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표 4-5>와 같다.

먼저, 성인장애인의 경우 전체 90명 가운데 군집 1은 59명으로 전체 65.6%를 차지하였으며, 군집 2는 가장 적은 11명으로 12.2%, 군집 3은 20명으로 22.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에 해당되는 성인장애인 유형은 다른 군집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성인장애인은 가족에 대한 도구적 기여와 정서적 기여 요인만이 평균 이하를 밑도는 정도로 지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족 기여에 인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기여, 가족관계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 군집 2는 가장 적은 수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족 기여 요인과 관계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서적, 도구적 기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모든 요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여 제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가족관계, 경제적 기여, 정서적 기여, 도구적인 기여 요인 순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5 | 성인장애인의 돌봄의 상호작용 유형 특성

(N=90)



반면, 성인장애인 가족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유형은 군집 3으로 나타났다. 전체 90명 가운데 62명인 68.9%를 차지한 군집 3의 경우 정서적 기여 요인이 상대적으로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요인은 모두 세 군집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정서적 기여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17명으로 18.9%를 차지한 군집 2의 경우 나머지 군집에 비해서 모든 요인이 가장 낮은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족의 입장에서 성인장애인이 가족에 대한 기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지각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가족 관계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집 2는 가장 낮은 비율인 11명, 12.2%를 차지하면서 모든 요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 수준이 높은 가운데 정서적 기여, 도구적 기여, 가족관계 등의 순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6 | 성인장애인 가족의 상호작용 돌봄의 유형 특성

(N=90)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17(18.9)	11(12.2)	62(68.9)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인식	-1.45056	.97081	.22549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기여	-1.04622	.16290	.25797
성인장애인의 도구적 기여	-.85261	1.27103	.00828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	-.98717	2.02801	-.08913
가족관계 만족도	-1.19092	.97912	.15283

위 둘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성인장애인 스스로의 지각과 가족과의 상호교환적인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성인장애인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도구적, 정서적 기여를 제외하고 평균에 가까운 가족 기여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적 기여,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가족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정서적 기여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

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가족 기여에 대한 인식, 가족 기여 유형과 가족 관계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가장 적은 수이지만 모든 요인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족 기여 유형은 정서적 기여가 가장 긍정적으로 높고 도구적 기여가 뒤를 잇고 있는 반면 경제적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다양한 군집방법 방법과 기준에 따라 상이한 군집 유형과 수가 구분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상호작용의 경험적 유형의 분류를 통해서 앞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인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일방적 돌봄 제공’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성인장애인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의 관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상호돌봄과 공존’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가 성인장애인의 상대적 자립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GI 방법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앞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군집분석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유의표집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성인장애인과 가족 총 12명이며 일반적 사항은 <표 4-7>과 같다.

표 7 | FGI 참여 대상자

번호	참여자	성별	연령	장애유형	관계
1	성인장애인 1	남	30	뇌병변장애 1급	
2	성인장애인 동거 가족 1	여	56		모
3	성인장애인 2	남	43	뇌병변장애 1급	
4	성인장애인 동거 가족 2	남	71		부
5	성애장애인 3	남	53	지체장애 2급	
6	성인장애인 동거 가족 3	여	43		배우자
7	성인장애인 4	남	46	시각장애 1급	
8	성인장애인 비동거 가족 4	여	84		모

번호	참여자	성별	연령	장애유형	관계
9	성인장애인 5	여	31	지체장애 2급	
10	성인장애인 6	여	29	뇌병변장애 3급	
11	성인장애인 7	남	31	뇌병변장애 1급	
12	장애인복지 전문가	남	47	지체장애 1급	

연구 참여자에 대한 중심 질문은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의 유형이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인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로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이며, 개방형의 자유로운 이야기 속에서 추가적인 관련 질문이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사전 동의를 구한 녹취록과 기록을 병행하였다. 면담은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연구의 질과 윤리적 이슈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를 중심으로 한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주된 주관적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고 각 연구 질문에 대한 중심주제와 하위주제, 인용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장애인과 가족의 인식에 대해서 성인장애인과 가족 중 일부는 ‘기여’에 대한 단어와 ‘가족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나 혹은 우리도 모르는 매우 생소하거나 상관없는 개념”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즉, 성인장애인의 기여는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매우 낮은 개념이었다. 성인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이 가족에게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은 가족이나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이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성인장애인 가족 역시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는 가족과는 관계없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기여를 다른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보거나 자신이 가족과의 생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역할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한참 생각하면 발견되는 나름대로의 의미”도 발견되었다. 또 일부는 “확고한 자기인식과 책임감”도 표출되었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는 사소한 집안일 거들기, 어린 가족 돌보기와 같은 일상적인 지원에서부터 용돈, 월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대화와 위로와 같은 정서적 지원 등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는 가족의 구성원에서부터 가족의 파수꾼”까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기여요? ... 기여요? 제가 남에게 무엇인가 기여를 한다고요? 기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와주는 것? 그거 아닌가요? 그런 단어 그리고 제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전 남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제가 도움을 준다, 기여를 해 준다는 생각은 거의 해 본적이 없어요... 가족에게 기여를 한다고요? 가족한테 기여는 일단 물질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먼저 생각나요. 남들 아니 가족한테는 제가 돈을 벌어주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가족에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나이 되도록 제가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이 더 크죠 ... 그래도 저는 가끔씩 가족한테 잘 하려고 해요. 제가 많은 것 돈을 뭐 벌어들여 주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제 할 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청소나 집 정리 그런 것도 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가장 잘 하는 것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눈 마주치고 웃는 것, 우리 가족 웃는 것 그거예요. 이런 것도 가족에게 기여가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된다면 저도 기여하고 있는 거네요... 다른 장애인 가족보다 우리 가족이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성인 장애인 1)

“... 비록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 우리 딸, 아들의 아빠로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니까 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더 커. 내가 비록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한글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으로 애써. 애들한테도 잘 해주려고 하고 부인에게도.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떻게 잘 해드리고 뭐라도 해드릴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과 눈빛을 보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건네고, 나도 부모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구… (성인 장애인 2)

“... 그 불구 같은 장애로 평생 제가 앞 뒤 다 돌봐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래. 내가 그나마 이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도 장가라도 보내주고 옆에서 끼고 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난 나한테 뭐 바라는 것 없어.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또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 정도니까 다행이다. 자식 낳고 살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거만으로 큰 위안이지... 서로 남자니까 뭐 많은 말을 시시콜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니까 또 다른 자식들은 다 시집 장가가서 옆에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옆에서 같이 보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 아들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래도 저도 미안하고 또 다 크고 장가까지 가고 아들, 딸도 낳고 보니까 저도 부모 맘 아는 것 같아. 표현은 안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떤지 난 알지... 그것도 고마워. 그것도 힘이 되고...” (성인장애인 동거가족 2)

“... 제가 가족에게 기여를 한다고요? 그런 생각은 해 본적 없어요. 저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장애인은 돌보아줘야 할 사람이라고 했지 제가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못해봤어요. 가끔은 장애인이 맨날 불쌍하게 도움만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싫고 제 자신도 괜히 위축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은 아닌데 또 제가 기여를 받으면 받았지 주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 근데 기여가 꼭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서 저도 도와주는 일이 있기는 있어요. 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언니가 지금 힘들어서 제가 언니네 가서 애기 봐주고 놀이주고 그래요. 하루에 4시간은 가서 애기 봐주고 언니 집안일 도와주고. 몸이 좀 불편해도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렇게 보면 저도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네요. 여태 왜 몰랐지? 이런 것도 기여 맞죠? ... 언니도 좋아해요. 엄마가 다 못 도와주니까 저라도 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집안일도 해주니 편안해하고 ... 어쩔 땐 저도 제 일 때문에 귀찮기는 하지만 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언니네 놀러가고 도와주면 가족

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자주 연락하게 되요. 서로 의지도 되고 ... (성인장애인 6).

“... 대학교 때 아니 그 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그랬지만 난 장애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늦게 나서서 지금 너무 연로하시니까 제가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대학 전공도 그랬고 제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니까 경상 계열로 선택했고 대학생활도 장애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 장애를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먼저 얘기하고 나서니까 친구들도 이상한 눈빛으로 안 보고 오히려 저 보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도와주고 나중에는 제가 학생회 임원도 하면서... 그래서 대학생활 때 제가 남들에게 더 나서고 앞장서서 리드하고 도와줘야 남들도 나를 당당하게 봐주고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서로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게 기여 아닐까요? 우리 집도 그래요. 부모님과 살 때 우리 집이 그나마 기초수급을 받아서 저도 장애가 있고 어리니까 경제적으로 그랬는데, 대학 와서 장학금 받고 또 친구들 어학연수 가고 휴학한다는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깐 무조건 4년 내 졸업하고 취업했죠. 그래도 공기업이 취업이 되어서 지금은 남들 취업 걱정할 때 친구들 밥 사주고 부모님께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제 생활도 혼자 하고... 저 혼자니까 제가 사실상 가장이에요. 직장으로 같이 살 수 없지만 부모님 제가 같이 모시지 않더라도 제가 그 분들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모셔야죠. 저는 그래서 제가 기여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제가 부양자예요...” (성인장애인 5)

“... 기여요? 저는 기여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집에서 장애인으로 대접받기 보다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강하게 키우셨는데, 그냥 가족이니까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바라지 말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 제가 어렸을 때 잘 걷기 힘들니까 힘들다고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떼쓰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 때에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속상했는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거 남자인데도 다 시키고 지금까지

지도 잘 해요. 제 밑에도 남동생인데 개도 잘 해요. 요즘은 남자도 장가가려면 이런 것 더 잘해야 한다면서 저나 남동생이나 당연하다고 하면서 해요.. … 저는 가족에게 기여를 많이 해요. 물론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많이 돌보아 주셨지만, 저도 그 만큼 받은 만큼 돌려드리려 하거나 노력해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번 것도 이번에 집 산다고 보태드렸어요. … 저희는 월급 받거나 돈 생기면 그날 저녁은 치킨 한 마리 사와서 회식해요. 아버지도 월급 받으시는 날 그렇게 하시고 …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허물없고 장애인이어도 서로 주고 받고 그래요. 제 스쿠터도 동생이 빌려가서 어머니가 시킨 무거운 쌀 갖고 올 때 이용하고 저도 그런 것 아니까 흔쾌히 빌려주고 아님 제가 가서 받아오거나… 이번에 돈 조금 생긴 것도 어머니 바지 한 벌 사드렸어요… 저는 가족에게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하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른 장애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네가 먼저 하라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니까 달라져야 한다고. 그런데 친구들은 옛날에도 가족들이 오냐오냐 봐주고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보다 옛날에 상태가 더 좋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장애가 심해졌어요. 그런 것 봐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 자신 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다른지 차이가 나더라구요…” (성인장애인 8)

“… 우리 애가 장애가 있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대해줘요.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또 아이가 먼저 제 그런 마음을 헤아려 줘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또 피곤하면 몸이 좀 아프기도 하는데 집에 오면 아들이지만 딸 같이 애교 부리면서 다정하게 맞이해 주고 청소도 해주고.. 휠체어 타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치우려고 해요. … 어느 날 제가 없을 때 요리해 논다고 하다가 그릇을 깬데, 세상에 그것도 혼자서 다 치운 거예요. 엄마인 제가 생각할 때 휠체어를 타고서도 그릇 잡고 요리하고 이런 것도 힘든데 그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어떻게 치웠는지 그 치우는 모습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저리는데 그 그릇을 깨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울컥 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은 가 봐요. 이제는 애가 아닌가 봐요. 저도 예전보다 더 늙고 또 자기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줘요. … 남동생하고도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동생도

장애가 있는 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형 말이면 꼼짝없이 우리 형 하면서 잘 따라요. 여자 친구가 생겼을 때도 우리 형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서로 만나게 하고 그런 것 보면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저한테는 딸 같이 친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오히려 많이 위로가 되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해요…” (성인장애인 동거 가족 1)

“ … 다리가 좀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당연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요.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저도 별로 하니 자녀 둘과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해요. 퇴근이 늦을 때도 있지만 집에 오면 애들도 봐주고 공부하는 것도 봐주고 … 남편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애인 누구도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잡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무조건 장애인이라면 가정도 못 꾸리고 취업도 어렵다는 편견은 해소하는데 조금 기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역할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가르쳐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성인장애인 동거 가족 3)

“ … 내가 요즘 들어 정신이 잘 없어. 깜빡 깜빡하고.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 아들이 함께 살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결혼해서 며느리와 같이 나를 맨날 맨날 들여다 봐. … 가끔 안마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 이제는 그 애가 나를 돌봐.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이픈데 다른 자식은 멀리 있지만 그 애만 옆에서 나를 돌봐 줘. 나를 돌본지 한참 되었어. 한참. … 고맙지. 고마워. 옛날엔 그 애가 장애가 있는 것이 안쓰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 애를 믿어. 의지해 … 오히려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쩔 때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 (성인장애인 비동거 가족 4).

셋째,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상호작용은 “가족과 사회관계의 중심 추와 윤희유”와 같은 중심주체로 모아졌다. 즉, 성인장애인의 다양한 가족 기여는 곧 성인장애인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인장애인 스스로도 효능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가족 역시 성인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공통된 계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관계는 물론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발견되고 있었다.

“... 장애인이 제가 경험하고 또 다른 장애인들을 볼 때에도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안 해왔고 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강조되어 와서 사회적 지원책이 더 나아지고 있지만 거꾸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도 같이 늘어났어요. 장애인이 어딜 누굴 도와줄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이나 하는 시선도 같이 커진 거죠. ... 더 큰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아마 장애인 부모나 가족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장애인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인데 이것도 사실 심각한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또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 어렸을 때에는 부모나 가족들이 돌봐 줄 수 있지만 또 어릴 때에도 그냥 하지 마라 네가 뭘 할 수 있나? 네가 한다는 것이 맘이 아프다 등 사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책감으로 내가 대신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감이라 생각하니 장애인들이 커서도 다른 생각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면 뭘 해? ... 그래도 나 때문에 힘들어 하니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지와 생각을 가진 장애인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가족과의 사이도 좋고 본인도 같이 살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도와주려 하고 아님 이제는 컸으니 부모님 노후를 위해서 자기가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고, ... 활동보조인 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쩔 때에는 자기보다 힘든 장애인을 돕겠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 앞으로 장애인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가족들에게도 이런 것을 알려줘야

해요 ...” (장애인 복지 전문가)

이상과 같이 심층면담으로 살펴본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의 실체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 특성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더딘 이해가 지배적이지만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검증을 통해서 일부나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서두에서 제기한 ‘장애인의 돌봄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돌봄을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에 대한 반문이 다소나마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성인장애인 중심의 상호돌봄과 공존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성인장애인의 돌봄 역할 전환과 교환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크게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요인의 특성,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의 영향력, 성인장애인 가족 기여와 가족관계의 상호작용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장애인과 가족 양자(dyad)를 대상으로 각각 90명씩 총 18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인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보다 충실한 탐색적 수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군집분석의 양적 방법과 FGI의 질적연구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인장애인과 가족이 각각 지각하는 ‘성인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은 모두 5점 만점의 중간값 3점을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장애인의 기여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여, 도구적 기여, 정서적 기여 모두 4점 만점의 중간값 2.5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성인 장애인의 지각 수준이 중간값에 더 가깝고 나타났으며, 도구적 기여는 중간값 보다 약간 더 높게, 정서적 기여는 3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4점 만점의 중간값 2.5점을 기준으로 성인장애인이 중간값 이상, 가족은 중간값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인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기여가 높을수록, 가족 기여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가 높을수록, 성인장애인의 기여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 인식, 성인장애인 가족 기여 내용,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으로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성인장애인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도구적 기여와 정서적 기여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면서 나머지 요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요인이 다 부정적인 상태를 지각하는 유형이 뒤 따랐으며 가장 적은 수이지만 모두 긍정적인 수준의 지각 상태도 존재하였다. 가족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기여에 대한 지각이 약간 낮은 수준을 제외하고 모두 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요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뒤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한 각 요인의 특성과 관련성, 상호작용 특성을 등의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총 1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FGI 방법의 질적 분석 결과,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인식의 중심의미는 “나 혹은 우리도 모르는 매우 생소하거나 상관없는 개념”, “한참 생각하면 발견되는 나름대로의 의미”에서부터 “확고한 자기인식과 책임감”으로까지 다양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보이면서 가족 기여 활동을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는 가족의 구성원”에서부터 가족의 ‘과수꾼’의 역할까지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

었다. 이러한 과정은 곧 “가족과 사회관계의 중심추와 윤희유”와 같은 중심주제로 모아졌다.

위와 같은 다각적인 결과는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기여를 제공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넘어 성인장애인이 역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과 역량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통해 그 동안 간과해온 성인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대안 역시 다음과 같이 촉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당면한 과제는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도 여전히 의존적인 돌봄의 대상이나 주변인으로 지각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성인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에게 보다 구체적인 생애주기의 특성과 차별적인 돌봄의 발달과업 등에 대한 인지행동 교육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성인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교육, 구체적인 기여의 방법, 가족 상담 등과 같은 개별 및 집단 교육과 자조집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에게 정서적 기여와 돌봄 시간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만큼, 이들에 대한 개입의 초점이 정서적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지원과 방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장애인의 경우 아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나 지지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나 자기 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이지만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 모든 요인에서 부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유형과 같은 성인장애인과 가족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심리건강의 개입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아웃리치나 가정방문서비스 방식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기여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지만,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 대한 부분은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일부의 성인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한계가 있다. 또한 횡단적인 조사 연구방법과 유의표집으로 인한 표본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연구의 방법과 표본의 다양성이 확보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에 대한 또 다른 재해석에 대한 학문적 기초가 마련됨과 동시에 성인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사회적 수혜의 대상자가 아닌 가족과 사회의 돌봄 활동의 주체자로서 장애인, 가족 그리고 사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고은 (2010).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돌봄 만족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원, 서울.
- 김고은, 이종립, 현진희 (2012). 노년기 어머니가 인지한 지적장애자녀의 기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7, 171-189.
- 김문근 (2009). 상호작용경험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서 역할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성희 외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 김은혜·석민현·윤정혜 (2010).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부모의 보건복지연구. 한국노년학, 30(4), 1213-1223.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정은, 최해경 (2015). 돌봄 대상자의 기여 요인이 가족 돌봄 노인의 돌봄 부담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2), 123-150.
- 김학령 (2001).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인지한 정신장애인의 가족내 기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희정 (2000). 정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창민 (2014).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는 노년기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 과정모델 검증.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혜진 (2013). 고등학교 졸업이상 성인장애인의 취업현황 및 취업영향 요인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2), 145-167.
- 변용찬 외 (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정윤 (2007). 제가 성인정신지체인을 돌보는 나이 들어가는 주보호제공자의 서비스이용도와 서비스 필요도 결정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8, 117-145.
- 양옥경, 김연수 (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03-129.
- 오세란 (2008).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255-275.
- 유창민 (2015).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는 노년기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 과정모델 검증.

-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윤성은 (2002).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영지 (2009).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부모 가족의 부양부담과 노후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유리 (2008). 주보호제공자가 인지한 정신장애인의 기여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현숙 (2007). 정신장애인이 가족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우진 (2014).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의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연수·이영선·김승현·박원희 (2014).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 *지적장애연구*, 16(1), 245-281.
- 최희경 (2009).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돌봄 서비스의 질 보장. 집문당.
- 최희경 (2012).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7-32.
- Brown, I. & Brown, R. I. (2003). 장애와 삶의 질: 지역사회 실무자를 위한 접근법. (최현·이금주·이지은 역, 2014). 학지사.
- Grant, G., & Ramcharen, P. (2001). Views and experience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4, 364-380.
- Greenberg, J. S. (1995). The other side of caring: Adult children with mental illness as supports to their mothers in later life. *Social Work*, 40(3), 414-423.
- Greenberg, J. S., Greenley, J. R., & Benedict, P. (1994). Contributions of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o their familie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5, 475-480.
- Greenberg, J. S., Seltzer, M. M., & Greenley, J. R. (1993). Aging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s and frustrations of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33(4), 542-550.
- Heller, T., Miller, A. B., & Factor, A. (1997).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s supports to their parents: Effects on parental caregiving appraisal. *Mental Retardation*, 35, 338-346.

- Hudson, J., & Kevin, C.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 scoring manual*. FL: WALMYR Publishing Company.
- Horl, J. (1989). Looking back to caregiving: Findings from case studies in Vienna, Austri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4, 245-256.
- Ingersoll-Dayton, B., Neal, M. B., & Hammer, L. B. (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 262-271.
- Raschick, M., & Ingersoll-Dayton, B. (2004). The cost and rewards of caregiving among aging spouses and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53(3), 317-325.
- Rimmerman, A., & Muraver, M. (2001). Undesired life events,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of ageing mothers of adult offspring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living at home or out-of-home.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6(3), 195-204.
- Seltzer, M. M., & Krauss, M. W. (2001). Quality of life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live with family.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7, 105-114.

연구자 소개

김정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와 대전 새날장애인이룸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누군가 그리고 서로의 돌봄으로 탄탄한 복지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태흥

대전 새날장애인이룸센터장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으며, 대전 새날장애인이룸센터장(구, 새날장애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체장애가 있지만 대전지역에서 장애인의 상호돌봄과 공존의 주춧돌이 되고자 기도와 실천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고 있다.

연구후기

연구를 끝내며

연구를 마쳤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아니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위해서 함께 만났던 그 많은 성인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그 깊은 돌봄의 경험과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지 못한 연구진의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이었기 때문에 돌봄 주체에 있어 성인장애인들의 소극적인 생각이나 태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인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봄 역할’에 대한 첫 질문은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인 질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한 동안 생각하고 난 뒤에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항상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집에서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집안 일 역할 등에 관한 질문으로 바꾸어 물어 보았더니 지체 없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가 함께 사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지고, 예전보다 집안 일도 거들어 주게 되고, 가끔 돈이 생기면 용돈도 드리고 같이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등 점차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상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연구진과 연구 참여자들은 너무 생소하고 무섭기까지 한 돌봄의 이면을 경험하였습니다. 장애인 돌봄에 있어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라는 이 불법적인 사고는 차라리 냉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돌봄이 한 쪽에서는 자기 만족과 우월한 존재 의식을 갖게 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낙인을 갖게 한다는 실체를 서로 어색하지만 충격적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진정한 돌봄의 목적과 결과는 이러한 차별과 낙인을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심각한 현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우리가 ‘돌봄’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돌봄은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 그리고 이 둘을 돌보아 주는 제 3의 돌봄의 삼각형이 존재하고 이들 간의 상호교류적인 돌봄의 방향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간과한 채 반쪽짜리 돌봄만 지속되어 왔으니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허탈하기까지 한 소박한 돌봄의 민낯을 마주한 후 성인장애인과 가족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메르스로 인하여 더 짧아진 조사 기간 동안 약 200여명이 넘는 성인장애인과 가족을 만나느라 초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까지도 초조함은 계속되었지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장애인 돌봄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다소나마 거둘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진행 중의 에피소드

사실, 마지막까지도 연구진행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탐색적 목적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처음부터 끝이 아닌 끝까지 도전과 성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진 뿐만 아니라 참여해 주신 모든 성인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경험한 작지만 큰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 연구진보다 더 생소하게 느낀 성인장애인과 가족들의 연구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렵다는 설문 문항에 대한 반응,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성인장애인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는 탄식과 기쁨, 반대로 어찌면 조사를 시작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기여와 관계가 너무 부재한 경우들...

그래서 서베이할 때 뿐만 아니라 설문지를 코딩하고 축여록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들의 돌봄 경험에 대한 단상이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에 작은 역할이라도 될 수 있도록 잘 써야 한다는 다짐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주 작은 의미만을 보여주었지만 계속 더 많이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후

속 연구에 대한 빠른 걸음을 재촉하게 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재해석’에 대해

돌봄에 대한 흔한 경험과 주제에 대한 재해석의 기회를 주신 한국장애인재단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논문지원사업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언젠가는 꼭 도전해 보고 싶은 과제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늘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연구논문으로 선정되어서 그 작은 발걸음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다른 새로운 시각과 성찰에 대한 기회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계속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문지원사업 지원자에게 전하는 말

누군가도 저희처럼 꼭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보다 더 잘 하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논문지원 사업은 우리들의 이런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필코!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기 자문교수님께 전하는 감사인사

처음부터 끝까지 김동기 교수님은 우리 연구의 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우리 연구주제와는 모순되게 연구진의 능력 부족으로 교수님은 저희와의 상호돌봄이 아니라 늘 저희의 일방적인 기다림을 감내해 주시고 연구의 성찰을 위한 방향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만큼 우리들에게 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많은 것을 참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연구에서의 돌봄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나름대로의 작은 의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5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김효진, 백혜련

지문위원 :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고찰해보고 향후 올바른 장애관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설계되었다. 장애위인전에는 지배이데올로기와 함께 지배계층과 사회가 가지는 장애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애국·반공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민주화이데올로기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장애와 인권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장애문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장애위인전은 크게 늘어나거나 내용상의 변화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지배이데올로기가 장애위인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위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해보니 자·농·맹에 해당하는 유형이 전부였으며 다른 유형의 장애위인은 등장하지 않았고, 직업도 다양하지 않고 성별로는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장애위인전의 제목에 붙은 수식어의 공통점을 찾아 장애극복, 노력과 성취, 강점부각, 인간적인 면모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보니 한국 장애위인전 중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한 위인전은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장애극복과 성취가 부각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의료·재활적 관점에서 장애 문제 해결에 접근해오다가 점차 사회모델과 인권 관점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장애위인전에서는 여전히 의료·재활 관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Priestley의 다중패러다임 모델로 헬렌 켈러와 주변 환경, 한국 저자의 장애관에 대해 분석해보니, 헬렌 켈러는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위인으로서, 사회적 변혁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장애관에서도 진보적 입장을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19세기의 미국 사회가 가지는 장애관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를 기술하는 한국 저자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다. 이는 저자가 한국사회 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된 장애관을 고스란히 위인전에 투영한 결과로 여겨지며, 장애위인전을 접하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변화된 장애관과 장애감수성이 바탕이 된 내밀한 인물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

장애, 지배이데올로기, 위인전, 장애위인, 장애위인전

I. 서론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독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독서는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을 쌓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추리력을 길러주고 정서와 인성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위인전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 필독도서 목록에 으레 들어있는 단골 메뉴이다. 출판시장에서 위인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사교육 일정에 쫓겨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고 온통 스마트폰과 게임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일지라도 한두 권쯤은 읽을 정도로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

위인전에는 한 사람이 생애에 걸쳐 일군 업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등이 담겨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고, 즉 어떤 속성들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마치 자신이 그 모델인 것처럼 행동하며 모델의 생각이나 감정을 본받는데, 프로이트(Freud, 1894)는 이를 동일시(Identification)라고 정의했다. 이성진(1985)에 의하면, 독자가 작중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자신과 관련지어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대상이 위인일 경우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배우는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생의 경우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인물과 연결시켜 미래의 꿈을 그려보기도 한다. 즉, 인물 이야기는 아동이 자라면서 본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인전은 분명 자라나는 아동의 성장에 있어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배계층의 지배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파, 보급, 학습시킴으로써 아동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억제하고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인간형을 강요하는 위인전의 역기능적인 측면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장애위인전의 경우 장애에 대한 인식과 표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위인전은 질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독재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지배이데올로기를 대변해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¹ 장애 역시 지배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장애위인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통제적 기능으로 대변되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장애위인전에서도 담아내고 있는지, 만약 장애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아동들에게 심어주었다면, 어떤 양상으로 장애에 대한 주류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려 하는데, 우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위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장애유형별, 성별, 직업별로 해당 인물의 특성을 구분하여 위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인전의 제목에 붙은 수식어 분석을 통해 장애위인전의 제목 특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제목의 특성 분석을 통해 개괄적으로나마 장애위인을 어떻게 인식시키고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 위인전에 관한 선행연구나 실태조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후속연구자들에게 장애위인전의 현황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현재 유통되는 장애위인전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헬렌 켈러」 속에 투영된 장애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가 어떠한지 Priestley의 다중패러다임 분석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 위인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게 어떤 장애관을 심어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배이데올로기와 장애관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 차후에 도서출판이나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논해보기로 하겠다.

1 남미영, 「무엇을 읽힐 것인가」, 『교육개발 35』, 1985년 4월호, p70, 재인용

II. 이론적 배경

1. 지배이데올로기

우리사회에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정치적·사회적 근본원리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사회세력과 사회계급을 포함한 일정한 사회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물질·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상체제로, 현실과 지배관계를 은폐시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의식체계를 말한다(김수현, 2001). 이데올로기는 특정 집단이 장악한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고 다른 계급 또는 종속 계급이 정치적 진출을 통제하고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이데올로기가 없거나 약한 경우 지배 계층은 정치적으로 약화되기 마련이며 정권을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배계층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이를 공고히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성립되고 통제를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정의해보면,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인 지배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 정치적인 지배집단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데올로기이다(김명순, 1994). 지배계급은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통하여 피지배계급을 자신들의 세계관 속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체계화하여 널리 확산시킨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는 단지 관념이나 관습, 규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강력히 구현된다는 점에서 국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

사실상 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상황과 깊게 관련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변 상황은 국가 안보와 반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집권 세력은 이를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적 수단으로 삼았다. 즉, 특정 세력이 집권하는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보다는 나라의 안위와 생존이라는 위기의식을 반공의 상황으로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은 지배 계층의 국민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생존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으

로 인해 지배 계층의 통치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반공과 함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지속된 군부독재시대에도 이와 같은 반공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더욱 확고했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국가 발전을 위한 애국심을 강조하여 보다 견고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뚜렷한 변화가 온 시기는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이다. 과거 유신과 반공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민주화 이데올로기로 전환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 기득권과 지배 계층의 통제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지배 기반이 일체히 바뀐 것은 아니며, 민주화 이데올로기 자체가 근현대사를 통해 형성된 지배논리라기 보다는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에 맞춰졌고, IMF라는 초유의 국난에 맞서기 위한 애국심의 발현이 기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 통제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애국심은 과거 충효사상으로 무장된 지배이데올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심각한 반항 없이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이와 같이 진행된 애국, 반공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는 장애 개념의 발전을 막는 데도 주효했다. 교육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한 지배계층은 장애, 인권, 소수계층에 대한 언급과 이를 반영한 문화를 철저히 통제했다. 특히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모든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출판되는 도서와 자료가 모두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우리사회의 장애관이 의료적 모델에 머무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군사독재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민주화이데올로기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장애와 인권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사회환경의 문제가 의제로 등장한 것은 한국 장애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장애운동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익옹호라는 과제를 사회에 던지고 거리 투쟁과 함께 법률제정 운동과 국제활동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이에 2006년 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유엔 본회의 통과와 2007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루어냄으로써 7년여의 운동은 가시적 결과를 얻어내기에 이른다. 장애인 운동에서 7년여의 본격적인 투쟁이 가능했던 시기와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가 겹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동시에 바뀌어야 할 대상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환경이라는 사회모델에 근거한 장애인관의 변화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장애관이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변화한다는 의미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지배이데올로기가 사회 변화를 억제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념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다방면에서 통제될 수밖에 없었다. 지배이데올로기는 교육과 출판물을 비롯한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철저한 통제 속에 형성된 장애에 대한 관념은 겨우 2000년대 초에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아직 그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다. 여전히 장애인은 기존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변화의 속도와 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공고히 형성된 교육과 출판을 필두로 한 사회문화 전반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2. 위인전과 지배이데올로기의 관계

위인전이란, 동서고금의 위인들의 업적과 생애를 사실에 맞게 적어 놓은 글 또는 책을 말한다(민중서림, 1961). 여기에서 위인(偉人)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데 위인전기라고도 일컬어지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까지 훌륭한 역사적 인물들을 다룬 이야기책을 가리켰다. 최근에는 위인전 대신 인물이야기라는 용어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국어대사전(민중서림1961)에서 살펴보면 인물은 사람의 됨됨이, 인품, 쓸모 있는 사람, 인재라는 뜻으로 쓰인다.² 따라서 인물이야기라 하면 그러한 덕성을 갖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리키게 된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보다는 1990년대를 전후해 한국 출판계에서 위인전이 인

2 이지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들의 특성 및 서술방식 분석 연구」, 2011,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p

물이야기로 바뀌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배이데올로기는 교과서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노골적으로 정권의 슬로건이나 국정홍보를 통해 표출하기도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언론, 출판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매체 및 출판을 통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전파는 향후 성인으로 성장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도서 출판시장이 교육 차원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에 부응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위인전 시장 역시 교과서 수록 위인으로 한정되는 현상을 보였다.³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체계화해 널리 확산시키는 지배권력으로서의 인쇄매체 중에서도 위인전이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한 매체였으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인물에 대한 해석은 세계관과 가치관, 신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기에 지배계급 또는 국가권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인들을 끊임없이 창조 또는 변형해내고 그것들을 전파함으로써 대중을 길들이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그러한 결과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로서 강력한 통제와 억압의 대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983년 「한국출판연감」에 수록된 아동도서 목록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위인은 모두 80명이었는데, 여기서 한국의 위인은 5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을 분류해 보면 장군이 17명(약 3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자 9명(약 17%), 독립운동가 8명(약 15%), 여성·대신(大臣)·예술가 등이 각각 3명(각각 6%)씩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 위인은 모두 36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자가 9명(약 25%), 정치가와 문학·예술가가 각각 5명(약 14%), 장군·탐험가·여성이 각각 4명으로 각각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당시 군인 출신의 박정희, 전두환 정권 독재시대 상황의 사회적 분위기는 위인전에도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충·효를 지배적인 규

3 남미영, 「무엇을 읽힐 것인가」, 『교육개발 35』, 1985년 4월호, p69, 재인용

범으로 강조한 위인전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출판물들을 살펴보면 수평적 인간 관계가 아닌 수직적 인간관계를 존중하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일사불란한 위계질서 확립에는 바람직하나 민주주의적 인간관계의 가치관과는 대립, 갈등을 일으킨다. 둘째, 위인전의 구성원 대부분이 국난 극복의 영웅들로서 목숨을 바쳐 국가를 사랑한 영웅들이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사랑을 목숨보다 우위로 여기는 국가제일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다. 셋째, 위인전의 기술방식은 인간적인 갈등 없이 목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인물로 이들의 초인적 능력을 강조하고 성인시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인간적인 약점과 고뇌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고 비범하게 태어난 큰 재목이었음을 강조하여 평범한 어린이들에게 심한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어주었다(남미영, 1985).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위인에 대한 묘사와 선호가 달라지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계는 물론 출판계에도 새바람이 불어왔다. 기존의 전집류 위주의 출판환경에서 어린이책 시장이 단행본 위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집이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위인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졌는데, 가장 큰 특징은 구국 영웅들이 대거 사라지고 새로운 영웅들로 교체됐으며 살아 있는 동시대 인물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UN 사무총장 반기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물론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등 나이, 인종, 직업을 뛰어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엮어 나왔다. 몇백 년 전의 영웅보다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빠르게 공감되기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은 솔직해진 묘사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위인전 목록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몇 안 되는 '영웅'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위인전 묘사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다. 과거에는 '민족의 횃불', '세계적인 영웅' 등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신격화에 가깝게 표현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지양하고 대신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일화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연 등을 솔직담백하게 담는다. 위인전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그 인물 역시 어릴 적에는 자기와 다를 것 없는 보통의 아이였음을 알게 된다. 즉

훌륭한 사람은 시작부터 ‘신’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꿈과 목표를 갖고 노력으로 일군 성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목표 의식 확립에 도움이 된다.⁴

이처럼 최근의 출판경향은 거의 인물이야기로 바뀌었고 인물이야기라는 용어가 보다 진화된 형식이자 표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위인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한국사회에서 위인전이 인물이야기로 바뀌어나가는 큰 흐름에서 장애가 있는 위인을 다룬 책은 이러한 출판경향과 맞물려 있다고 볼 만큼 커다란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프리다 칼로, 로자 룩셈부르크 등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장애위인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장애위인전이라는 용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삼은 책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가 거의 부각되지 않거나 감추어지는 경향이 있는 김대중과 에디슨 등 특정 위인의 경우도 장애위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경향 또한 장애위인전의 특징 중 하나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위인전 출판시장의 변화는 교육과 출판이라는 통제수단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위인에 대한 기준이나 경계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교육과 출판의 과거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반증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사회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로 인해 기존 위인들을 통한 충직한 국민 만들기가 어려워졌으며 통제의 변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지배계층은 약화된 통제 수단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며 다방면에서 이러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장애 위인은 최근 수년간의 변화(지배이데올로기와 교육, 출판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매우 적은 출판물과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장애 위인은 5명 미만이다.⁵ 또한 현

4 이지애, 앞의 글, p3-4

5 이지애, 앞의 글, p41-41 <표II-1> 교과서 수록 인물 분석 참조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위인

재 유통되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19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변화하는 속도와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정착되는 속도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향후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단행본 위인전을 중심으로 장애위인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서점 중 ‘알라딘’을 선정하였다.⁶ 이 인터넷서점의 경우 판매지수가 제시되어 있어 출간 현황뿐 아니라 유통량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였다. 이 인터넷서점의 도서분류 중 ‘문화/예술/인물’ 분야에서 한국인물에 해당하는 책은 모두 2,497권이었는데, 이 책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것으로서 현재 절판된 것들도 있었다. 이 중 장애위인을 찾아보니 지난 7월 5일 현재 18권 9명이었고, 세계인물 2,389권 중 장애위인은 102권 10명이었다. 여성인물도 626권이 있으나 상당수 중복되므로 이들 중에서 장애위인을 따로 선별하지는 않았다. 또 세계인물과 한국인물 중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한국인물이 나도나도 예뻐!」, 「시조와 만나는 위인이야기」, 「꼴찌에서 일등까지-세상을 변화시킨 리더들의 어린 시절」 등 주제별로 여러 위인을 한꺼번에 다룬 단행본과 만화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9명의 국내외 장애위인전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19명의 장애위인 중에서 헬렌 켈러 위인전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헬렌 켈러를 다룬 위인전이 장애위인전 중에서 가장 스테디셀러이자

중 장애 위인 수를 확인하였다.

6 위인전은 전집출판시장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집의 경우 판매, 유통되었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읽혀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에디슨 위인전(32권)이 헬렌 켈러(25권)보다 발행 권수는 더 많지만, 헬렌 켈러 위인전 중 높은 판매지수를 보인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창비, 2010)의 경우 8,364인데, 에디슨의 경우 「에디슨」(햇살과나무꾼, 2006)이 판매지수 2,045를 보이고 있어 대비된다. 또한 에디슨의 경우 「에디슨」(한국헤르만헤세, 2014), 「에디슨」(한국톨스토이, 2014), 「에디슨 :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준 인류 최고의 발명왕」(효리원, 2013) 등 최신간의 경우 거의 판매지수가 10 또는 100의 자리수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헬렌 켈러 위인전의 경우 2010년 이후 최신간은 거의 없지만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창비, 2010) 외에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산해, 2008), 「헬렌 켈러 - A Life - 고요한 밤의 빛이 된 여인」(미다스북스, 2012) 등 여러 권의 도서가 높은 판매지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위인전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헬렌 켈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헬렌 켈러 위인전 중 베스트셀러인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창비, 2010)를 텍스트로 해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⁷

표 1 | 단행본에 등장하는 국내외 장애위인과 권수

	장애위인			
	한국		세계	
	위인	권수	위인	권수
1	김대중	9	에디슨	32
2	김기창	2	헬렌 켈러	25
3	강영우	1	베토벤	24
4	박두성	1	스티븐 호킹	8
5	변상벽	1	루이 브라이	4
6	서덕출	1	프리다 칼로	3

7 헬렌 켈러 위인전 중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창비, 2010)의 판매지수 8,364는 다른 장애위인전의 판매 지수를 합한 수치보다 높아 우리나라 장애위인전 중 가장 많이 읽히는 스테디셀러이다.

장애위인				
	한국		세계	
	위인	권수	위인	권수
7	이씨부인	1	루스벨트	2
8	이희아	1	닉 브이치치	2
9	황대중	1	로자 룩셈부르크	1
10			애덤킨	1
	합계	18	합계	102

실제로 지배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도서의 출판과 그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위인전은 학교 현장에서 필독도서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가 한정적이며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와 위인전 중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나 묘사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의 경우 장애위인전 중 가장 많이, 꾸준히 유통되고 있는 책으로서 아동의 장애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볼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위인전 현황분석을 위해 국내외로 구분하여 장애유형별, 직업별, 성별 등으로 장애위인을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제목에 붙은 수식어 분석을 통해서 장애위인전의 제목특성을 분석하는 외에 아동용 위인전으로 출판된 헬렌 켈러의 장애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특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관찰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양상(variation)을 보이는지 검토하는 방법이다.⁸

헬렌 켈러 위인전에 대한 분석은 프레슬리의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의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헬렌 켈러와 이를 위인전으로 집필한 저자의 장애관을 다중패러다임의 네 가지 측면별 장애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Priestley의 장

8 양서현, 『TV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에 나타난 장애관』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재인용

에 개념에 대한 다중패러다임 모델은 장애를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성하였다.(Priestley, 1998) 즉, 개인적 모델은 개인을 넘어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신체의 손상과 정상성의 결핍을 의미하는 개인적 유물론과 사회적 결핍에 따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심리환경적 접근을 하는 개인적 관념론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모델도 사회적 환경의 결핍에 근거하는 사회적 유물론과 정상화 이론 및 사회문화적 역할에 근거하는 사회적 관념론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별적 유물론 입장은 완전한 신체를 이상향으로 보고, 신체의 손상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 및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신체의 손상을 장애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손상은 영구적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가, 특히 의사들은 치료의 불가능성을 인지하게 되고 '정상성(normality)'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개입방법을 추구하게 되며, 이런 개입방법을 치료가 아닌 재활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입장은 장애 이론 중 '의료적 모델'에 해당된다.

개별적 관념론 역시 개별적 모델이기는 하지만, 생물학과 손상된 신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식의 상호작용 및 감정의 경험에 초점을 둔다. 심리적 상태, 상호 관계 등이 정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준에서 어긋나는 경우 장애라고 보는 것이다. 즉, 손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손상 이후의 심리적인 문제, 상호 관계의 문제에 이상이 있는 것을 장애라고 보는 것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장애는 개인적 경험의 산물이며, 개인간 사회적 역할의 협상을 통한 산물이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일탈하고, 불우하고, 주변적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지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복지(compensatory welfare)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유물론은 산업화 및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각자의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는데,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용 및 근로현장에서 심한 차별을 받을 뿐더러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제약과 차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억압과 차별이 장애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압과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의 변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장벽(disabling barriers)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혁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보완수단으로 이동권, 접근권의 확보를 통한 물리적 장벽제거와 구조적, 제도적 차별 철폐 등이 있다. 특히 장애 차별의 문제는 장애 유무에 따라 역할이 고정되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교육, 고용에서의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모든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구조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에 따른 차별구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차이를 재생산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을 지속화하며, 장애인의 자율성과 평등성의 정신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유동철, 2002).

사회적 관념론은 장애를 특별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달하는 산물로 여긴다. 사회 구성(social construction)으로서 장애의 특색은 암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문화적 상대주의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장애의 구성은 특별한 문화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신체적 손상은 모든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회적 역할의 구현을 막는 차별 또는 억압의 정도는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Wolfensberger의 ‘정상화’이론과 이를 발전시킨 1983년의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가 이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받는 역할을 창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Wolfensberger, 1972, 1983).

장애 개념의 다중패러다임 모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 Priestley의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

개별적 유물론(손상된 신체)	개인적 관념론(신념과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적 모델, 신체적 재활모델 • 장애의 정의에 따른 분석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른 정상성의 결여 - 장애인의 문제의 원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있으므로 그것을 해소하거나 못할 경우 동정적 ex1) 긍정적 활동: 예방, 재활, 특수교육(보호 기능) 등 ex2) 부정적 활동: 동정, 우생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결핍 모델, 심리·환경적 접근 모델 • 장애의 정의에 따른 분석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에 따라 정체성이 훼손된 상태 - 장애인의 정체성을 부정(낙인)하고 비장애인에 맞추도록 함(장애인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것은 아님) -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삶에 양식처럼 만들기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보충적 복지제도 요구) ex) 장애연금의 도입 필요성, 직업재활 등
사회적 유물론(사회적 억압과 차별)	사회적 관념론(문화적 가치관과 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iver의 사회적 모델 • 장애의 정의에 따른 분석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문제는 자본주의 모순에 의한 구조적·경제적 문제 - 제도적·물리적 차별은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거나 당연히 차별받는 것 ex) 이동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lfensberger의 정상화 이론과 사회적 역할의 가시화 • 장애의 정의에 따른 분석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장애 문화를 인정하기 위한 재활동(낙인의 극복), 경제적 능력 이외의 연령/인종/성적관심 등에 의한 사회적 억압이나 배제, 낙인의 극복 노력 등 ex) 장애 인식 개선사업, 군 가산제 등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출처 : 조원일, 2009.7.⁹

내용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출판된 헬렌 켈러 위인전의 본문이다. 분석 절차는 해당 도서를 구입 후 먼저 본 연구자가 먼저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독을 한 후 주요 내용과 각 챕터별 내용에 대해 메모하였다. 1일 시차를 두고 다시 정독을 하면서 앞에서 메모한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도서의 본문에 줄 단위 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관련이 드러나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1차 분석지에 기록하였으며, 다시 한 번 본문을 읽으면서 1차 분석지에 기록한 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분석지를 토대로 Priestley의 다중 패러다임의 네 가지 측면별로 2차 분석지를 기록하였다. 이때 위인전의 주인공인 헬렌 켈러와 한국의 저자가 기록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해 다중 패러다임을 분석함으로써 위인전 기술 측면에서 반영된 한국 어린이 대상

9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Priestley가 최초로 제시하고 2009년 조원일이 재정리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위인전의 장애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의 주관적 편견 개입으로 인해 기록지 기록과 분석 자료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복지 및 장애학을 전공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관계자 2인에게 다시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헬렌 켈러 위인전의 본문을 대상으로 2인의 관계자가 내용을 분석하고 1차 분석지를 작성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두 관계자의 1차 분석지는 78%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두 관계자는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합의된 부분을 1차 분석지에 기록, 수정하였다. 이 기록지와 연구자의 1차 분석지를 비교한 결과 83%의 일치율을 보였다.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연구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다시 수정, 기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 2차 분석지를 작성하였다. 2차 분석지는 95%의 일치율을 보여 추가 논의를 통해 수정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IV. 결과

1.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위인의 현황 및 특성

한국의 장애위인 중 단행본 위인전이 가장 많이 출간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위인이기보다는 민주화를 이룬 정치인으로서 조명되어왔다. 이는 세계위인 중 단행본이 가장 많이 출간된 에디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역시 청각장애가 있는 인물이지만 장애위인이기보다는 줄곧 창의력과 탐구심이 남다른 발명가로서 주목받아왔다. 장애를 가진 위인일지라도 일정한 성취나 업적을 쌓으면 장애를 극복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 이상으로 칭송을 받음으로써 그가 가진 장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 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선 장애인도 가진 바능력을 개발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

애인은 무능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에게도 가진 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계발의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기개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위인전의 기능과 맞물리기 때문에 장애위인전이 꾸준히 재생산되고 유통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한편, 장애 관점(disability perspective)에서 보았을 때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기능을 위해 장애가 감추어지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무화(無化)되는 현상마저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의 삶을 좌우하는 요소가 장애뿐인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한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성취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장애로 인한 경험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 또한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위인전 속에서 위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가 그저 어느 한순간의 사건 혹은 이제는 아무 것도 아닌 요소로 치부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¹⁰ 장애는 그 장애인이 살아있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만일 장애가 없어졌다면 그는 이미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3】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위인 유형별 분석

장애유형	한국	세계
지체	김대중, 서덕출, 이희아, 황대중	닉 부이치치, 로자 룩셈부르크, 루스벨트, 스티븐 호킹, 애덤 킹, 프리다 칼로
시각	강영우, 박두성, 이씨 부인	루이 브라이, 헬렌 켈러,
청각	김기창, 변상벽(언어)	베토벤, 에디슨
기타	없음	없음

국내의 장애위인의 유형을 분석해보니 한국의 장애위인은 지체 4명, 시각 3명, 청각이 2명이고, 세계 장애위인은 지체가 6명, 시각이 2명, 청각이 2명으로

¹⁰ 김효진은 지체장애가 있는 멕시코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프리다’를 분석하면서 그녀의 평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지체장애와 장애를 갖고 살아온 경험이 그녀의 그림과 사랑에 가려 무화(無化)되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다(「오늘도 난, 외출한다」, 웅진지식하우스, 2004).

지능장애에 해당하는 유형이 전부인 공통점이 있었다. 다른 유형의 장애위인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소수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사회환경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위인들의 직업으로는 정치가, 사회운동가가 가장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황대중 장군, 세계인물로는 닉 부이치치, 루스벨트, 로자 룩셈부르크, 헬렌 켈러가 이에 해당하였다. 한국과 세계 인물 공통적으로 직업이 그리 다양하지 않은 것은 장애차별로 인해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예술가가 4명이나 되는 반면 발명가 혹은 과학자는 1명도 없었는데, 세계인물 중에서는 에디슨과 스티븐 호킹이 이에 해당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근대화가 훨씬 늦었고 근대화 이후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장애위인 중 맹인 이씨 부인의 경우 사업가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녀는 다섯 살 때 홍역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퇴계 선생의 중매로 서 진사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약주와 다과를 만들어 팔아 큰돈을 벌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후일 정경부인이 된 인물이다. 그런데 제목에서조차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씨 부인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유는 그녀의 행적만 전해 내려올 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이다.

표 4 |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위인 직업별 분석

직업	인물	
	한국	세계
교육자	강영우, 박두성	루이 브라이
사업가	이씨 부인	
예술가	김기창, 변상벽, 서덕출, 이희아	프리다 칼로, 베토벤
정치가, 사회운동가	김대중, 황대중	닉 부이치치, 루스벨트, 로자 룩셈부르크, 헬렌 켈러
발명가, 과학자		에디슨, 스티븐 호킹
기타		애덤 킹(아동)

이어, 장애위인을 성별로 분류해 보았더니 한국의 장애위인 중 여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세계 장애위인 중에서는 여성이 3명이었고 7명이 남성이었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위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이희아, 최근에서야 발굴, 소개된 맹인 이씨 부인 두 명뿐인 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표 5 |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위인 성별분석

	한국	세계
남	강영우, 김기창, 김대중, 박두성, 변상벽, 서덕출, 황대중	닉 부이치치, 루스벨트, 루이 브라이, 베토벤, 스티븐 호킹, 에디슨, 애덤킨
여	이씨부인, 이희아	프리다 칼로, 로자 룩셈부르크, 헬렌 켈러

한편, 장애위인전의 제목에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이후부터로 파악되는데, 수식어의 성격을 범주화해보니 크게 장애극복, 노력과 성취, 강점부각, 인간적인 면모의 네 가지로 특징지어졌다. 한국과 세계 장애위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노력과 인간적인 성취가 부각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한국 장애위인의 경우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한 위인전은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장애극복과 성취가 부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Priestley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 분석틀을 적용해 보았을 때, 장애극복과 성취는 모두 개별적 관념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의료·재활적 관점에서 장애 문제 해결에 접근해오다가 점차 사회모델, 인권 관점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위인전에서는 여전히 의료·재활적 관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강점과 덕목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가 이룬 성취가 부각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이 배제되고 은폐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계위인 중 스티븐 호킹, 헬렌 켈러, 에디슨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세계위인 중 에디슨, 베토벤, 헬렌 켈러의 경우 성취 외에도 끈기와 의지 등

강점과 덕목이 강조되었으나 한국 장애인 중 김대중 대통령과 김기창 화백 외에는 제목에서 강점과 덕목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이는 국내 장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듯한데, 특히 장애 감수성이 바탕이 된 내면 분석이 빠진 채 위인전이 씌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를 가진 삶의 경험이 한 사람의 성장과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밀한 탐구 없이 외적으로 드러난 행적과 성취만이 강조되어 있기에 위인전을 읽는 아이들은 장애인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기보다 타자화하게 된다. 이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한편 세계위인 중 베토벤의 경우에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는 특징을 많이 보이는 것은 그가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이므로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어렵게 접근하게 될 것을 우려한 현상으로서 장애를 보는 관점과는 무관한 듯하다.

표 6 | 장애인 단행본 제목에 붙은 수식어 분석

	한국		세계	
장애 극복	강영우	세상을 밝힌 한국 최초 맹인 박사	애덤 킹	티타늄 다리의 천사 애덤 킹
	이희아	103센티미터 희아의 기적	스티븐 호킹	장애를 극복한 천재 과학자, 스티븐 호킹
	김기창	장애를 딛고 선 천재화가 김기창	헬렌 켈러	-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른 헬렌 켈러 -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헬렌 켈러 이야기
	변상벽	말은 더듬지만 그림은 완벽해		
인간적인 면모	-	-	베토벤	- 베토벤은 음악을 좋아해 - 베토벤 아저씨, 우리 친구 해요 - 안녕, 내친구 루트비히 판 베토벤 - 우리가 사랑한 베토벤
노력과 성취	김대중	- 노벨 평화상과 김대중 - 노벨평화상에서 통일까지 김대중 - 김대중,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행동하는 양심	루이 브라이	루이 브라이, 손끝으로 세상을 읽다
	박두성	- 점자로 세상을 열다 - 한글 점자 만든 박두성	스티븐 호킹	- 스티븐 호킹: 우주의 비밀을 파헤친 - 스티븐 호킹: 블랙홀의 비밀을 밝혀낸 과학자 - 스티븐 호킹: 우주의 블랙홀을 밝힌 과학자 - 블랙홀에 빠져버린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한국	세계	
	서덕출	- 봄 편지의 천사 시인 서덕출 님	에디슨	- 발명왕 에디슨 - 인류문명을 앞당긴 발명의 천재 에디슨 - 발명을 품은 아이 에디슨 - 에디슨: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준 인류 최고의 발명왕 - 발명왕이 된 돌머리 에디슨: 세상을 바꾼 왕따
	황대중	장애인 장군 황대중	베토벤	- 루트비히 반 베토벤: 마음으로 들은 세상의 소리 - 운명의 음악가 베토벤
	이씨 부인	정경부인이 된 맹인 이씨 부인	프리다	화가 프리다 칼로: 고통 속에서도 꿈을 그리다
강점과 덕목	김대중	-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 - 인동초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 - 김대중 대통령: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위대한 스승 -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 김대중: 민주와 평화의 지도자 - 섬마을 소년, 김대중의 꿈과 도전 이야기	닉 부이 치치	- 닉 아저씨처럼 꿈을 가져 - 닉 아저씨처럼 할 수 있어
			루이 브라이	- 세상 밖으로: 루이 브라이유
			스티븐 호킹	- 스티븐 호킹: 죽음의 병을 딛고 일어난 물리학자, 꿈과 용기를 심어 준 사람들
			로자 룩셈부르크	- 로자 룩셈부르크: 불꽃 같은 삶을 산 여성 혁명가
			프리다 칼로	- 프리다 칼로: 사랑과 고통을 화폭에 담은 화가
			에디슨	- 토머스 에디슨: 마법소년 토머스는 멍청해! - 에디슨: 포기라는 말을 몰랐던 끈기의 발명가 - 가우똥? 알: 에디슨 - 에디슨 하면 끈기 - 에디슨: 달걀을 품은 엉뚱한 - 에디슨: 99퍼센트의 노력으로 태어난 발명왕, 과학을 발달시킨 사람들 - 에디슨: 99퍼센트의 노력으로 천재를 뛰어넘은 발명왕
김기창	윤보 김기창: 불굴의 화가	베토벤	- 베토벤: 예술과 창조 - 베토벤: 운명을 뛰어넘은 불멸의 음악가 -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만 듣는, 인물과 예술 - 베토벤: 불행을 이겨낸 천재 음악가, 예술을 꽃피운 사람들	
		헬렌 켈러	- 헬렌 켈러: 희망과 도전 - 헬렌 켈러: 마음의 빛으로 세상을 품은 한 소녀 이야기	

		한국		세계	
강점과 덕목	김기창	윤보 김기창: 불굴의 화가	헬렌 켈러	- 헬렌 켈러: 마음으로 보고 손으로 말하는 희망의 메신저	
				- 헬렌 켈러: 위대한 인간 승리의 본보기, 꿈과 용기를 심어 준 사람들	
			- 꺼지지 않는 희망 헬렌 켈러		

2. Priestley 모델로 분석한 헬렌 켈러

본 연구는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 분석틀을 이용하여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에 나타난 헬렌 켈러와 주변 상황, 한국 저자의 장애개념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생으로 20세기 가장 유명한 인물이며 장애 극복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헬렌 켈러와 그를 둘러싼 당시 미국과 주변인물의 장애개념을 분석하고 당시 미국의 여건이 헬렌 켈러가 활동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글로 옮겨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소개한 저자의 글 속에 나타난 장애개념을 분석하여 헬렌 켈러 및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헬렌 켈러 삶에 대한 기록이므로 헬렌 켈러 자신의 직접적인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장 자체 분석과 함께 상황에 대한 유추가 필요한 문장을 포함했다. 헬렌 켈러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지는 정서와 생각, 행동, 사회 활동을 통해 그의 장애에 대한 태도와 관념을 분석하였다. 장애관 자체가 드러나는 부분과 행동이나 저서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생각을 통해 헬렌 켈러의 장애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헬렌 켈러 자신과 당시 미국의 주변 상황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는 헬렌 켈러 자신의 장애관과 헬렌 켈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보이는 장애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헬렌의 장애관이 주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헬렌의 장애관이 주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헬렌의 부모와 친척들, 설리번 선생님과 기타 주변인들, 미국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포함시켰다. 분석 과정에서는 본 도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적으로, 주변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적었기에 인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으며 각 인물들이 당시 미국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미국의 상황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본 도서를 집필한 한국 저자의 장애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장애 위인전의 저자가 헬렌 켈러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동도서를 집필하는 한국 저자의 장애관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텍스트의 성격상 한국 저자의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난 문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화체 문장이 아니라 서술체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하되 저자가 장애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서술하였다고 보고 사실(fact)을 기술한 것과 저자 자신의 생각을 기술한 것을 분리하였다.

1)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에 따른 각 대상의 장애관

헬렌 켈러와 저자의 장애 개념의 다중패러다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장애 개념이 포함된 문장은 총 171개(100.0%)로, 헬렌 켈러의 장애관이 45개(26.3%), 주변 환경이 107개(62.6%), 한국 저자의 장애관이 19개(11.1%)로 나타났다. 전체 문장 대비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30개로 17.5%, 개별적 관념론 입장은 99개로 57.9%, 사회적 유물론 입장은 18개로 10.5%, 사회적 관념론 입장이 24개로 14.1%로 나타났다.

표 7 | 대상별 장애개념의 다중 패러다임별 분포

	합계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헬렌 켈러	45(26.3%)	0(0.0%)	17(17.1%)	9(50.0%)	19(79.2%)
주변 환경	107(62.6%)	30(100.0%)	66(66.7%)	8(44.4%)	3(12.5%)
한국 저자	19(11.1%)	0(0.0%)	16(16.1%)	1(5.6%)	2(8.3%)
총계	171(100.0%)	30(100.0%)	99(100.0%)	18(100.0%)	24(26.3%)

헬렌 켈러 본문 전체를 분석했을 때 장애관이 나타난 문장은 총 171개로 이 중 헬렌 켈러의 장애관이 드러난 문장은 45개(26.3%)로, 개별적 관념론 입장은 17개(17.1%), 사회적 유물론 입장은 9개(20.0%), 사회적 관념론 입장은 19개(42.2%)로 나타났다. 헬렌 켈러는 사회적 관념론의 입장을 가장 많이 표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념론 입장 전체 24개 중 79.2%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 헬렌 켈러의 장애개념 다중 패러다임 분포

전체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45(100.0%)	0(0.0%)	17(37.8%)	9(20.0%)	19(42.2%)

헬렌 켈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66개(61.7%),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30개(28.0%), 사회적 유물론 입장이 8개(7.5%), 사회적 관념론 입장이 3개(2.8%)로 나타났다. 주변 상황은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전체 개별적 관념론 입장 대비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별적 유물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 주변 환경의 장애개념 다중 패러다임 분포

전체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107(100.0%)	30(28.0%)	66(61.7%)	8(7.5%)	3(2.8%)

헬렌 켈러 전기를 집필한 작가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16개(84.2%), 사회적 관념론 입장이 2개(10.5%), 사회적 유물론 입장이 1개(5.3%)로 나타나 개별적 관념론을 가장 많이 담고 있었다. 특히 전체 개별적 관념론 입장 대비 16.1%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0 | 저자의 장애개념 다중 패러다임 분포

전체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19(100.0%)	0(0.0%)	16(84.2%)	1(5.3%)	2(10.5%)

2) 시기별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의 변화

헬렌 켈러의 생애는 어린 시절 장애의 발생으로 인해 설리번 선생님께서로부터 교육을 받는 시기와 자신의 열망으로 대학으로 진학하여 공부한 후 작가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차별 등을 지적하고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기는 헬렌 켈러가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기로서 각 시기별로 헬렌 켈러의 장애관과 주변 환경의 장애관, 그리고 이를 묘사하는 저자의 장애관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헬렌은 개별적 유물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개별적 관념론 입장을 세 시기에 고르게 나타내고 있다. 장애가 발생하여 설리번 선생님께서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시기에는 6개(35.4%), 대학생들과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2개(11.7%), 사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는 9개(52.9%)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물론 입장과 사회적 관념론 입장은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만 나타났으며 각각 9개(100.0%)와 19개(100.0%)였다. 헬렌은 장애발생과 교육의 시기보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장애관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문제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 시기별 헬렌 켈러의 장애개념 다중 패러다임 변화

	합계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장애발생과 교육	6(13.3%)	0(0.0%)	6(35.4%)	0(0.0%)	0(0.0%)
대학생활과 사회 진출	2(4.4%)	0(0.0%)	2(11.7%)	0(0.0%)	0(0.0%)
사회운동가로 활동	37(82.3%)	0(0.0%)	9(52.9%)	9(100.0%)	19(100.0%)
총계	45(100.0%)	0(100.0%)	17(100.0%)	9(100.0%)	19(100.0%)

헬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헬렌의 장애발생과 교육 시기에는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25개(83.4%)로 가장 높게 표명되었으며 대학시절과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하는 시기에는 각각 1개(3.3%)와 4개(13.3%)로 감소되었다. 개별적 관념론

입장은 각 시기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33개(50.0%)로 가장 높았고 장애발생과 교육 시기에는 19개(28.8%), 대학시절과 사회 진출 시기에는 14개(21.2%)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물론 입장은 대학생활과 사회 진출 시기에 4개(50.0%), 사회운동가 활동 시기에 4개(50.0%)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념론 입장은 사회운동가 활동 시기에만 3개(100.0%)가 나타났다. 헬렌 켈러 자신보다 주변 환경은 개별적 유물론과 개별적 관념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렌의 장애 발생과 교육이 진행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표명되었고 헬렌의 사회 활동과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 시기별 주변 환경의 장애개념 다중 패러다임 변화

	합계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장애발생과 교육	44(41.1%)	25(83.4%)	19(28.8%)	0(0.0%)	0(0.0%)
대학생활과 사회 진출	19(17.8%)	1(3.3%)	14(21.2%)	4(50.0%)	0(0.0%)
사회운동가로 활동	44(41.1%)	4(13.3%)	33(50.0%)	4(50.0%)	3(100.0%)
총계	107(100.0%)	30(100.0%)	66(100.0%)	8(100.0%)	3(100.0%)

헬렌 켈러 위인전을 집필한 저자의 장애관은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헬렌의 사회운동가 활동시기에 12개(75.0%)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장애발생과 교육시기에는 3개(18.8%), 대학생활과 사회진출 시기에는 1개(6.2%)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물론 입장은 대학생활과 사회진출 시기에 1개(100.0%)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념론은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시기에 2개(100.0%)가 표명되었다. 저자의 장애관은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헬렌의 사회운동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념론 입장을 일부 나타내고 있다.

표 13 | 시기별 한국 저자의 장애개념 다중 패러다임 변화

	합계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장애발생과 교육	3(15.8%)	0(0.0%)	3(18.8%)	0(0.0%)	0(0.0%)
대학생활과 사회 진출	2(10.5%)	0(0.0%)	1(6.2%)	1(100.0%)	0(0.0%)
사회운동가로 활동	14(73.7%)	0(0.0%)	12(75.0%)	0(0.0%)	2(100.0%)
총계	19(100.0%)	0(100.0%)	16(100.0%)	1(100.0%)	2(100.0%)

헬렌 켈러는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위인으로, 사회적 변혁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장애인에서도 진보적 입장을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19세기의 미국 사회가 가지는 장애인관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술하는 한국 저자의 장애인 관 역시 시대가 흘렀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저자의 장애인관이 헬렌의 적극적인 사회운동 활동을 지켜보거나 묘사하면서 사회적 관념론을 표명하고 있어 그 의미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별 범주화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는 제목 자체가 개별적 유물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며 인류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제목에 담겨 있다. 본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장애인관은 총 171개로, 네 가지 측면의 장애인관은 각각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30개(17.5%), 개별적 관념론이 99개(57.9%), 사회적 유물론이 18개(10.5%), 사회적 관념론이 24개(14.0%) 나타났다.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개별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의 순이었는데, 헬렌 켈러가 사회적 관념론 입장이 가장 큰 것과 대조적으로 주변 상황과 위인전의 저자는 개별적 관념론을 가장 크게 나타냈다.

(1) 본문에 나타난 개별적 유물론의 범주화

개별적 유물론 입장은 개인의 신체적 상태와 의학적 문제로 장애를 바라보며 장애는 개인의 비극이다. 장애는 신체의 손상이며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다. 장애인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동정과 자선의 대상이며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개별적 유물론의 입장이다.

표 14 | 개별적 유물론의 범주화

범주	본문쪽수	내용	
정상성의 결여와 정상화 열망	정상성 결여	10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쪽 눈은 다른 눈보다 컸고, 눈동자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앞을 못 보는 아이 같았습니다.
		13	헬렌, 보고 듣는 능력을 잃다
			눈도 귀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지독한 열병이 헬렌의 시력과 청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140	헬렌의 잘못된 판단은 신체 발달의 분명한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쓰기까지 했습니다.	
	정상화 열망	21	그렇지만 먼저 수술로 헬렌의 눈을 고칠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47	헬렌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의 감옥에서 사는 동안 잃어버린 놀이의 즐거움을 되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며 예방해야 하는 고난	12	샐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 그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귀먹고 눈먼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하여 세계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까요.	
	19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로라라는 여성이 3중의 장애를 극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정의 대상	27	당시 많은 보스턴 사람들처럼 로저스 부인도 자선 베품기를 의무이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80	저는 눈멀고 귀먹은 헬렌 켈러란 아이를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 놀라운 아이가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137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돌아온 부상병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헬렌 켈러에게 장애가 발생하자 헬렌의 부모는 헬렌의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교육을 통해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헬렌의 장애는 극복을 통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으며 혼자서는 어렵고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동정과 자선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려 하거나 극복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 의해 병사들에게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묘사함으로써 장애를 개인적 비극으로 표현하고 있다.

(2) 본문에 나타난 개별적 관념론의 범주화

개별적 관념론의 입장은 개인의 생물학적 손상보다는 인지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경험에 중점을 둔다. 이 입장에서 장애는 개인의 경험의 산물이며, 개인 간 사회적 역할의 협상을 통한 산물로 분석의 단위는 정체성 경험, 신념이다(김도현, 2009).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장애인이 사회에서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생되는 산물로, 장애인 자신이 주변을 인식하고 자신을 특정 이미지로 투사하거나 주변인들이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이미지가 모두 포함된다. 즉,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동시에 주변인들은 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장애인에게 투사하면서 자신들의 필요와 관계에 따라 왜곡, 변형하여 인식한다.

표 15 | 개별적 관념론의 범주화

범주	본문쪽수	내용	
낙인 왜곡된 이미지	12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표현하고픈 강력한 열망을 발견했습니다.	
	15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주변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46	헬렌은 자기를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59	“헬렌은 불가사의한 천재가 아닙니다. 아주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일 뿐입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나 헬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은 헬렌이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59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아픔이 있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2	박사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헌신적으로 나서는 헬렌의 아름다운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이 아이가 신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04	손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과 상상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나려고 노력하는 헬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헬렌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과장된 이미지 투사	79	자신처럼 3종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명문 대학에 들어간다면 다른 많은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81	이 아이는 세상을 통틀어 가장 비범한 아이입니다.
		93	헬렌은 주저앉는 대신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혼의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영웅적 이미지 투사	120	영화를 기획한 사람들은 헬렌의 이야기가 전쟁으로 찢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헬렌처럼 3종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해 인생의 즐거움과 빛을 발견해 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감동과 교훈을 얻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122	영화를 보면 육체적 한계가 있는 헬렌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용감하고 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8	불굴의 의지로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헬렌이 그들 편에 섬으로써 큰 힘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164	평생을 잣빛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용기 있는 여성은, 깊은 잠 속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165	시청각 장애를 가진 헬렌도 그 모진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우뚝 섰는데, 우리라고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헬렌의 꿈을 이어받아 한걸음 앞으로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범주	본문쪽수	내용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7	친척들은 이런 헬렌을 짐승 보듯이 했습니다.
	35	“장애가 있을수록 엄격하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6	처음 본 시험에서 헬렌이 좋은 성적을 받아 설리번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기 때문일 거라고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교수님 가운데도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헬렌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91	“네가 장애를 가졌다고 여성의 가장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네 장애는 유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떤 남자가 저랑 결혼하려 하겠어요? 마치 돌로 된 석상이랑 결혼하는 것 같을 텐데요.”
140	아무리 뛰어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일에 대해서 비장애인만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지요.	
장애인의 정체성 부정	57	“책은 제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알려 주니까요.”
	69	이제 저는 말하고 아마도 노래도 할 수 있을 테니 작은 새처럼 행복합니다.
	70	사람들은 힘겹게 이어지는 헬렌의 말을 들으며 장애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경의를 표했습니다.
	97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한 꿈을 드디어 이뤄 냈습니다.
	119	어렵사리 짜낸 목소리로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는가를 힘주어 말할 때, 장애인들이 더 큰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5	장애인에 대한 헬렌의 극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6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암흑의 장막을 스스로 걷어낸 이야기를 들으며 병사들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164	비장애인들보다 불편한 몸을 타고났을 뿐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헬렌 켈러에 대한 이미지를 서술하면서 헬렌에게 특수한 능력이 있거나 남들보다 강한 열망이나 의지가 있던 것을 장애로 인한 부산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 능력이 숭배되거나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와 같은 재능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하여 장애인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과장되고 영웅적 인물로 묘사하면서 헬렌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 장애 때문이며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를 극복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지라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인 자신의 영역에 도전하거나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일 때에는 그 능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장애인이 속한 영역이 나와 관계없거나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놀랍고 신기하며 본받을 일로 여기지만 나와 경쟁상대가 되거나 공정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개인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 경험의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헬렌 개인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장애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본문에 나타난 사회적 유물론의 범주화

사회적 유물론의 입장은 산업화 및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 모든 사회 현장에서 억압하고 차별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압과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의 변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장벽(disabling barriers)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물리적 장벽 제거와 함께 구조적, 제도적 차별에 대한 철폐가 중요하며 교육과 고용 등 모든 사회 환경에서 기회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표 16 | 사회적 유물론의 범주화

범주	본문쪽수	내용
자본주의 모순에 의한 구조적 문제	127	일터에서 시력을 잃은 공장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헬렌이 조사한 어떤 여성은 먼지투성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안염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면 나았겠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결국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또 기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몸이 바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눈을 다쳐 실명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헬렌은 조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이 불운 탓만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의 사장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리고 가난한 이들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범주	본문쪽수	내용
	128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130	이 사회 전체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132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하얀 레이스를 짠 직조공의 시든 얼굴은 이 레이스마냥 창백하기만 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지 않은 채 이런 레이스 옷을 입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정한 환경을 위한 사회제도 부재	81	결국 헬렌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1	헬렌의 장애가 또 다른 어려움으로 등장했습니다. 우선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터가 큰 문제였습니다. 헬렌과 같은 장애인에게 입시 교육을 할 학교가 없었습니다.
	84	평소 학교 수업 시간에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과 함께 교실에 들어와 선생님의 가르침을 손바닥에 써서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입학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이 함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86	층계나 강의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인식표가 없었습니다. 헬렌은 친구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층계에서 발을 헛디더 구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대학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더욱 없던 탓입니다.
	117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각장애인은 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교육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134	재단과 함께 헬렌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대학생할에서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유물론의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대학은 헬렌이 생활하거나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으며 공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헬렌 자신과 설리번 선생님의 몫이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헬렌은 교육 환경과 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사회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헬렌은 노동자들의 삶과 환경을 알게 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와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바로 장애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환경이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넘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4) 본문에 나타난 사회적 관념론의 범주화

사회적 관념론은 장애를 문화적 상황의 산물로 본다. 동일한 장애 상태라도 그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측면이다. 장애는 개인의 손상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적인 생산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표상에 의해 그 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이동석, 2004). 따라서 사회적 관념론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문화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조리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17 | 사회적 관념론의 범주화

범주	본문쪽수	내용
장애 정체성의 인정과 낙인의 극복	118	실제로 헬렌은 한평생을 장애인의 대변자로 살았습니다. 글로 연설로 장애인의 처지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했습니다.
	119	헬렌은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깨는 글을 쓰는 한편 직접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성별/연령/인종 관련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극복 노력	122	주로 노동자들과 영어를 모르는 이민자들이 즐기는 보드빌에 출연하면 품위가 떨어질 거라며 많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헬렌과 설리번 선생님은 보드빌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는 데 더 없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3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29	헬렌은 모든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싸웠습니다.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웠고, 인종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한 것입니다.
	132	노동 문제를 살펴보면 헬렌은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가 남성들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돈을 더 적게 받았습니다.

범주	본문쪽수	내용
성별/연령/ 인종 관련 사회적 역압에 대한 저항과 극복 노력	133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온갖 편견을 무릅쓰고 대학에 진학했던 헬렌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34	헬렌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36	장애인, 노동자, 여성들처럼 사람다운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이들도 차별 없이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헬렌이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전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40	“제가 노동자들을 지지하자 이제 장애인이란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사상을 공격하지 않고 비열하게도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헬렌은 장애인과 노동자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41	그들의 처지를 살피는 글을 읽거나 직접 만나면서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사회 약자들은 결국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159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유색 장애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인종 격리정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스의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	165	헬렌이 꿈꾸는 세상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노동자든 경영자든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139	헬렌을 세계 8대 불가사의니 천사 소녀니 하며 찬사를 퍼붓던 신문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노동자들이 눈먼 헬렌 켈러를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헬렌은 장애를 올바로 인식시키고 편견을 깨고자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헬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노동자 및 여성, 흑인 등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변자이자 지지자로서 사회변혁 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헬렌이 장애인으로서 장애 문제만을 가지고 불평등한 사회에 맞선 것이 아니라 장애를 포함하여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모든 상황에 맞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개인적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인으로 본 것으로, 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배척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연히 주류 사회는 이와 같은 헬렌의 인식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그들은 헬

렌의 활동이 자신들이 구축한 사회문화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언론은 사람들이 헬렌을 사회변혁 운동가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한계로 인해 인식이 미숙한 장애인으로 몰아갔다. 사회문화적으로 장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 일반 대중은 헬렌에 대해 많은 오해와 폄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여성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사회운동가로서 헬렌 켈러의 진가를 다시 살펴야 한다. 그는 사회가 형성한 문화적 측면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대상으로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장애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보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시킨 인류사적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른 헬렌 켈러」에서 저자는 이와 같은 점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였다. 저자는 앞의 분석에서 보듯이 개별적 관념론에 머무는 장애관을 가지고 있으며 헬렌이 보여준 사회적 관념론의 입장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애관을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위인전이라는 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적절한 장애관을 심어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과 관련하여 형성되었던 지배이데올로기의 반영이 아직 교육과 관련된 도서의 내용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1.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 위인의 현황 및 특성

본 연구에서 먼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단행본에 등장하는 장애위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행본에 등장하는 국내의 장애위인의 유형을 분석해보니 지·농·맹에 해당하는 유형이 전부였으며, 다른 유형의 장애위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소수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제약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장애위인들의 직업으로는 정치가, 사회운동가가 가장 많았다. 한국과 세계 인물 공통적으로 직업이 그리 다양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사회 환경 때문일 것이다.

셋째, 한국의 장애위인 중 여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두 명의 여성조차도 위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이희아, 최근에서야 발굴, 소개된 맹인 이씨 부인 두 명뿐인 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애위인전의 제목에 붙은 수식어의 공통점을 찾아 범주화해보니 크게 장애극복, 노력과 성취, 강점부각, 인간적인 면모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한 위인전은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장애극복과 성취가 부각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Priestley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 분석틀을 적용해 보았을 때, 개별적 관념론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한국사회가 의료·재활적 관점에서 장애 문제 해결에 접근해오다가 점차 사회모델, 인권 관점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장애위인전에서는 여전히 의료·재활적 관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장애위인 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기창 화백 외에는 제목에서 강점과 덕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장애위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장애위인전에 있어서 장애 감수성이 바탕이 된 내면 분석, 즉 장애를 가진 삶의 경험이 한 사람의 성장과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밀한 탐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Priestley 장애개념에 대한 다중패러다임 모델로 분석한 헬렌 켈러

Priestley의 다중패러다임 모델로 분석한 헬렌 켈러와 주변 환경, 한국 저자의 장애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헬렌 켈러와 주변 환경, 저자의 장애개념별 다중패러다임 분포는 총 171개였으며, 헬렌 켈러의 장애인 45개(26.3%), 주변 환경의 장애인이 107개

(62.6%), 한국 저자의 장애관이 19개(11.1%)로 나타났다. 전체 문장 대비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30개로 17.5%, 개별적 관념론 입장은 99개로 57.9%, 사회적 유물론 입장은 18개로 10.5%, 사회적 관념론 입장이 24개로 14.1%로 나타나 헬렌 켈러 본문에서는 개별적 관념론이 가장 많았고 개별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사회적 유물론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헬렌 켈러의 장애관은 총 45개 문장 중 사회적 관념론이 1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별적 관념론 17개, 사회적 유물론이 9개로 나타났고 개별적 유물론은 나타나지 않았다. 헬렌 켈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6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30개, 사회적 유물론 입장이 8개, 사회적 관념론 입장이 3개였다. 헬렌 켈러 전기를 집필한 작가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16개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관념론 2개, 사회적 유물론 1개 순이었다.

셋째, 헬렌 켈러의 일생을 장애발생과 교육의 시기, 대학생활과 사회 진출,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시기로 나눠 분석한 결과 헬렌은 개별적 유물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세 시기에 고르게 개별적 관념론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유물론 입장과 사회적 관념론 입장은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만 나타났다. 각각 9개와 19개로 사회적 관념론이 가장 높았다. 헬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헬렌의 장애발생과 교육 시기에는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25개로 가장 높게 표명되었으며, 개별적 관념론 입장은 사회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가장 높았다. 사회적 유물론 입장과 사회적 관념론 입장은 각각 8개와 3개로 매우 적었다. 저자의 장애관은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헬렌의 사회운동가 활동 시기에 12개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사회적 유물론 입장은 대학생활과 사회 진출 시기에 1개가 나타났고, 사회적 관념론은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시기에 2개가 표명되었다.

넷째,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별 범주화 결과, 개별적 유물론은 정상화의 결여와 정상화 열망, 장애 극복과 예방의 중요성, 동정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별적 관념론은 낙인과 왜곡된 이미지 투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장애인의 정체성 부정으로 분류되었으며, 사회적 유물론은 자본주의 모순에 의한 구

조적 문제, 평등한 환경을 위한 사회제도의 부재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관념론은 장애 정체성의 인정과 낙인의 극복, 성별, 연령, 인종으로 인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극복 노력, 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분류되었다.

헬렌 켈러는 사회적 관념론의 입장을 가장 많이 표명하고 있으며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한 사회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 전기를 집필한 한국의 저자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 사회의 장애 개념을 그대로 본문에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표명하는 장애인 개념이 개별적 관념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 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장애인 개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헬렌 켈러가 전체 위인전 중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을 접하는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장애개념에 대해 장애인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개별적 관념론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그 지배이데올로기가 원하는 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3. 결론 및 제언

단행본의 현황 분석과 헬렌 켈러 위인전의 분석 결과를 총괄해볼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 개념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김대중과 루즈벨트, 스티븐 호킹, 에디슨 등의 경우 장애 자체가 아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에게 장애는 그들의 능력을 더욱 배가시켜주는 단순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헬렌 켈러나 루이 브라이, 닉 부이치치 등은 장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들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전자의 인물들은 그들이 활동한 분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토록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장애’보다 월등히 훌륭한 특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자의 인물들은 인류사적 업적이라기보다 특정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거나 장애여성으로, 사회

적 가치가 전자의 인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보다 ‘장애’가 더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된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로 인해 더욱 빛이 나며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운동의 결과 장애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바뀌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장애 위인전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는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되었다. 제도적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관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향후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앞선 장애 개념을 전달하고 장애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기능해야 할 장애 위인전과 출판시장이 여전히 의료적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다방면에서 인식개선 활동과 인권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미 형성된 장애인관을 바꾸는 데는 더 많은 예산과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배 계층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내용면에서 장애 위인에게 요구되었던 장애극복, 불굴의 의지를 강조하는 계몽적, 교훈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하는 장애위인전이 나와야 한다. 또한 능력과 성취, 업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위인일수록 장애가 감추어지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무화(無化)되는 이제까지의 장애위인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세밀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장애인관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장애감수성이 있는 창작집단을 발굴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탓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장애감수성을 지닌 이렇다 할 작가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양질의 장애

위인전이 유통됨으로써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올바른 장애관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위인전 출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장애 위인전이 아동들에게 올바른 장애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위인전이 주류 출판시장으로 진입해야 함은 물론, 교과서와 관련 콘텐츠 유통 시장에 주류로 진입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지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과거 위인전의 집필 목적은 한 개인이 영웅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모범이 되고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지배이데올로기는 이를 더욱 강조하면서 국난 극복의 영웅으로 더욱 그 역할을 강화하여 지배계층이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를 국가와 동일시 하도록 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과거 위인전의 역할이 왜곡된 것이었으며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위인은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써 타인과 국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다. 장애위인 역시 불굴의 의지와 장애 극복을 통해 위인으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감수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선택을 하고 이를 실천해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장애위인 하면 떠올리기 쉬운 불굴의 의지와 장애 극복은 장애위인들을 가장 단순화하고 타자화하기 좋은 방식으로 정의내린 것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위인전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는 과거 지배이데올로기에 간혀 있는 현재의 위인전(장애위인전 포함) 서술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주류 시장에서 기능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시작된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1980년대 서술된 장애위인전과 비교를 하지 못하였으며, 남녀 장애 위인에 대한 장애관의 차이, 그리고 시대에 따라 남성 장애위인과 여성 장애위인에 대한 묘

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른 관점에서 증명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_____ (2008).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서울: 그린비출판사
- 김정우, 박경수 (2005).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통해 본 장애인복지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No. 1, 2005. 2, pp. 147-167.
- 김효진 (2004). 오늘도 난, 외출한다, 웅진지식하우스
- 남미영 (1985). 무엇을 읽힐 것인가. 교육개발 35, Vol. 4, p69
- 유동철 (2002). 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복지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Vol.- No.19 pp. 183-202
- 이동석 (2004). 장애학의 다중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3, 2004. 8, pp. 227-251.
- 이성진 (1985). 교육심리학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강미란 (2009). 전래동화에 나타난 장애관련 내용 연구-한국전래동화와 외국전래동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교육대학원
- 고 순 (1974). 어린이용 한국위인전에 관한 일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권문희 (2008). 초등교과서에 수록된 위인 10인의 영재성 요서, 가정환경, 부모양육방식 특징에 대한 질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교육대학원
- 권영운 (2008). 사회문화적 가치변화에 따른 광고의 공익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TV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 김명순 (1994). 교과서에 내재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현 (2001)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나는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 김은경 (2010). 박정희 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음악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대학원
- 김주연 (2001). 1980년대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비교연구-한국과 싱가포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혜심 (1991).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에 대한 흥미 및 경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노영화 (2012). 장애관련 유아도서에서 나타난 삽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 박성모 (2013). 자본의 문화산업 지배와 문화노동자.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 박이영 (2007). 초등학생의 위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
- 박정현 (2000).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인지도 분석-6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 손이전 (2002).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성차별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사회정책대학원
- 심혜숙 (2007). 유아도서에서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교육대학원
- 안지은 (2009).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 양서현 (2010). TV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에 나타난 장애인.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 윤용석 (2014). 박정희의 포퓰리스트 리더십과 1960년대 초반 한국 정치담론-위기·민족·정치적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이영애 (2005) 전기문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 이은실 (2012).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본 초등역사교과서의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애 (2011).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들의 특성 및 서술방식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 전성원 (2014). 제5공화국의 출판통제정책과 출판문화운동.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문화대학원
- 정복화 (2000). 해방이후 한국 아동전집 출판에 관한 역사적 고찰-아동전집 출판기획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정은경 (2012). 위인전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독서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 1학년 유아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교육대학원
- 조정계 (2005). 위인전기 자료 활용을 통한 바른 생활과 대화학습의 활성화.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 채정수 (2010). 스펙타클과 정치권력의 상관성 연구-‘국풍81’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Fitch (2002) *Disability and Inclusion: from labeling deviance to social valuing*.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Miami University EDUCATIONAL THEORY / Fall 2002 / Volume 52 / Number 4 463-477
- Garland-Thomson (2011). Misfits A Feminist Materialist Disability Concept, *Hypatia* vol. 26, no. 3 591-609 (Summer, 2011)
- Goodley (2012). *Dis/entangling critical disability studies*. *Disability & Society*, 2013 Vol. 28, No. 5, 631-644
- Goodley & Runswick-Cole (2014). *Becoming dishuman: thinking about the human through dis/ability*.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UK, Research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Chang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Manchester, UK
- Kittay. E. F. (2006). *At the margins of moral personhood*. *Bioethical Inquiry* (2008) 5:137-156,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V. 2008
- Priestley M,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nd Society*, 13.1 (1998), 75-94
- Wolfensberger, W.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 Wolfensberger, W. (1983). Social role valorization: A proposed new term fo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Mental Retardation*, 21(6), 234-239.
- Yates et al, (2007). *Beyond normalization and impairment: theorizing subjectivity in learning difficulties-theory and practice*. *Disability & Society* Vol. 23, No. 3, May 2008, 247-258

연구자 소개

김 호 진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책위원



장애여성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장애여성의 경험을 담은 글쓰기를 좋아한다. 《오늘도 난, 외출한다》, 《엄마는 무엇으로 사는가》 《모든 몸은 평등하다》 등의 저서가 있으며, 장편동화 《강이의 꽃밭》의 저자이기도 하다.

백 해 련

경계너머교육센터 교육컨텐츠팀장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복지분야와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인권교육 및 당사자교육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오만을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장애여성 및 사회 소수자 문제에 대해 겸허하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후기

연구를 끝내며

평소 품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거침없이 풀어내고자 했던 활동가로서의 소신이 있었기에 감히 논문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연구를 마치고 나니 텍스트 분석보다는 장애관의 변화의 흐름에 관심이 많았으나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연구를 마치고 난 후 더 많은 의문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시대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장애인으로 통칭되는 집단 내부에 얼마나 많은 계층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이번 연구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단독 집단이나 하나의 계층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연결고리를 통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겠지만 사회 속 역학 관계에서 볼 때 새로운 문제점들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류 장애인계와 학계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 역시 이런 점에서 보다 세분화된 다음 단계의 접근을 부단히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인권운동 활동가이기에 도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실천해내는 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구진행 중의 에피소드

개성이 강한 두 연구자의 충돌이 불가피하리라 예견했는데, 우리의 호흡은 다행히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연구의 초중반까지 서로의 생각을 두서없이 풀어내는 과정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범위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격과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협의하고 협력하는가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유쾌하고 기분 좋은 논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기다려주며 상대방의 생각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래 호흡을 맞출 동지를 얻은 것이 이번 연구의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우리의 파트너십이 유지될 것 같은 좋은 느낌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재해석’에 대해

활동가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배려한 한국장애인재단의 방침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가들이 꾸준히 도전해 현장감과 문제의식,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학문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의식과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현장 활동가의 창의적 발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장기 지속이 필요하며, 고착화된 학문적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지원사업 지원자에게 전하는 말

우리들도 장애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장애학이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료적인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장애학 연구에 많은 연구자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출발점이 된다면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미 출발선을 떠나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진 이해와 의문점을 파헤치기 위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지혜 자문교수님께 전하는 감사인사

거친 문제의식, 투박한 서술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전지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과의 자문회의는 늘 화기애애했습니다. 과정상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작업이 즐거울 수 있었던 건 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의욕과 열정으로 인해 욕심이 많았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풀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소개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을 소개합니다.

■ 지원취지

새로운 관점의 장애 관련 논문 발굴 : 기존 개인모델(개인의 극복이나 재활의지에 초점을 둔) 관점의 논문을 지양하고 장애를 새롭게 바라보는 논문 양성

장애를 재해석하는 연구 풍토 확대 :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장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연구 활동의 활성화 도모

타 학문의 장애 관련 기초자료 활용 : 「장애」 관련 논문의 증가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장애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틀 마련

■ 연구주제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모든 학문분야 가능)

■ 2015 논문지원사업 연구논문

연번	주 제 명	연구자	자문위원
1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박홍근 허준기	조한진 교수
2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성의 다양성 개선방안 연구	이영희 진승현	박희찬 교수
3	보편적 학습 설계 실현을 위한 통합신체표현활동 실천전략개발 : 움직임 변형 전략과 접촉즉흥을 중심으로	정희정 이용호	이지수 교수
4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정은 조태홍	김동기 교수
5	장애위인전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김효진 백혜련	전지혜 교수

■ 지원규모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연구선정 시	연구비 150만원(2회 분할지급)	연구자 공통
	장애관련 전문 자문위원	
연구완료 시	논문집 출판	연구자 공통
	논문발표회 개최	
	연구완료비 100만원	연구자 중 1팀 (우수논문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논문 시상금 300만원	

■ 연구자

- 석·박사(석·박사 과정생 포함)
- 장애인단체활동가(3년이상 경력자)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은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공고

‘장애’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지식을 넓히고, 장애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새로운 관점으로 장애관련 논문을 발굴하고, 장애를 재해석 하는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이 공고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석·박사 (석·박사 과정생 포함), 장애인단체활동가(3년이상 경력자) 두 그룹으로 나뉘어 공고를 받았습니다.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연맹에서 '다름'에 대한 열린 사고로 '장애'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논문연구자를 지원하는 '장애의 재해석'을 공모합니다. '장애'를 주제로 하는 논문이면 어떠한 학문인도 상관 없으며, 석·박사 과정생 또는 일정 경력 이상의 장애인단체활동가 지원이 신청가능 합니다.

공고기간 2014.11.10월 ~ 2014.12.12일

연구주제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오랜 학문분야 가능)
신청자격 석·박사 과정생, 장애인단체활동가(3년이상 경력자)
연구분야 장애인·장애·장애인과 관련된 분야
연구기간 2014년 11월 15일부터 ~ 2015년 2월 15일까지
지원대상 석·박사 과정생, 장애인단체활동가(3년이상 경력자)
연구비 2015년 1월 15일 ~ 2015년 2월 15일까지
문의처 한국장애인연맹 후원사업팀 (www.herforum.org)

2014년 12월 논문사업의 조력자, 자문위원회 구성

논문연구자들의 멘토이자, 논문 심사·평가·자문을 진행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은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연구진행과정에서 연구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원활한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급

약 11대 1의 경쟁을 뚫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장애를 재해석할 6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연구팀에게는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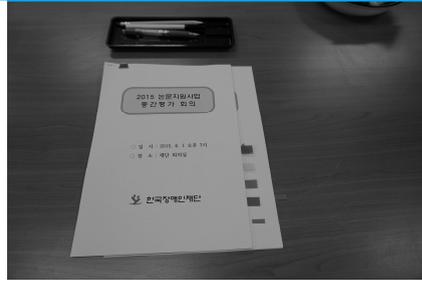
2015년 2월 설렘 가득한 1차 자문모임

연구자와 자문위원 간의 1차 자문모임을 통해 논문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앞으로의 논문 진행에 관한 방향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완성도 높은 논문결과물을 위한 중간평가

연구팀의 연구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연구물의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대비 진행정도를 확인하며, 자문위원들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논문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논문 막바지에 힘을 모았던 2차 자문모임

중간평가 결과 논의되었던 사항을 연구자와 자문위원이 확인하고 완성도 높은 최종결과물의 도출을 위해 연구자와 자문위원이 머리를 맞대어 논문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논문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 9월 아쉬움 반! 후련함 반! 연구 종료!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노력의 결과물이 담긴 『장애의 재해석』 논문 5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연구가 종료되었고, 연구자 5팀 모두가 아쉬운 마음과 후련한 마음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논문지원사업에서는 선정된 6팀 중 1팀이 중도 포기하여 논문팀은 총 5팀, 5편의 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김옥득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끝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2015년 9월

장애를 재해석한 논문들에 대한 최종평가

장애인식개선, 장애감수성 등 연구목적에 따라 장애를 재해석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를 통해 우수논문 1편이 선정되었지만, 모든 연구결과물들은 그 자체로 의미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최종 연구물 보완

논문연구는 끝났지만,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널리 발간될 논문집과 다가올 논문발표회를 위해 최종 결과물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자 5팀은 최종 연구물에 애착을 가지며 더욱 더 멋진 논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다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 11월

장애의 재해석에 한발 더 다가선 논문발표회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를 재해석한 연구자 5팀의 연구결과물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논문발표회가 열립니다. 더불어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연구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되는 시상식 또한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연구결과물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사장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또한, 2016년 논문지원사업 관심자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7회 2016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공모

신청기간: 2015.11.16 (화) ~ 2015.12.13 (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 '다름'에 대한 열린사고로 '장애'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일곱 번째 논문연구자들을 기다립니다!

연구대상 ① 이론적인 두 명 이상의 공동연구
② 재해석 측면에서 이론적인 융복합연구
③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에게 연구주제로 자살이나 위태로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음
④ 선정 논문이 학계 밖으로 적용되는 것을 권장함
⑤ 최종 논문집 제작 시 연구자 본인 또는 시 일러스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⑥ 연구결과물 1000자 이상 3000자 이하로 작성하며 1페이지당 2500자 이내로 작성
⑦ 연구결과물은 1페이지당 1000자 이내로 작성함
⑧ 문의처: 02-6399-6234
이메일: rnm@korea.or.kr
홈페이지: www.korea.or.kr

연구대상 ① 장애인 주제론 하의 논문(모든 학문분야가 가능)
② 저자 1인 이상(공동연구 가능, 전공부동)
③ 장애인(장애)이론(장애학)의 접목
④ 연구 대상자는 장애인에 한정될 수 없음

대상분야 ① 언어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② 사회복지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③ 문화예술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④ 장애인복지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⑤ 장애인복지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⑥ 장애인복지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⑦ 장애인복지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⑧ 장애인복지 / 총 200만원 지원(논문발표비)

신청기간 2015년 11월 16일(화) ~ 2015년 12월 13일(화)까지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2015년 12월 15일(수)까지

발표장소 신청서 접수 후 2015년 12월 15일(수)까지

발표장소 신청서 접수 후 2015년 12월 15일(수)까지

발표장소 신청서 접수 후 2015년 12월 15일(수)까지

2015 논문발표회에 참가하여 장애의 재해석을 미리 느껴보세요!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일시: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1시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후원안내

㉠ 논문지원사업 후원안내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계좌 : 신한은행 100-025-818500 (예금주 : 한국장애인재단)

㉡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 논문집은 무료로 배포되며,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www.herbnum.org)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 록]

한국장애인재단 번역출간사업 기획총서 소개



한국장애인재단 번역출간사업 기획총서를 소개합니다.

기획총서 5 장애와 사회 그리고 개인 [e-book]

이미 미국에서 장애학의 교과서로도 출간된 적이 있으며, ‘장애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장애경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또한, 편견, 차별, 박인,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 초원, 장애경험 등 다양한 현상 중심의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장애인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은이 : 줄리 스마트

옮긴이 : 윤삼호

발행일 : 2015년 1월 6일

※ 이 책은 전자도서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총서 4 장애인과 전문가의 파트너십 – 정책과 실천현장에 적용된 사회모델

장애에 관한 사회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특히, ‘특수함’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주류서비스를 볼 것을 강조하면서 보다 더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기관 간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은이 : 샬리 프렌치, 존 스웨인

옮긴이 : 신은경, 이캐를, 이한나

발행일 : 2014년 11월 25일



기획총서 3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영국의 정책 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이라는 두 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 장점과 장애요소까지 두루 다루면서 시행 과정에서의 주요한 발전 경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이 개별화된 현금지원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역은이 : 존 그래스비, 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옮긴이 : 김용득, 이동석
발행일 : 2013년 3월 11일



기획총서 2

장애 문화 정체성

문화 헤게모니가 어떻게 장애를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장애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장애인 예술 문화가 왜 탄생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노인, 정신장애인, 농인, 학습장애인, 소수인종의 입장에서 보는 장애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장애에 관한 광범위한 부문을 사회학적 접근 방법으로 연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역은이 : 쉴라 리델, 닉 왓슨
옮긴이 : 양원태, 윤삼호
발행일 : 2012년 10월 9일



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책으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태도적, 물리적, 재정적 장벽들을 강조하며 대응책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분야에 관여하는 정책 결정자들, 연구자들, 실천가들, 옹호자들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역은이 : 세계보건기구

옮긴이 :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발행일 : 2012년 4월 5일



기획총서 구매문의 : 지원기획팀 02-6399-6234
<http://www.herbnum.org>

2015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펴낸이 이성규
펴낸곳 한국장애인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바비엔 3차)
<http://www.herbnanum.org>
Tel. 02)6399-6233~6234 Fax. 02)6399-6238
E-mail. nonmun@herbnanum.org
디자인 경성문화사

ISBN 979-11-86957-00-4 (93300)

2015 논문지원사업을 함께 만들어 가신 분들

[연구자]

박홍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허준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진승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정희정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용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부교수
김정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조태홍 대전 새날장애인이룸센터장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책위원
백혜련 경계너머교육센터 교육컨텐츠팀장

[심사·평가위원, 장애분야 자문위원]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위원장]
이지수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문위원님께 전하는 말

조한진 교수님만큼 적극적으로 연구자문에 임해주신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맞춤법이나 비문을 지적해 주셨을 때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가 막힐 때면 함께 고민해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회 세미나와 동료 연구자분들을 소개해주셔서 저희들이 장애학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박홍근, 허준기

박희찬 교수님께서서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본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교수님께서서는 연구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편향된 시각을 보다 균형 있게 잡아주셨습니다. '장애의 재해석' 논문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연구를 자문해주신 박희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이영희, 진승현

이지수 교수님과의 만남은 연구의 자문을 넘어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만난 첫 자문회의에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연구들을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연결점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문회의 외에도 결과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봐 주시고 2시간이 넘는 전화 통화로 보완점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무언가를 발견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 내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자문해주셔서 너무 나도 감사드립니다.

- 정희정, 이용호

김동기 교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연구의 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우리 연구주제와는 모순되게 연구진의 능력 부족으로 교수님은 상호돌봄이 아니라 늘 일방적인 정신적 희생을 강요 당하셨다고 인정할 정도로 애써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많은 것을 참아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연구에서의 돌봄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나름대로의 작은 의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정은, 조태홍

전지혜 교수님께서서는 연구단계에서의 거친 문제의식, 투박한 서술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과의 자문회의는 늘 화기애애했습니다. 과장상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작업이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의욕과 열정으로 인해 욕심이 많았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풀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효진, 백혜련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86 2층
Tel : 02)6399-6234 Fax : 02)6399-6238
홈페이지 : www.herbnum.org
이메일 : nonmun@herbnum.org

